시로 읽는 성보순례
폐사지의 봄
국보 제4호
고달사지 부도 · 고려시대 ▶2면

현대불교

마음이 산란해 안정되지 않으면
듣고 사유하고 관찰하라
그릇에서 물이 새면 물은 채워지지 않는다.
– 보리행경 –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12월 2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871호 2012년 1월 18일 수요일

21C 장경불사 시작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기록유산 집대성 15년간 대장정

1000년 전 초조 · 재조대장경 조성에 버금가는 21세기형 장경불사가 시작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인환)은 1월 10일 간담회를 열고 "2012년부터 2026년까지 15년동안 한국 불교기록문화유산 모두를 대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ABC: Archives of Buddhist Culture, 이하 ABC)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불교학술원은 2011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 1단계 5년간 국고보조금 100억원을 신청해, 1차년도인 2012년 정부예산 10억원을 배정 받았다. 동국대도 국고지원 대응 금액 10억원을 적립하고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 불교기록문화유산은 삼국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문자 그림 소리 등으로 기록돼 전승 · 편찬된 다양한 불교문화유산을 뜻한다. 아카이브사업은 불교기록문화유산을 조사 · 분류하면서 원전자료를 고해상도로 디지털 촬영하고 원문을 입력 · 번역 · 해설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즉, ABC사업은 한국불교문헌의 디지털 집대성으로 초조 · 재조대장경 판각에 이은 삼조 대장경 조성이라 불릴만한 사건이다.

ABC사업은 15년간 5년씩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사업은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주관하고 고려대장경연구소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두 기관이 각각 추진했던 한글대장경 DB와 고려대장경 원문DB를 통합 ·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전서〉 등 불교 기록문화유산의 집성과 역주작업 등도 동시에 추진된다. 사업에는 불교학술원, 고려대장경연구소 외에도 동국대 중앙도서관 · 박물관, 불교중앙박물관 및 각 사찰 성보박물관 등 불교계 문화재관련 기관들이 참여한다. 또, 한국고전번역원, 서울대 규장각,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재청 등 교외 문화재 관련 기관들도 참여하는 대작불사이다.

문자 · 그림 등 불교문화유산 시대 통틀어 디지털라이징 장기 사업 대비 인재 불사도

사업은 ①자료의 조사 · 분석 텍스트 정본 작업과 원전 영인 작업 등을 하는 집성사업 ②집성자료의 한글 번역 · 주석 · 해제 · 영역 등을 하는 역주사업 ③DB구축, 활용 프로그램 개발, 편찬 및 출판 등을 하는 활용사업 ④불교 원전 번역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지난해 담양 용흥사에서 초의 선사 미공개 유품 등 관련 유산을 공개하며 디지털라이징 시범사업을 마쳐 눈길을 끌기도 했다.

불교학술원장 인환 스님은 "기존 고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현대화 · 전산화해 다국적 학자들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ABC사업의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전국 사찰 · 기관 ·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불교관련 기록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조사 · 영인 · 역주해 인터넷과 스마트미디어를 통해 서비스함으로써 불교문화유산 보존과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ABC사업을 통해 디지털라이징된 자료 등은 웹 · 스마트폰 서비스 등 다양한 포맷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불교학술원은 원문 이미지 자료와 텍스트 원문 · 번역문 제공을 시작으로 미디어 환경에 맞춘 서비스 제공도 준비 중이다.

불교학술원은 ABC사업 수주를 통해 한국불교학 연구 요람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됐다. 기존 HK사업을 통해 진행된 연구와 병행해 ABC사업을 통해 원전 번역 등을 진행하고, 대학원 과정 등을 개설해 인재양성에도 나선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15년간 이어지는 ABC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 학술원 산하에 한국불교융합학과 대학원과정을 신설하는 등 조직시스템을 정비하고 교수진 등 연구 인력을 보강해왔다. 또, 한국고전번역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계종 교육원과도 한문불전 번역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불교한문아카데미를 개설키로 했다.

불교한문아카데미는 2년의 기본연수과정을 거쳐 심화 · 전문과정까지 총 6년 동안 집중적으로 경전강독과 번역실습을 연수하며, 올해 2월 기본과정 제1기 연수생 20명을 우선 선발한다.

불교학술원 산하 불교문화연구원 김종욱 원장은 "ABC사업 수주를 통해 불교학문공동체를 통한 한국불교의 르네상스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7면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월호스님의
행불아카데미

조계종 교수아사리 월호스님의 직강을 통해 경전의 참뜻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 강의내용 : 초기 명상법에서 참선에 이르기까지 40회에 걸쳐 강의 및 실습을 병행합니다.
· 행불아카데미 (명상에서 참선까지 실기와 이론 겸수)
– 목요반(정규)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8시 30분
– 금요반(정규)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3시 30분
– 인 터 넷 반 : 인터넷 강의를 듣고 매달 1회 미팅 실습
· 불 교 입 문 :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 12시 30분
· 화 엄 경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3시 30분
· 능 엄 경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8시 30분
■ 문 의 : 월호스님의 경전교실 02)732-9500
Daum 카페 행 불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진제 스님, 美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2월 2일 워싱턴…한국불교지도자로는 처음

조계종 제13대 종정으로 추대된 진제 스님(대구 동화사 조실)이 한국 불교지도자로는 최초로 美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다.

대구 동화사는 "진제 스님이 美 국가조찬기도회(공동의장 제프 세션즈 · 마크 프라이어)로부터 2월 2일 미국 워싱턴 워싱턴힐튼호텔 인터내셔날볼룸에서 열리는 국가조찬기도회에 초대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진제 스님은 1월 28일 출국할 예정이다.

美 국가조찬기도회는 상 · 하원의회 주최로 열리는 국가적인 행사로 올해 60회째이다. 행사에는 美 대통령을 비롯해 100여 국의 정치 · 경제 · 사회 · 종교 지도자 3000여 명이 참석한다. 조동섭 기자

지관 스님 49재 서울 조계사서

15일 경국사서 사리 공개

가산지관 대종사의 49재가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다.

가산문도회는 최근 문도회의를 열고 지관 스님의 막재를 2월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문도회는 지관 스님의 초재~6재는 서울 경국사에서, 막재는 해인사에서 봉행할 예정이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1월 9일 문도대표 세민 스님과 태원스님 등이 아름다운동행에 자비나눔기금 3000만원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조계사 봉행을 제의했다.

지관 스님의 2재는 15일 정릉 경국사에서 봉행됐다. 문도회는 이날 다비 후 수습된 지관 스님의 사리 등을 공개했다. (차주 상보)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더 많이 배우러 갑니다 동학사 승가대학(학장 법성)과 화엄승가대학원은 1월 9일 동학사 강설전에서 49회 졸업식을 봉행했다. 모두 23명의 학인이 배출된 이날 졸업식에는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 동학사 주지 견성 스님, 승가대학장 법성 스님, 동문회장 성본 스님 등이 참석해 졸업을 축하했다.승가대학장 법성스님은 훈화에서 "게으른 천재보다 부지런한 둔재가 사회에 더 필요하다"며 끊임없이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식을 마치고 더 많은 공부를 위해 산문을 나서는 졸업생들을 동학사 대중이 기쁨 반 아쉬움 반으로 보내고 있다. 박재완 기자

동국대 40년 숙원 해소

市로부터 운동장 · 수영장 부지 매입…친환경캠퍼스 조성

조계종립 동국대가 서울시로부터 운동장과 수영장을 매입했다. 이는 동국대 전체 면적의 20%에 가까운 면적으로 부지 개발을 마치면 학교가 새롭게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서울시 소유 운동장과 수영장 부지 2만 3499㎡(7100여 평)를 구랍 28일 매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동국대는 2011년 11월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운동장과 수영장 매입에 대한 안건을 가결했으나, 언론에 엠바고 요청을 하는 등 계약 성사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했다. 매입대금은 240억원으로 알려졌다.

동국대는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학교 소유의 운동장을 갖추지 못한 대학이었다. 이번 부지 매입으로 40여 년 만에 문제를 해소케 됐다.

동국대는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부지에 연면적 1만8000여 평, 6층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개발승인을 받아 향후 다양한 개발모델을 수립하고 있다.

야외수영장을 중심으로 한 지상공간에는 테니스장과 농구장 잔디구장 옥상공원 등을 설치해 체육 · 녹지공간으로 활용해 친환경 캠퍼스가 구현된다. 조동섭 기자


동국대의 운동장 · 수영장 부지 개발 조감도. 그림 왼편이 새로 조성된 공간이다.

'2013 대불련 50돌' 기획연재 시작 13면

871호 CONTENTS

종단 2
조계종 첫 해외교구장 진산식
총지종 종령 재추대
종합 3
선암사 문화재전수조사 논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시방세계 5
서울 소년원 불교수련회

나눔 6
불교여성개발원 108인 명단
지혜의 보고 불서 22
서재탐방–목정배 명예교수

대한불교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가산당 지관대종사 종단장 봉행에 대한 감사의 인사

대한불교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가산당 지관대종사 종단장을 봉행하여 주신 장의위원장이신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장의위원스님, 그리고 종단의 대덕 큰스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근을 불문하고 조문하여 주신 종단의 원로대덕 스님과 제방의 스님, 그리고 사부대중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당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올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도들은 후학양성과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헌신하신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행과 포교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가산당 지관대종사 추모제 안내

초재	1月 8日(日) 오전 10時 경국사	5재	2月 5日(日) 오전 10時 경국사
2재	1月15日(日) 오전 10時 경국사	6재	2月12日(日) 오전 10時 경국사
3재	1月22日(日) 오전 10時 경국사	7재	2月19日(日) 오전 10時 조계사
4재	1月29日(日) 오전 10時 경국사		

●문의 및 연락처 : 02)914-5447(경국사)

불기2556(2012)년 1月 日
가산당 지관대종사 문도 일동
문 도 대 표 세민 합장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4호 고달사지 부도



폐사지의 봄

김유선

육탈한 몸 어느 뼈가
혜목산을 빛띠로 두르시는가
비오는 날에도 빛 밝아서
캄캄한 나도 합장하고 싶네
누구신가, 벼름벼름 더듬는 질문에
없던 것이니 이름도 묻지 말라시네
그 답도 묵언이네
있음도 없음도 하나라고
사방 30리 큰 절을 애초의 초지로 돌려놓고
고달사 빈터가 아흠 가부좌 트시네
연꽃잎 엎어 덮어도
가리지 못하는 몸, 마음, 말의 죄업 날날
제 살에 용비늘로 새기셨네
버리니 얻으셨는가
침묵도 또 다른 말이고
허공이 만상이네
당초 문양의 연민, 너도
신털이몽 쌓였던 모래로 해탈하라며
나를 흔들어 깨우는
봄날 바람으로 회향하시네
흩어지네
팔각귀꽃에서 합장하고 하늘로 비천하던
산벚꽃잎도 개사리천에서 둥둥
하얀 잎잎이 천년 참선 중.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김유선시인은… 경기 용인 출생. 1983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시집 〈놓친 마음 찾기〉 〈빈집〉 등.

조계종, 美 뉴욕서 첫 해외교구장 진산식

초대 美 동부해외특별교구장 휘광 스님, "해외포교 큰 결실 이룰 것"

조계종 최초의 해외특별교구가 설립돼 첫 교구장 진산식을 봉행했다. 2011년 8월 9일 교구 설립, 같은 해 10월 18일 교구장 휘광 스님 임명에 이어 반년여 만에 해외교구가 설립됐다.

조계종 미국 동부 해외특별교구는 1월 8일 美 뉴욕 소재 불광선원에서 초대 교구장 휘광 스님(불광선원 주지)의 진산식을 봉행했다.

진산식에는 총무부장 영담 스님, 해외특별교구장 휘광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 현각 스님(現 독일 포교활동 중)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초대교구장 휘광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미동부 해외교구 설립으로 그동안 해외에서 홀로 외로이 사찰을 건립해 포교에 혼신을 다해 온 미주 지역 스님들이 함께 협력하고, 종단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앞으로 해외교구를 통해 1.5세대와 2세대 교포와 미국 현지인들의 출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한국불교의 국제화에 큰 동량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며 "1700여 년의 한국불교를 돌이켜 볼 때 미동부 해외특별교구의 시작은 한국불교 국제화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치사를 대독한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영세한 사찰 규모, 교포 중심의 해외포교 활동 등 그간의 관행과 시스템이 문제였다"며 "조계종은 한국불교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수 년 간의 활동과 저력을 바탕으로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해외교구를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담 스님은 "한국불교 세계화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미동부 해외특별교구가 교두보가 될 것이며 휘광 스님은 첫 항해를 시작하는 해외특별교구의 항해사 역할을 제대로 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현각 스님은 "조계종이 처음 공식적으로 한국불교 전통·교육을 해외에 여법하게 전달해 줄 시스템·행정을 시작한 뜻 깊은 자리"라고 축사했다.

진산식에서는 미동부 해외특별교구를 이끌어 갈 소임자에 대한 임명장이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동부 해외특별교구 고문으로 경암 스님(보림사), 도범 스님(문수사), 법장 스님(화엄사), 원영 스님(보리사), 혜성 스님(백림사) ▷부교구장에는 지광 스님(원각사) 선묵 스님(연국사) ▷특별자문위원 대성 스님(불광선원) ▷총무국장 문종 스님(불광선원) ▷교무국장 연경 스님(혜안정사) ▷포교국장 석담 스님(청아사) ▷호법국장 현해 스님(보현사) ▷교구장 특보 혜민 스님(불광선원)이 임명장을 받았다.

美 동부 16개주·加 동부 6개주에 한국불교 전통 전할 시스템 구축

또,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총무부장 영담 스님을 통해 한국불교 세계화와 미주지역 포교를 통해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알린데 대해 석담 스님과 고병희 회장(뉴욕청소년재단어머니회)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진산식 후 미동부 해외특별교구 교역직 스님들은 '미국동부 해외특별교구 현판식'을 봉행 후 제1차 교구 종무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뉴욕 듀크 오션 그릴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교구장 휘광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총무부장 영담 스님, 교구 종무위원 등 5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미동부 해외특별교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미동부 교구 불자들은 "종단이 해외교구에 신도증 발급, 경전·사경문·한글학교·불교방송 등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미국 동부 해외특별교구는 미국 동부지역 16개주와 캐나다 동부지역 6개주 사찰에 대한 일반 행정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조동섭 기자**



1월 8일 진산식을 가진 조계종 美 동부해외특별교구장 휘광 스님은 종단과 유기적 관계를 갖고 한국불교 세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종단 화합과 기강확립 화두로 정진하라"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신년유시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이 신년하례를 통해 종단화합과 종단기강 확립 등을 강조한 유시를 1월 12일 순천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봉행된 임진년 신년하례법회에서 내렸다.

혜초 스님은 "첫째는 종단의 화합, 둘째는 파사현정의 서원으로 종단을 바로 잡는 것. 마지막으로 종단의 기강의 확립돼야 한다"며 "종도들은 이 세 가지를 화두를 삼아 정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스님은 "한 생각의 생각을 해보니까, 1년 365일이 지나면 또 다시 새해가 다가온다. 이렇게 멈출 줄 모르는 수레바퀴 같은 시간과 넓고 끝없는 벌판 같은 공간, 그 사이에서 우리 인간은 존재하고 있다"며 "시방(十方)인 공간과 삼세(三世)인 시간은 어느 누가 부른 것도 아니며 무엇이 보내온 것은 더욱 아니니 임진년 새해에도 뜻하는 바 성취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종정스님의 법어에 앞서 총무원장 인공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60년 만에 온 흑룡의 해를 맞아 승천하는 용의 기운처럼 힘차게 종단의 위상을 드높이고, 안으로는 튼튼히 내실을 다지는 한 해가 되자"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혜초 스님을 비롯해 원로회의 의장 설봉 스님, 총무원장 인곡 스님, 종회의장 도산 스님 등 종단기관장과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관음종 중앙종회 및 신년하례

관음종(총무원장 홍파)는 1월 9일 총무원에서 중앙종회를 열고 2012년도 예산 38억900만원을 의결했다.

또, 올해 사업계획으로 ▷개산조 태허조사 108주년 기념 학술대회 ▷서울불교문화대학 커리큘럼 조정 ▷외국인 템플스테이 중점육성 ▷국제보살계 봉행(4월 4일) 등 안건을 결의했다.

한편, 관음종은 중앙종회에 앞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조동섭 기자**



"대승적 협력에 감사" 유영숙 환경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안을 3월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1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유영숙 장관은 "조계종의 대승적 협력으로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안 고시를 3월 경 마무리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해 4월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박기범 기자

총지종 효강 종령 재추대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지성)이 1월 12일 승단총회를 열고 現 효강 종령을 만장일치로 재추대 했다.

효강 종령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중앙교육원장, 법장원장, 통리원장 및 불교TV, 불교방송 이사 등을 역임했다. **박기범 기자**

성월 스님, 용주사 종회의원 당선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종회의원에 단독 입후보한 성월 스님의 당선이 확정됐다.

스님은 1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격심사를 통과하고, 12일 용주사 관음전에서 열린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됐다. **조동섭 기자**

창당결성공고

선 진 한 국 당

1. 깨끗한 정치풍토를 위하여
2. 아름다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하여
3. 선지한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 12월 12일 선관위에 결성 신고하고
참신한 국가관과 민족부흥 건설에 앞장 설 우수한 인재를 찾고저 합니다.
뜻있는 분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선진한국당 전화 : 02)732-0797 / 010-8928-9587 / FAX : 2201-1163

재건축에 정릉·흥천사 망가질 뻔

10일 정념 스님 기자회견…문화재청 현상변경신청 심의 보류

세계문화유산 정릉과 원찰인 흥천사(주지 정념)가 대규모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훼손 위기에 몰렸으나 문화재청의 '보류' 결정으로 한 숨을 돌렸다. 그러나 현상변경 신청이 재기될 여지가 남아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1월 11일 문화재 사적분과 및 세계유산분과의 합동 심의를 열고 정릉 제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상 변경 신청을 심의했다. 19개동 752세대 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서울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66호 흥천사 극락보전 및 제67호 명부전 문화재로부터 불과 70m 떨어져 있다.

흥천사와 '정릉을 사랑하는 모임' 등 시민들은 재건축으로 정릉과 흥천사가 훼손될 수 있다며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해 왔다. 사업이 진행될 경우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정릉과 흥천사의 문화재가 위협받게 된다.

더구나 재건축 조합은 현재 적법성 논란을 겪고 있다. '정릉 제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설립무효 확인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이 조합이 2009년 12월 31일~2011년 7월 12일 사이에 추진한 조합설립 인가 추진 행위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문화재청도 이런 우려를 받아들여 현상변경신청 심의에서 '보류'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 위원들은 심의에서 "정릉과 흥천사의 역사성을 고려해 경관 확보 등을 위한 충고를 조절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합의 현상변경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합측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상 변경을 신청해 왔다. 현상변경신청에 대한 횟수 제한 규정이 없다보니 사업계획을 조정해 신청하면 문화재청은 계속 심의를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들에게 정릉과 흥천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작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정릉은 단릉으로 조성된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의 능이다. 태조는 능역을 조성하고 능호를 정릉이라 칭했다. 아울러 흥천사(興天寺)를 지어 재궁으로 삼고 능침사찰로 정했다. 특히 그동안 미입주 사찰로 남아 있던 흥천사는 통합종단 출범 50년 만에 정상화 돼 조계종으로서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조계종은 지난 해 10월 흥천사에서 사찰 운영권 정상화를 위한 인수인계를 갖고 종지종풍에 맞는 활동을 예고한 바 있다. 흥천사는 1962년 통합종단 출범 후에도 타 종단 소속 스님이 사찰을 운영하고, 경내에 22가구가 불법으로 거주해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조계종은 정념 스님을 주지로 임명한 뒤, 흥천사에 상주하던 타 종단 스님들과 이주협약을 체결하고, 경내 거주 가구와도 이주매매계약을 진행했다.



정념 스님이 기자회견에서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흥천사 주지 정념 스님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 했다. 스님은 보류 소식이 전해지자 일단 안도하면서도 지속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념 스님은 "정릉과 흥천사의 중요성, 인간과 역사, 문화의 공존의 필요성 등을 문화재청에 계속 알려나갈 것이다. 뜻을 같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선암사 문화재 관리 또 '논란'

순천 시민단체들 "태고종단 차원서 엄히 다뤄져야" 선암사 "시민단체 지적은 억측"


2011년 조사에서 탱화의 손실을 설명하는 경담 스님

순천 지역 주민들이 최근 이뤄진 선암사 인사가 문화재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와 민족문제연구소 동부지부, 순천YMCA, 순천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선암사 문화재찾기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월 9일 논평을 발표하고 선암사 문화재 부실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구랍 28일 새롭게 당선된 주지 설운 스님이 발탁한 종무소 관계자들 중 문화재 관리 부실 논란 당시 성보 박물관 소임을 맡았던 스님들이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범시민대책위는 "관리부실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은 전수조사의 마무리 역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사찰문화재의 의도적 망실이나 대체는 태고종단 차원에서 엄히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재 관리 논란에 연관이 있는 스님들이 또 다시 선암사의 주요 소임을 맡을 경우 문화재 전수조사와 사라진 문화재의 행방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선암사 문화재찾기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특히 문제의 시기에 주지를 맡았던 지허 스님의 상좌이자 성보박물관 관리를 맡았던 승범 스님에게 이 일이 맡겨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승범 스님은 설운 스님이 새롭게 주지로 선출되면서 선암사 총무 소임을 맡게 됐다. 범시민대책위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또 선암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중간조사에서 600여 점의 문화재가 장부에서 누락된 사실과 최소 7점의 문화재가 분실됐다는 결과가 단순한 사무착오로 보기에는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지난 해 9월 선암사 소장 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문화재 7점의 분실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암사측은 시민단체의 지적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선암사의 한 스님은 "문화재가 보관된 수장고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시 관리를 맡았다는 이유로 주요 소임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선암사 수장고는 혼자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지적은 지나친 억측이다"고 해명했다.

박기범 기자

사성제로 풀어낸 분단 고통

민추본, 불교적 관점의 통일교육교재 발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가 불교적 관점의 통일교육교재를 발간했다고 1월 9일 밝혔다.

〈불교와 통일〉은 남북의 불교교류가 활성화 되면서 불교계 내에서의 통일교육 필요성에 제기되면서 제작됐다. 민추본은 2009년부터 불교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일반 불자들을 위한 특강용 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교재는 불교 사상과 이론을 민족 문제에 접목시켜 분단과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내고 있다.

특히 부제인 '분단 고(苦)를 넘어 불국정토로'에서 엿볼 수 있듯이 분단 고통을 사성제(四聖諦)에 적용했다. 우리 민족이 분단으로 인해 겪어야 하는 고통과 손실, 분단의 원인, 통일 한반도의 모습,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고(苦)·집(集)·멸(滅)·도(道)'에 적용한 것이다.

민추본 관계자는 "이번 발간을 계기로 불자대중들의 통일의식이 더 고취되기 바라며 불교적 관점에 기초한 다양한 평화통일교육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불교계 기관 새해 맞아 업무 개편

시스템 효율 제고 위해

새해를 맞아 불교계 일부 기관들이 효율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및 조직을 개편을 단행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월 1일자로 사무국 업무 및 조직을 개편했다.

이번 개편에 따르면 불교사회복지기획연구부문은 복지경영부문으로, 운영관리부문은 기획관리부문, 복지경영지원센터는 복지지원부문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교육인적자원관리부문은 기존 명칭이 유지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관계자는 "불교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효율적 시설운영 관리 및 협력 증진을 위해 개편하게 됐다"고 전했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도 구랍 29일 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에 따르면 연구소는 소장, 부소장, 불교미술연구실, 유적연구실, 행정사무국으로 개편됐다.

박기범 기자

법주사 능인수련원 등 NGO 지원단체 선정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사회복지 및 NGO 분야 지원 단체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1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가졌다.

이번 공모에는 사업계획서 심사 등을 통해 8개팀이 선정됐다. 위드아시아와 법주사 능인 수련원은 '원폭피해자-그절망의 대물림에서 희망의 대물림으로'와 '비행청소년들의 마음 챙김을 통한 우울 치유 프로그램 〈울·화·통 캠프〉'를 제출했다.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불교계도 '예의 주시'

종자연·대불청, "시대역행" 추이 지켜보며 대응 모색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재의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조례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불교계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교육활동의 혼선이 우려된다며 1월 9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조례를 심의했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서울 교육청이 보수 단체의 주장에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의결된 뒤 일부 단체에서는 이번 조례가 교육환경을 훼손한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명화 의원 외 7명은 6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일부 보수단체 및 종교계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현장을 붕괴시키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이대영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은 보수단체의 주장에 굴하지 말고 서울시의회에서 이송한대로 조례를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는 재의 요구를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재의요구는 지극히 당연하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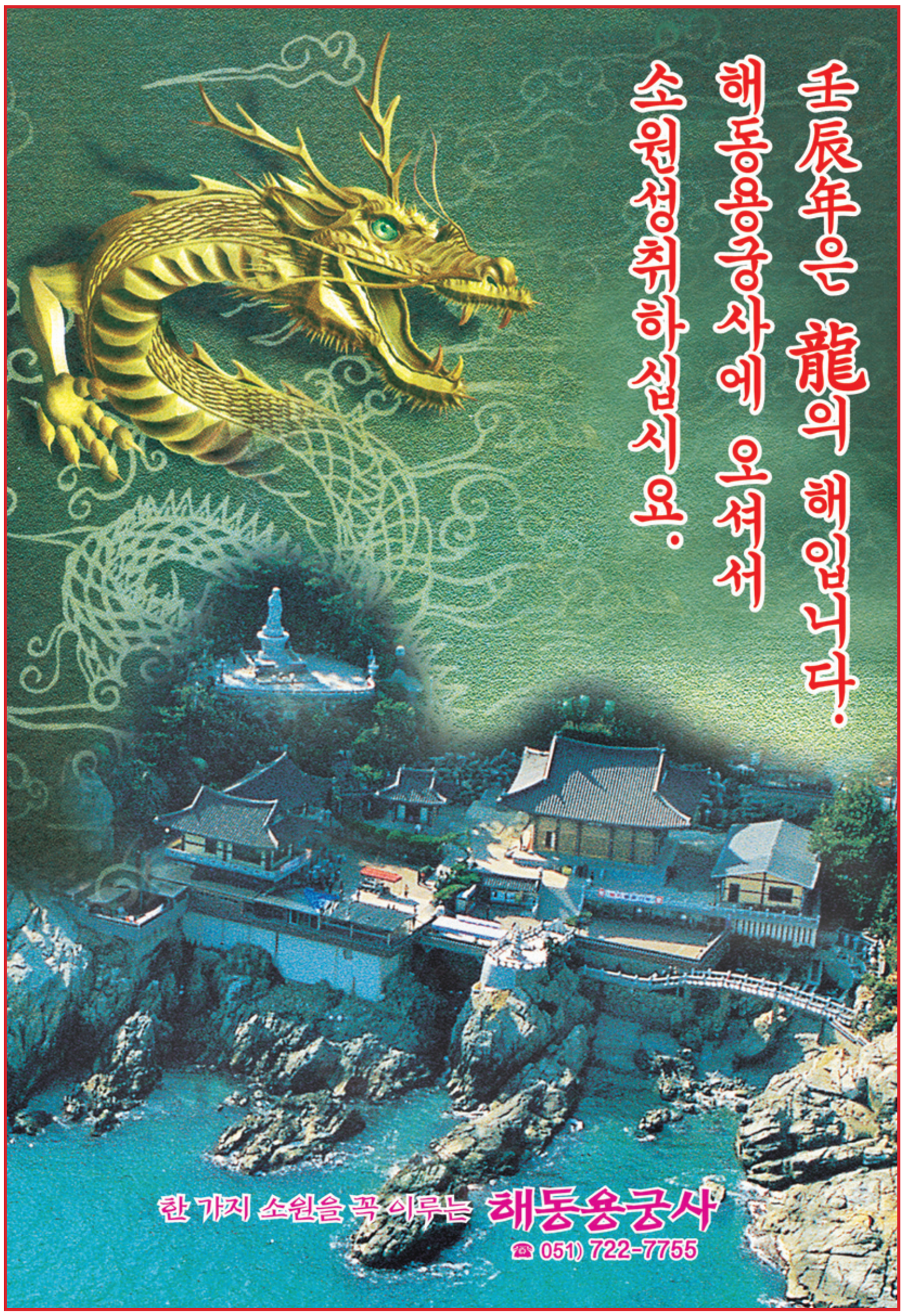
또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미래목회포럼 등 개신교계도 재의요구를 환영하고 나섰다. 개신교계는 그동안 조례안이 학생들에게 종교적 행사·행위 참여 강요 금지, 종교과목 대체과목 선택 방해를 금지 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어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불교계 단체들은 재의요구에 대한 논평이나 구체적인 대응 대신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있다. 자칫 종교간 갈등으로 비춰질 경우 학생인권조례의 기본 정신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병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국장은 "학생들의 인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한다. 이번 조례는 시민발의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개신교계가 이런 중요성들을 이해하고 상생을 위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회장도 "재의요구는 서울시민들이 뜻을 외면한 처사다. 대불청은 원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일 주 문



월정사 신년하례법회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1월 27일 월정사 적광전에서 2012년 월정사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한다. (033)339-6600~1



동화사 정초산림기도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1월 27일 동화사 통일약사기원대전에서 정초산림기도를 입재한다. (053)982-0101



심경 스님 아름다운동행에 기부

동국대 이사로 선임된 조계종 총무원 사서실장 심경 스님은 1월 12일 동국대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아름다운동행에 기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제5기 봉은 불교아카데미 모집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3월 4일까지 제5기 봉은 불교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02)3218-4900



정산 스님 서울대병원 대작 기증

사찰음식연구가 · 미술가 정산 스님은 1월 11일 서울대병원 발전후원회에 '드뷔시의 달빛'(2억 4000만원 상당)을 기증했다.



대한불교진흥원 신년대법회

김규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1월 30일~2월 3일간 혜거 · 도법 · 각성 · 정엄 · 지안 스님 초청 신년대법회를 봉행한다. (02)719-1855

국제선센터 주지 법정 스님 임명



목동 국제선센터 주지에 前 강진 무위사 주지 법정(法頂)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3일 법정 스님에게 주지 임명장을 전달하며 공심을 강조했다.

법정 스님은 몽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5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하고 1999년에는 구족계를 수지했다. 2009년에는 종덕 법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법주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대흥사 동국선원 교무, 목포 달성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박기범 기자**

바로잡습니다



본지 제870호(1월 11일자) 인물동정란에 대한불교서각종 총무원장 원각 스님(사진)의 얼굴이 해인사 원당암 원각 스님의 얼굴로 잘못 게재됐습니다. 바로잡습니다.

"나눔의 스트라이크 던져요"

기아타이거즈 윤석민 선수 생명나눔 홍보대사

한국 최고의 투수 윤석민 선수가 생명나눔을 위한 홍보대사에 나섰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2011년 한국프로야구 MVP를 차지한 기아타이거즈 윤석민 선수를 지난 9일 광주무등야구장에서 생명나눔실천 홍보대사에 위촉했다.

이날 윤석민 선수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서약 후 일면 스님으로부터 홍보대사 위촉장과 합장주와 일면 스님의 에세이집 〈행복한 빈 손〉을 전달받았다.

윤석민 선수는 소감을 통해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좋은 일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 홍보대사로서 솔선수범하고 품위를 잃지 않고 생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자들에게도 "2012년에도 많은 분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민 선수는 향후 생명나눔 홍보대사로써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전달식 후 일면 스님은 "한사람의 국제적 스포츠 스타는 수만대의 자동차 수출에 버금가는 홍보효과가 있다"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 · 미국 등 해외에서도 활약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 한국을 널리 알리는 국제적인 홍보대사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홍보대사로 위촉된 윤석민 선수는 신심깊은 불자인 모친의 영향과 야구를 처음 시작했던 초등학교 시절 은사인 최정기 감독(現 불암사 불일야구단)과의 인연으로 장기기증을 결심하고 홍보대사직을 수락했다.



특히 윤 선수는 장기이식을 마지막 치료 수단으로 애타게 손길을 기다리는 환우가 2만명 이상 된다는 사실을 듣고, 홍보대사직 수행을 통해 장기기증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대사를 맡아 나눔을 통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생각했다.

현재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장기기증, 조혈모세포 희망 등록과 환자 치료비 지원, 자살예방, 헌혈증서 지원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위촉식에는 일면 스님, 현지 스님(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일명 스님(금선사 주지), 지장 스님(동원사 주지), 최정기 감독을 비롯한 생명나눔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과 관계자들에게 홍보활동도 진행했다.

한편 윤석민 선수는 2011년에 다승 방어율 승률 탈삼진 등 투수 4관왕을 달성하며 명실공히 한국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선동렬 감독 이후 프로야구 20년만에 투수 4관왕을 달성한 윤 선수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어 향후 해외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만 심배 스님, 자승 스님 예방



불광산사 주지 심배 스님과 주지실 비서 혜호 스님, 불광산사 도감원 서기 혜호 스님, 서울 불광산사 주지 의은 스님과 서울 불광산사 신도들은 1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방문했다. 이들은 앞서 6일 해인사에서 열린 지관 스님 영결식에도 참석했다.

이 날 심배 스님은 자승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개산조 성운 대사가 병중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지관 스님 입적 소식을 듣고 직접 만장을 쓰셔서 갖고 왔다"고 밝혔다.

성운 스님은 만장에 지혜의 빛이 극락정토로 가다는 의미의 '혜등서거(慧燈西去)'를 적었다. 성운 스님의 만장은 영결식 행렬을 가장 앞에 배치됐다.

자승 스님은 "멀리서 종단장인 지관 스님 영결식 참석을 위해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성운 스님의 건강을 기원하겠다"고 밝혔다. 심배 스님은 "조계종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답했다. **박기범 기자**

"종풍쇄신 · 종단화합 우선"

태고종 원로회의장 설봉 스님



태고종(총무원장 인공)이 1월 10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3대 원로회의 개원법회를 열고 신임 원로회의 의장에 설봉 스님(제주 정광사 주지)이 추대됐다.

신임 원로회의장 설봉 스님은 "최근 태고종은 내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많다. 새로운 구성된 원로회가 종단 집행부에 힘을 보태 모든 것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번 원로회의는 종단기구와 서로 갈림이 없이 종단 전체의 큰일에 협력할 것"이라며 "종도들도 중앙부서와 각 지방 교구종무원을 중심으로 한마음으로 종단을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봉 스님은 1929년 제주에서 출생해 금륜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4세에 백양사에서 만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고, 묵담 스님에게 비구계를 받았다. 제주 정광사, 대구 동화사, 부안 괴암사 등에서 정진한 스님은 2005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하고 원로회의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설봉 스님은 "종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종도화합"이라며 "종풍쇄신과 종도화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태고종 원로회의는 이날 설봉 스님의 의장 선출과 함께 원로회의 부의장에 대운 · 금용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좌우 분별 한마음으로 모을터"

박세일 이사장, 국민생각당 창당준비위 발족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국민생각당(가칭)'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고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박세일 이사장은 1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장기표 녹색사회민주당 대표와 함께 중도 통합신당을 표방하는 국민생각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기인대회에는 조국 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법타 스님, 정몽준 前 한나라당 대표, 권영세 사무총장, 인명진 前 윤리위원장, 이기택 前 민주당 총재 등 외부인사 15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세일 이사장은 "격화되고 있는 좌우대립 문제를 올바로 풀어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정치적 내전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며 "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쳐 계층간 갈등을 뛰어넘는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창단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박 이사장과 장 대표는 2월 말 창당한 뒤 4 · 11총선에서 200명 이상의 후보를 내고 비례대표를 포함해 80석 이상 확보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국민생각에는 박계동 前 국회 사무총장, 윤건영 연세대 교수, 배일도 한국사회발전전략연구원 대표, 김용태 前 청와대 비서실장, 김경재 前 민주당 최고위원 등 10여 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거창군삶의쉼터 무료안마서비스

다손봉사회와 3년째 지속



거창군삶의쉼터(관장 도영)는 1월 4~6일 국립서울맹학교 안마봉사단 다손봉사회(회장 김남규)와 함께 무료 안마서비스를 제공했다. 행사는 평소 안마혜택을 접하기 힘든 노인 장애인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3일간 진행됐다.

거창군삶의쉼터와 다손봉사회는 백신종 도의원의 소개로 선연을 맺고 2009부터 3년째 무료 안마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거창군삶의쉼터 관장 도영 스님은 "매년 쉼터를 찾는 다손봉사회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건강 서비스를 진행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조동종 신년하례법회

사)대한불교 조동종(총무원장 대은)은 1월 5일 상계동 총무원에서 종정 지명 스님, 부종정 법공 스님, 총무원장 대은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명 스님은 "묵조선풍의 대를 이은 종단으로 성성적적한 묵조선을 광선유포하기 위해 정진하자"고 법문했다.

총무원장 대은 스님은 "종도들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애종심을 갖고 종단 발전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날 신년하례법회에서는 지난 종회에서 임명한 각 원장들에게 임명장도 부여됐다. **경남남부지사 청운 스님**

"정월이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장만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구정 전 6일간만 大 할인 합니다."

一. '효사비결' 육임 종합CD프로그램 6일간 할인가격 300만원 / 교환 50만원 정가 650만원
육임 당면사 판단과 육임 일생사 판단을 즉시 할 수 있도록 첫 화면 좌 우측에 배치하여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최근 이것으로 교환 또는 구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최고의 명품이 틀림없습니다.

효사비결 쪽에 「참고말씀」
"육임 당면사 판단에서는 방문(전화)자의 내외 비밀 속사정을 미리 알아 먼저 지적해 낼 수 있고, 귀신 부정 산소탈 침범여부가 명쾌하며, 해소방법 또한 백미입니다. 육임 일생사 운명판단 역시 방문(전화)자의 인생 전반 사항을 위 당면사와 함께 한 화면에 좌우로 배치하여 한눈에 보이게 끔 해 놓았을 뿐 아니라 '상대가 내 말을 신뢰하고 있는지', '고집이 있는지', '설득해야 할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대상인지', '상대에 대한 수법이 제례의식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까지 떠 있습니다. 방문(전화)자가 물어오는 사항도 해당인의 띠별로 '되고' '안되고' 를 확정시켜 놓아 판단의 정확도를 보장시켰습니다.

二. '군자수첩' 육임전문 CD프로그램 6일간 할인가격 80만원 정가 103만원
육임만의 정수를 뽑아 첫 화면에 배치 했습니다. 특히 정치인 경제인과의 상담이 많은 분들께서는 매우 긴요하게 쓰일 것이며 효과 역시 보장됩니다.

三. '육임1년신수비결' 2011증보판 6일간 할인가격 20만원 / 교환 1만원 정가 25만원
각월별 길흉변수가 바깥일과 집안일로 구분되어 종전 것 보다 훨씬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난달의 길흉까지 밝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이 신수비결은 집안 각 식구의 기도 제목으로도 활용됩니다.

四. 평소 '효사활인천역용 육임 각 활용서' 들을 눈여겨 봐 오신것이 있으시면 주문하십시오. 30% 할인 가격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고복자 효사 배상

육임나라 주식회사 www.yukimnara.co.kr | 한국육임학회 www.tatotemple.net | 역망 www.cfi.kr

주문전화 02) 738-8680 / 8683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301-778137 육임나라(주) 서울 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7길 33 육임컨텐츠개발전문 육임나라 주식회사

“불교는 마음이 고요해 지는 종교라 좋아요”

불교여성개발원, 고봉중고등학교 종교수련회서 불교프로그램 진행

“선생님 제 얼굴은 어떤 거 같습니꺼? 인상이 좋아 보입니꺼?”

1월 12일 경기도 의왕시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 불교실이 시끌벅적 거렸다. 현재 대학 졸업을 앞둔 이윤선(고려대 · 27)씨가 ‘얼굴인상과 인성’에 대해 강연을 하자 소년원 학생들은 서로 손을 들며 질문을 쏟아내기 바빴다.

“눈썹이 요래 생기면 별로 안 좋은 거지예?”

“선생님은 얼굴이 와 그렇게 생겼습니꺼?”

이윤선 씨의 강의가 시작된 지 30분 남짓 되자, 학생들은 슬슬 강의가 지겨워 졌는지 옆 친구의 눈썹을 가리키며 장난을 치는가 하면, 이 씨의 얼굴을 은근슬쩍 놀려대기도 했다. 이 씨는 그런 학생들이 마냥 귀여운 듯 강연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대화에도 즐겁게 강의를 이어갔다.

아직 학생 신분인 이윤선 씨가 소년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게 된 계기는 고봉중고등학교에서 1월 10~13일 겨울방학기간 동안 실시하는 겨울종교 수련회 때문이다.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던 이 씨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다 사람의 인상에 대해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불교에서도 사람이 마음과 행동가짐을 바르게 하면 얼굴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학생들은 부처님 가르침보다는 이윤선 씨와의 대화에 더 즐거워하는 듯 보였다. 평소 외부인을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윤선 씨와의 만남은 특별할 터.

모든 학생들이 이윤선 씨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아니었지만, 더러는 이 씨에게 평소 궁금했던 질문들을 적극적으로 물어오는 학생도 있었다. 평소 여대생과의 대화를 꿈꿨다던 학생들은 강의가 끝나고 간식을 먹으면서, 궁금했던 대학생활과 진로 등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김형진(가명) 군은 “밖에서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뛰어 노는 것도 재미있지만, 이번 시간도 나름대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대학생활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윤선 씨는 “생각보다 아이들이 친근하게 잘 대해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아이들을 직접 만나보니 정말 순수하다고 느꼈다”며 “앞으로 1:1로 대화할 수 있는 멘토링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과 꾸준히 만남을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뜻을 밝혔다.

고봉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종교 수련회는 학생들이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중 원하는 종교를 택일해 다양한 종교프로그램을 체험할 수가 있다. 이번 종교 수련회에서 불교실에는 25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학교 정원의 약 10% 정도다.

타종교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숫자이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인원이 적어서 더 좋다”고 기특한 대답을 한다. 박형식(가명) 군은 “불교실에 오면 조용하고 쉰다는 느낌이 들어 좋다.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며 “가끔 스님들이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면 살아가는 데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고봉중고등학교는 남자 청소년들만 모여 있는 곳이지만, 불교실은 학생들이 만든 연꽃등과 풍선 등으로 나름대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다. 학생들은 서툰 솜씨로 벽 이곳저곳에 형형색색의 풍선들을 붙여 놓았다.

어떤 학생은 빨간 풍선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자신의 염원을 담아 부처님 품안에 가져다 놓기도 했다. 그동안 간직했던 자신의 염원을 풍선이 터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써내려간 글씨가 눈길을 끌었다. 풍선에는 “성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족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세요”라고 적혀있었다.

사회문제 일으킨 청소년들에
따뜻한 부처님 가르침 절실
타종교 봉사자 수 많은데
‘불교실’은 찾는 이 드물어

2시간여 의 만남이 지나고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학생들은 이윤선 씨와의 헤어짐을 못내 아쉬워 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한 학생이 강의가 끝날 시간이 되자 입을 열었다. “선생님, 다음에 오시면 아마 저는 없을 겁니다. 저는 다음 달에 출원하게 됐습니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연 내내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다른 학생들도 이윤선 씨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다. 이윤선 씨는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가버려서 아쉽다”며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오고 싶다”고 말했다.

글=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1월 12일 의왕 고봉중고 불교실에서 열린 종교수련회 모습. 학생들이 이계경 이사를 따라 합장을 하고 있다.


고봉중고 불교실에는 학생들이 꾸민 풍선이 연등과 함께 장엄돼 있다.


학생들에게 강의 중인 영 108인 이윤선 씨. 이날 인기가 좋았다.


고봉중고 불교실 학생들이 간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

청소년 교정교화에 불자님들 뜻 모아주세요

이계경 불교여성개발원 교정교화센터 이사



“불자자원봉사자 적어 안타까워”

이계경 불교여성개발원 교정교화센터 이사는 이번 수련회의 숨은 공신이다.

이계경 이사는 4일간 진행된 수련회 기간 동안 불교반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들을 마련해 주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번 이윤선 씨의 강연 역시 이계경 이사의 작품이다. 이계경 이사는 “학생들은 젊은 강사를 더 선호해 젊은 불자들을 멘토로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전문 강사진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이계경 이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자녀의 친구들까지 참여시켰다. 실제 수련회 첫째 날에는 서울대 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조헌 · 문지영 씨가 학생들에게 디자인 개념과 실습을 강의하기도 했다.

또 김승목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의 미술치료 강연을 비롯해 불자 멘토들에 의해 탁구 배구 축구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2011년 2월부터 고봉중고등학교와 인연을 맺고 자원봉사활동을 펼쳐온 이계경 이사는 매달 첫째주 토요일 마다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 이계경 이사는 “아이들을 보고 가면 금방 또 보고 싶어져 매달 학교를 방문하게 된다. 더 많은 것을 학생들에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불교실에 참가한 학생 수가 저조한 만큼, 심각한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부족이다. 이날 불교실 강연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이계경 불교여성개발원 교정교화센터 이사와 이윤선 씨 단 둘뿐이었다. 수십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타종교와 비교할 때 초라한 수치이다.

최근 고봉중고등학교가 KBS 남자의 자격 ‘청춘합창단’편에 소개되면서, 불교계에서도 관심을 갖는 이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1월 7일에는 월정사 단기출가 19기생들이 고봉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자장면을 보시하기도 했다.

이 이사는 “한창 먹성이 좋은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먹을 것 하나라도 더 사다주고 싶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잘 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2월 18일부터 고봉중고등학교에서 ‘멘토링 교실’이 열린다. 많은 불자님들이 참여해 학생들에게 부처님 법을 통한 깨달음을 전파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젊은 층 포교 확대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느꼈다”며 “젊은층의 포교 확대를 위해서라도 청소년의 교정교화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빙의(귀신병)신병 · 퇴마 천도재 전문도량



우울증,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증가,
약물게임중독, 전생체험

- 교육생수시모집 -
최면술, 퇴마술, 기공술, 자극요법술

한국빙의 · 퇴마 · 최면연합회본부
한국근본불교조계종총무원 / 송림사 주지 현오 합장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9-13번지 상담전화 02)357-4554 / 010-5656-3915
NAVER DAUM 에서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우리 시대 빛나는 새 여성 불자 108인

불교여성개발원 제5차 발표
탤런트 서우림 · 조양자 등 선정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이 제5차 여성불자 108인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여성불자 108인은 김인순 매일유업 명예회장 신영희 국악인 이익선 아나운선 탤런트 서우림 · 조양자 가수 우순실 · 웅산 김혜성 · 조윤선 국회의원 등이다. 이들은 경제 교육연구 보건의료 언론출판 정치 교계단체 자원봉사 포교신행 문화예술 사회단체 사회복지 연예 분야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여성 불자의 위상제고와 전문 인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03년부터 격년제로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전문여성 108인을 선정해 왔다.

이번 여성불자 108인 선정에는 김애주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선정위원장) 포교부장 송묵 스님 불교여성개발원 고문 일법스님 손안식 중앙신도회 상임부회장 이인자 승만경연구회장 김인숙 여성불자 108인회장 임완숙 교사불자연합회 명예회장 신명 국회의원 황남수 前 봉은사 신도회장 남혜정 자행회 이사 남상민 한국예절문화원 원장 노숙령 前 중앙대 교수 정진희 정진희 꽃꽂이연구회 회장 등이 선정위원으로 참여했다.


서우림


신영희


웅산


이익선

선정위원장을 맡은 김애주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여성불자 108인들은 불교 여성지도자들의 교류증진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을 마련해 여성불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서로 돕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1월 27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5차 여성불자 108인 선정기념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제5차 108인 명단

번호	분야	이름	소속/직위	번호	분야	이름	소속/직위
1	경제	권화순	금수사(귀금속업) 대표	56	사회단체	김문자	(有)景華産業 대표이사
2	경제	김순덕	국민은행 매봉역지점 지점장	57	사회단체	박영자	포천향교 「전례위원회」 위원
3	경제	김인순	매일유업㈜ 명예회장	58	사회단체	옥복연	젠더연구소 소장
4	경제	김지애	한국은행 리크관리팀 과장	59	사회단체	우순기	MBC기적의 도서관 운영위원
5	경제	나경민	제일테크노스 부사장	60	사회단체	이영근	한국미래사회여성연합회 회장
6	경제	노혜명	(주)KDC하우징. 대표이사				
7	경제	여연숙	유연 대표	61	사회단체	임순덕	NGO자비를나르는수레꾼 재무
8	경제	유정임	풍미식품 / 대표				
9	경제	이명희	디자인 추련 대표	62	사회복지	김정숙	피터팬어린이집 원장
10	경제	이숙희	두레'인사동전통한식,	63	사회복지	박경자	한국아동정소년그룹홈 협의회 서울지부장
11	경제	전미숙	신성건설㈜ 대표이사				
12	경제	정영미	(주)코치나테크놀리지 대표이사	64	사회복지	조규란	구립 상림마을 어린이집 원장
13	경제	홍연희	감로당대표	65	언론출판	김경숙	도서출판 서이원 대표
14	교계단체	강미중	보문회회장	66	언론출판	박선미	번역가
15	교계단체	김성림	중앙신도회수석부회장	67	언론출판	이경숙	한국불교신문 편집국장
16	교계단체	김완숙	광주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사무국장	68	언론출판	이익선	아나운서
				69	언론출판	장수연	(재) 불교방송 차장 (아나운서)
17	교계단체	서광구	한국불교연구원 이사				
18	교육연구	강경숙	법화학 천태학 운영이사	70	연예	서우림	탤런트
19	교육연구	김선숙	마음의 과학연구소 소장, 동덕여대 겸임교수	71	연예	우순실	가수
				72	연예	웅 산	가수
20	교육연구	김영순	동국대 전 화학과 교수	73	연예	조양자	탤런트
21	교육연구	김영욱	한국만다라미술심리 연구원 원장	74	자원봉사	박용금	대전,충남 지역단 사무국 간사
22	교육연구	김옥희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신행부장	75	자원봉사	왕정임	자비를나르는수레꾼, 종로노인복지관 봉사단장
23	교육연구	김은희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강사	76	정치행정	김경선	청와대/국정과제비서관실 /행정관
24	교육연구	김인경	서울여자대학교 불문과 강사	77	정치행정	김윤숙	변호사
				78	정치행정	김혜성	국회의원(민주당)
25	교육연구	남승희	명지대학 교수	79	정치행정	조윤선	국회의원(한나라당)
26	교육연구	동은미	다선초등학교 교사	80	정치행정	황순덕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과 (행정사무관)
27	교육연구	류인숙	봉영여자중학교교장				
28	교육연구	박지선	용인대학교 문화재학과 교수	81	정치행정	황인자	자유선진당 최고의원
				82	포교신행	강문순	부석사 신도회 총무
29	교육연구	성승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83	포교신행	강석희	포교사, 용인시장 부인
				84	포교신행	김경자	선진통일연합강서구 상임대표
30	교육연구	원혜영	대진대 철학과 초빙교수				
31	교육연구	윤영단	서울 경인교사불자회 부회장	85	포교신행	김상애	동국대학교 과장
				86	포교신행	김지영	포교사
32	교육연구	진복선	성균관대학교 인문학부 강사	87	포교신행	김진여심	대정해피써비스(주) 이사
				88	포교신행	노인자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 사무국장
33	문화예술	강선자	Won Art 대표				
34	문화예술	강영화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겸임교수	89	포교신행	문명하	조계종국제포교사회
				90	포교신행	박경숙	성불사 벽담장학회 사무총장
35	문화예술	김외자	서예가, 문인화가				
36	문화예술	문윤정	수필가	91	포교신행	박순옥	(전)봉은사 신도회 부회장
37	문화예술	박종덕	Space 해인스튜디오 소장	92	포교신행	서윤숙	시적사 사찰운영부위원장
38	문화예술	백현순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예절, 다도지도자	93	포교신행	양경윤	승만경연구회 운영위원
39	문화예술	석진숙	한국요가문화협회 상임이사	94	포교신행	양숙자	울산불교여성회장
				95	포교신행	이경자	(현)봉은사신도회 사무총장
40	문화예술	신영희	국악인 명창				
41	문화예술	양혜경	은빛 두드림 난타팀 리더	96	포교신행	이경자	봉은사신도회 부회장
42	문화예술	연정숙	안국선원합창단 지휘자	97	포교신행	이복자	아름다운가게에 1억 희사
43	문화예술	유미희	화가	98	포교신행	이수경	한국불교연구원, 서울구도회, 편집부회장
44	문화예술	윤성희	한국요가문화협회이사, 요가 강사	99	포교신행	이영숙	마산함마좌선원운영
45	문화예술	이옥희	한국여성문학인회 회장	100	포교신행	이정자	조계종 포교사단 전문포교사
46	문화예술	이행란	상도선원합창단 지휘자				
47	문화예술	임주연	주연 꽃 예술 연합회 회장	101	포교신행	이현숙	(전)봉은사 신도회 사무총장
48	문화예술	천경희	도예가(문경요)				
49	문화예술	최명숙	장애인들의 모임 '보리수 아래' 회장	102	포교신행	전순남	월봉사합창단장
				103	포교신행	조연홍	전 포교사단 부단장
50	문화예술	하수자	수련꽃꽂이중앙회회장	104	포교신행	최경숙	봉은사전각연등장
51	문화예술	황선화	한국미술협회 회원(화가)	105	포교신행	하진희	중국 천진 불광사 설립
52	문화예술	황영선	L.M.B singers 대표	106	포교신행	홍성란	대한불교조계종 인천,경기지역단 통일2팀(팀장)
53	문화예술	박원자	작가				
54	보건의료	김윤덕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107	포교신행	황영옥	토니'유럽올골수집가
				108	포교신행	황인보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단 포교사
55	보건의료	채현숙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위드아시아는 1워 6~11일 캄보디아 '스터디 투어' 중 뿌레이끄랑마을에서 공공 화장실 준공식을 가졌다.

위드아시아 "우리는 하나"

회원 및 시민과 '스터디 투어'
캄보디아 곳곳서 봉사 펼쳐

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가 해외 구호사업현장을 탐방하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교류하며 생활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스터디투어를 1월 6~ 11일 실시했다.

이번 스터디 투어에는 위드아시아 회원과 일반 시민 등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캄보디아 뿌레이벵주 뿌레이끄랑 마을과 끄로웃 마을에서 진행됐다.

위드아시아는 스터디투어 기간 동안 뿌레이끄랑 어린이 공부방과 끄로웃 어린이 공부방에 기초의약품, 학용품, 담요, 축구공, 빵 등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뿌레이끄랑 어린이 공부방 어린이 60명에게 미술을 가르쳤다. 뿌레이끄랑 어린이 공부방의 어린이들은 위드아시아 식구들에게 캄보디아 전통 무용인 압살라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위드아시아는 또 뿌레이끄랑마을 공동화장실 공사현장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한 뒤, '한마을 공동화장실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에서 위드아시아 이사장 지원 스님은 "캄보디아 주민들의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각종 수인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모습을 보고 화장실 짓기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앞으로도 캄보디아 마을의 열악한 위생 환경개선을 위해 화장실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위드아시아는 2012년 상반기까지 108개소의 화장실 건립을 목표로 25개의 화장실을 건립했다. 현재 2개의 어린이 공부방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린이 공부방을 더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베트남에 '복지 한류' 훈풍 분다

연꽃마을, "국제연꽃마을'로 명칭 변경…해외 장학사업 등 진행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이 국제연꽃마을(International Lotus Village)이라는 이름으로 베트남 중앙지역 쾅남성 탐키시에 '한국형 사회복지 모델'로 복지교육타운을 조성한다.

연꽃마을은 구랍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정관개정을 통해 국제연꽃마을로 명칭을 변경하고 목적 사업으로 ▷베트남 쾅남성 탐키시 사회복지 관련시설 지원사업 ▷베트남 사회복지관련 인재양성 지원 사업 ▷베트남 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을 최종 승인 받았다.

연꽃마을은 2011년 4월 베트남 쾅남성과 탐키시의 간부들을 한국에 초청해 기본 협약식(MOU)을 체결한 후 7월 베트남 현지에서 탐키시장으로부터 토지 2만 1000여 평(7만여 ㎡)을 50년간 무상으로 임대받는 조인식을 가졌다.

그러나 기존 연꽃마을 법인으로는 해외 사업까지 담당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예상됐다. 그러다 지난해 8월부터


베트남 쾅남성에 조성될 국제연꽃마을 조감도

베트남 사업을 전문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인을 준비한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국제연꽃마을은 2012년부터 후원회원 확보와 후원기업을 결연해 베트남 쾅남성 현지에 보육원 장애인시설 세종학당 직업훈련원 등을 건립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연꽃마을은 동남아 국가에 복지시설 운영 체계와 운영방향을 전수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교문화사업단, 외국인 상시 운영 사찰 협약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이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2012년 외국인 상시 운영 사찰' 협약식을 1월 10일 진행했다.

이와 함께 15개 외국인 상시운영을 사찰의 운영자 및 실무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1월 10~11일 제1차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 해 118개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중 사업발표회와 외국어 능력 평가 등을 통해 15개 외국인 상시운영 사찰을 선정했다. 이번 1차 교육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 〈템플스테이 영문 용어 표준화를 위한 지침서〉를 발행해 사찰 관광업체, 여행사, 사찰, 불교단체 등에 배포되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www.templestay.com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2012학년도 정규 4년제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전통문화학부 신입생 모집

동양학전공 (명리풍수) 학생 모집

글로벌사이버대학교에 전통문화학부 동양학전공 4년제 정규 학사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명리학과 풍수학을 비롯한 동양의 예측학은 심오한 우주자연의 이치를 탐구하고, 인간의 선천성을 이해하여 자아실현과 삶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학문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어 빛나는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이를 한층 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하여 글로벌사이버대학에 4년제 정규 대학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전공특징 및 미래전망
동양학전공은 명리상담사, 명리학교육강사, 선천적성상담사(AAT), 풍수설계사, 풍수학교육강사, 작명감정사, 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브레인트레이너 등의 자격증 과정을 중심으로 실무활용과 창업이 가능하도록 이론50%, 실기50% 비율로 과목을 이수하여 정규 학사학위와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수업연한 단축으로 3년 만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학위 명칭 : 동양학 학사)

– 졸업 후 진로 :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진학, 선천적성상담사, 명리풍수상담사, 심리상담사, 학생 진로상담, 기업투자전략상담, 기업체 인사관리, 건축설계, 상점입지선정 및 개조, 풍수클리닉

최대의 장학금 혜택
2012년 입학생 모두에게 4년간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 (한 학기수업료 88만원)

교수진 소개
박영창 교수 (교육학박사, 고전명리서 자평진전평주 역자, 소설 녹정기, 천룡팔부, 소오강호 역자, 국립공주대학교 대학원 역리학과 석사과정 외래교수 역임, 동방대학원 미래예측학과 학과장 역임)
김기승 교수 (교육학박사, 국제문화대학원 선천적성상담교육전공 주임교수,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동양철학과 겸임교수 역임)
박상만 교수 (국문학박사, 동방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풍수학 담당 특임교수 역임, 동국대학교 전산원 학점은행제 생활풍수 교수)
외 다수의 전공교수진 강의함.

교육과목

1학년	명리학총론, 명리학설사, 맹파명리학, 격국용신론, 선천적성상담이론, 풍수학총론, 풍수학설사, 육효학총론, 주역입문
2학년	명리궁합론, 명리직업적성론, 선천적성상담실습, 형기풍수총론, 이기풍수총론, 현공풍수론, 부동산풍수론, 양택풍수론, 육임학총론, 기문둔갑총론, 교양한문
3학년	명리육친통변론, 명리재물운예측, 선천지능연구, 명리포태법, 명리십이신살론, 작명학총론, 명리적천수, 건축풍수, 구성기학
4학년	명리상담실습, 명리내정법, 고급선천적성상담실기, 철판신수연구, 현공양택실습, 점포풍수론, 관상학총론, 택일실습

수월성교육
등하교를 하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시간이 날 때 동영상 강의 수업을 들으면 되기 때문에 공직자,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등 누구나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고 정규대학교 졸업장과 함께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입학자격 및 안내
학 력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기간 2012년 1월 17일(화) ~ 2012년 1월 26일(목)
원서접수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입학홈페이지 http://go.global.ac.kr
입학문의 1577-1786 동양학전공담당자 041-529-2733
*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양학전공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사이버대학교 GLOBAL CYBER UNIVERSITY

동방불교대학 2012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Ⅰ. 사정원칙 및 유의사항
1.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는 본교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려자격이 주어지며 졸업할 경우 선덕법계를 품수한다.
2. 본교 졸업과 함께 선덕법계를 득한 자가 다시 입학하여 졸업할 경우에는 중덕법계를 품수한다.
3. 불교학과_승가학과_역경학과는 정규반과 통신반을 선택지원할 수 있으며, 통신반은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습한다.
4. 범패학과_불교미술학과_역경학과 신입생은 매년 학년입학을 원칙으로 한다.
5. 불교미술학과 연구과정은 당해학과 졸업생에 한하여 입학이 가능하다.
6.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 · 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가능하다. 단, 역경학과는 출가자의 경우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자 교육이수의무를 충족하거나 그에 준하는 기성승려 또는 본교가 정한 소정의 수학능력을 갖춘 자, 재가자는 전문대 졸업 이상이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득한 자 또는 본교가 정한 소정의 수학능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
7.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불교전문교육기관으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Ⅱ. 모집인원 및 편제

학 과	모집인원		편 제	비 고
불교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 통신반
승가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 통신반
역경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 통신반
범패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불교미술학과	본과	00명	3년제	정규반
	연구과정	00명	1년제 / 2년제	정규반

Ⅲ. 전형일정

학 과	날 짜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11. 12. 26(월) ~2012. 2. 20(월) 17:00	• 본교 교학처 • 인터넷 교부 · 접수 www.dongbang.org
서류심사 결과통지	2012. 2. 20(월) 18:00	•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 개별통지
입학전형 (필기_실기_면접)	2012. 2. 21(화) 10:00 ~ 16:00	• 본교 강당 및 강의실
합격자 발표	2012. 2. 21(화) 17:00	•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 개별통지

Ⅳ.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자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2.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3.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 단, 역경학과는 출가자의 경우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자 교육이수의무를 충족하거나 그에 준하는 기성승려 또는 본교가 정한 소정의 수학능력을 갖춘 자, 재가자는 전문대 졸업 이상이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득한 자 또는 본교가 정한 소정의 수학능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

Ⅴ. 접수서류 및 접수방법

학 과	제출서류	제출방법
공 통	1. 입학원서(소정서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5. 승적증명서 1부(해당자) 6. 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7. 사진: 반명함판 3매, 명함판 2매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1. 본교 교학처 직접 방문 및 우편 발송 또는 인터넷 접수 가능 2. 인터넷 원서교부 및 접수한 경우 원서를 출력해 사진부착 후 여타 제출서류와 함께 본교 교학처로 등기발송 3. 접수처 : 120-150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49-1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Ⅵ. 전형료
1. 불교학과_승가학과_역경학과 : 50,000원
2. 범패학과_불교미술학과 : 60,000원

※ 본교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경우 포교사자격 및 법계 품수와 재학 중 각종 장학제도 등의 특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홈페이지 www.dongbang.org >학사행정>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www.dongbang.org
120-150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49-1
TEL:(02)745-2030~2 FAX:(02)744-3461

불교문헌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시동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국불교융합학과 · 불교한문아카데미 개설

불교원전 문헌 강독과 번역에 기초한 한국불교 특화 교육과정이 마련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인환)은 1월 10일 불교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ABC: Archives of Buddhist Culture, 이하 ABC) 사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불교융합학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6년 과정의 불교한문아카데미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ABC사업은 한국불교문헌을 디지털라이징 하는 사업으로 고려시대 최고 기술이던 목판 인쇄술을 이용한 대장경 판각에 이은 21세기형 대장경 불사이다.

불교학술원장 인환 스님은 "15년에 이르는 장기 프로젝트인 ABC사업이 원만하게 회향하려면 인재양성이 중요하다. ABC사업 등 불교문헌의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불교융합학과와 불교한문아카데미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욱 불교문화연구원장은 "HK사업을 진행하는 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동국대에 관련 독자학과가 개설됐다"고 소개했다.

동국대 일반대학원에 개설되는 한국불교융합학과는 대학연구기관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한국불교학 융합 전문과정이다. 학과에서는 불교원전 강독 · 번역에 기초한 한국불교의 특화된 교육과정으로서 연구 · 교육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학제적 융합교과를 운영해 해외 대학과의 국제교류와 제도적 공조를 통한 글로벌 연구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동국대의 한국불교융합학과 개설은 학과이기주의를 타파한 유사학과간 대승적 화합의 결과라는 의미도 있다. 교육정책상 학교 전체 정원이 제한된 현실에서 한국불교학과융합학과 개설에는 불교대학 학과 · 교수간 양보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불교융합학과는 개설 첫 학기인 2012년 전기에 불교한문번역학과 불교문헌해석학 2개 전공 석사과정생 00명을 모집한다.

한국불교융합학과에서는 ①불교문헌학 · 강독교과 ②문헌기반의 한국불교 특성화 교과 ③글로컬(글로벌+로컬) 융합 교과별 수업이 진행된다.

진학생들은 분과학문의 장벽을 넘는 다양한 분야의 학제적 융합과 통섭을 통해 한국불교와 동아시아 불교를 잇는 전문연구자로 배출된다.

불교한문아카데미는 현장 법사와 운허스님의 맥을 잇는 한문불전 번역자 양성을 목표로 개설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문화연구원이 지난해 여름 개최한 해외저명 학자 초청 특강에서 로버트 버스웰 교수의 강의 모습. 불교학술원 한국불교융합학과 개설로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인재 양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 사업 연계
불교원전강독 · 번역 특화과정 개설
한국고전번역원 등 관련기관 공조
HK사업 지정학교로는 동국대 최초

한국불교융합학과-학문 통섭 실현
한국불교문화 전문 인력 양성
불교한문아카데미-불전 번역 교육
경전 등 3개반 · 총 6년 과정


1993년 8월 역경 연수생 사진. 불교한문아카데미는 이들을 잇는 역경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김종욱 원장은 "불교한문아카데미는 불교가 단지 불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 · 한국학으로서 본래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지향한다"며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능력 있는 강사진이 담당해 교육 효과를 증대시키고 학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겠다"고 말했다.

불교한문아카데미는 경전 · 논서 · 사서 등 3개반을 기본으로, 기본 · 심화 · 전문각 2년의 6년 과정으로 운영된다. 매 학기 야간 강좌(18시 30분~21시 30분)로 3과목을 이수하고 기본 · 심화 과정에서는 선택 1과목 추가 수강이 가능하다. 매년 선발과정을 거쳐 20명 안팎의 정규수강생을 선발한다. 이수과정별로 불교학술원장 명의의 수료증도 발급된다.

프로그램 운영에는 한국고전번역원(원장 이동환)이 참여해 강사 등을 파견한다. 이를 위해 불교학술원과 한국고전번역원은 구랍 20일 고전번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학기 강사진으로는 성재헌 한국불교전서역주위원, 양진석 서울대 규장각 학예연구관, 박해당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상현 고전번역교육원 수석연구위원, 공근식 한국고전번역원 문집번역실장이 참여한다.

한편, 한국불교융합학과 학생은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인터뷰 및 추천서 발급은 1월 31일까지, 원서 접수는 25~31일까지이다. 합격자 발표는 2월 7일 예정이다.

불교한문아카데미 기본과정 제1기 연수생은 1월 30일~2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전형은 한문독해 · 면접을 거쳐 20명을 선발한다. (02)6713-5163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현대 한국불교학 연구 집대성

원각불교사상硏, '불학논총' 발간

현대 한국불교학자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학술논문집이 출간됐다.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 권기종)은 최근 한국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원각(1911~1974) 대조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국내외 저명학자 61명의 논문을 수록한 〈불학논총〉을 펴냈다. 책은 800여 쪽 분량 2권이 한질로 구성됐다.

〈불학논총〉 제1권은 '사상과 역사'를 주제로 논문이 편집됐다.

책에는 ▷보조사상의 특성과 그 현대적 의의(강건기) ▷원효의 미륵사상(강동균) ▷보운 의통의 구법과 전법(고영섭) ▷다양성과 유연성의 불교(권오민) ▷〈화엄경〉의 성불론 재고(권탄준) ▷한중일 삼국의 근대화 좌절과 성공의 사상적 배경에 관한 비교 연구(김승일) ▷신형(神逈)의 〈천태법화소서〉를 살펴봄(김영태) ▷고려전기 유불의 대비를 통한 시대성의 탐색(김용태) ▷신라와 일본 헤이안시대 불교사상의 교류(김천학) ▷〈근본중송〉에서 팔불연기가 비판하는 희론들(남수영) ▷서울 보타사 고려 마애존상(문명대) ▷〈석가여래행적송〉에 보이는 사실단(四悉檀)에 대한 연구(박소영) ▷화쟁은 어떻게 가능한가(박태원) ▷원측의 '집수(執受)' 개념의 이해(안성두) ▷돈황사본 〈최묘승정경(最妙勝定經)〉에 관한 고찰(오지연) ▷인식의 전환(다르마끼르띠와 태고보우의 깨달음(우제선) ▷천태 지의의 불신관(佛身觀)에 대한 일고(원필성) ▷중 · 한 · 일 삼국의 법화삼매의 전승과 수행(이기운) ▷조선후기 불교사의 새로운 이해(이종수) ▷찬드라키르티의 〈입중론〉 제1환희지품 연구(이태승) ▷마하지관의 관심론(지창규) ▷〈법화경〉의 시교이희(示教利喜)와 그 현대적 모색(차차석) ▷원묘국사 요세의 백련결사를 통해 본 수행과 교화(채상식) ▷백제 후기 불교교학의 변천과 미륵사상의 성격(최연식) ▷〈유가사지론〉 '성문지' 산스크리트어 원전 연구(최종남) ▷한국의 마지막 왕사 · 국사 책봉과 의의(황인규) ▷자연의 불교적 관점(박경준) ▷당중기법화삼매고(칸다츠 치준) ▷천태종의 판교론(양쩡원) 등 29편의 논문을 담았다.

'믿음과 수행'을 주제로 편집된 제2권에는 ▷십선계의 고찰(고우익) ▷상월원각대조사 법어의 체계에 관한 연구(이광도) ▷미래세계와 밀교(김영덕) ▷중국 근대 정토신앙의 세 가지 경향과 그 시대성(김영진) ▷천태대사와 상월조사의 교화사상 및 방법 비교 연구(김응철) ▷불교의 죽음이해와 그 극복(김재성) ▷조계종의 간화선 세계화를 위한 캠페인에 관한 비판적 성찰(서명원) ▷현대 천태종에 있어서 신앙과 수행전통의 형성과 그 의미(석길암) ▷계율의 사상사적 함의(신성현) ▷불교명상치료의 연구 현황과 그 의의(안양규) ▷과학시대의 불교적 생명존중과 생태적 삶(우희종) ▷산치대탑의 불전 도상과 상징(유근자) ▷불교수행법의 사회화(윤원철) ▷공간의 개념을 통해 본 유비쿼터스의 불교적 함의(이재수) ▷붓다의 장례절차와 그 의미(이필원) ▷불교사회복지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혜숙) ▷진심식망(眞心息忘)의 요가 철학적 성격(정승석) ▷성인(聖人)의 성취과정에 대한 연구(정준영) ▷붓다 당시의 재가자의 실천수행 사상(조준호) ▷관음주송의 수행 원리(최기표) ▷불탑신앙 전개에 관한 연구(한지연) ▷불교윤리의 미래지향적 정립방향 모색(허남결) ▷저출산 사회의 영유아 보육정책 분석과 개선과제(고수현) ▷법문사, 중국 마하보리승가람(천징푸) ▷신라의 오대산 신앙(아오잉) ▷겐신과 〈심지관경〉(미치모토 텟신) ▷선문학의 언어와 논리(스에키 후미히코) ▷일본에 있어서 일반인의 깨달음 체험과 그 활동(호리사와 소몬) ▷붓다는 어떻게 가르쳤는가(아난다 W.P. 구루지) ▷상월대조사: 한국에서 관세음보살의 화신(케네스 리)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와 불교에 기반을 둔 범아시아주의 부활(판카즈 나렌드라 모한) ▷신라시대의 의식 불교(리차드 맥브라이드) 등 32편의 논문 32편을 실었다.



'사상과 역사' · ' 믿음과 수행' 나눠
숲 2권에 61편 논문 수록

권기종 원각불교사상연구원장은 "이번 논총 발간은 현재 한국불교학의 학문적 성과를 집대성코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학문적 성과의 집대성은 우리 시대는 물론 미래 시대의 불교학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원각불교사상연구원은 2011년 11월 12~13일 금강대에서 열렸던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정리해 〈미래세계와 불교〉를 펴냈다. (02)3460-5226

조동섭 기자

한국불교학회·불교학硏 공동워크숍

2월 13일 동국대 국제선센터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와 불교학연구회(회장 박경준)는 2월 13일 오후 1시 동국대 국제선센터(대각전)에서 '불교수행과 요가의 만남'을 주제로 동계 불교학 공동워크숍을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가 '불교수행, 건강, 요가' 등을 주제발표한다. 02)2260-3835

조동섭 기자

금강대 불문연, 범어 전문강좌 개설

2월 13~24일 '무료' 단기 집중 코스

초기불교학을 위한 필수고전어인 범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열린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는 2월13~24일 금강대에서 제2회 산스크리트어 전문강좌를 무료로 개설한다.

강의는 수강생 수준에 맞춰 초 · 중 · 고급반으로 나눠 금강대 HK연구교수(초급반), 김성철 HK교수(중급반), 박창환 교수(고급반)가 강의한다. 클래스별로 '데바바니프라베쉬카'(초급반), '입보리행론'(중급반), '구사론'(고급반) 등이 교재로 사용된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김천학 소장은 "단기간 집중 강좌를 통해 초급~고급에 이르는 범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후 팔리어, 티베트어, 한문 등 불교 4대 고전어에 대한 집중강좌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신청은 2월 6일까지. 041)731-3628

조동섭 기자

한국불교사硏 '문·사·철' 겨울호 출간

한국불교사연구소(공동편집주간 권오민 · 고영섭)는 최근 〈문학/사학/철학〉 겨울호를 출간했다.

이번 호에는 고영섭 공동편집주간의 권두언과 ▷티베트에 문명을 전파한 당나라 문성공주의 역사적 지위(구성희) ▷원효의 생애 재고찰(계미향) ▷ '일반성의 철학'과 포노로지를 위한 시론(박정진) ▷피터 하비의 불교윤리학(김인겸) 등이 실려 있다. (02)2260-3583

조동섭 기자

암환자를 위한 특별 메시지

천 의 선 도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만천하에 공개 하면서



저는 천의선도 창도자며 대체의학 연구가 삼봉 김영생 스님 입니다. 저는 13세부터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육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82세가 된 오늘까지도 인간은 나면서 가는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듯이 가는길은 없을까하는 상염중에 1977년 음력 1월 15일 육경신 정신수련중에 천신의 계시를 받고 너무나 황당무계한것 같지만 천신의 메세지이니 믿고 내 주변에 말기암 환자 몇분에게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복용시켰더니 3,4개월이 지나 몸이 편안하다 하기에 병원진찰을 받아보니 암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소문에 따라 저를 찾아온 암환자가 180여명이 넘는데 한사람도 죽지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전립선,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일주일에 1번씩 4,5차례 기를 넣어 드렸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3000여명이 넘는데 재발된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나는 한국의 민중의술을 검증받기 위해 미국 오하이오주 주지사님의 초청을 받고 1998년 7월초에 미국에가서 오하이오주 주립대학 병원에가서 담당의사들의 병증세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환자들에게 의료봉사 활동을 5일간 했는데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나온 환자가 오후에 공원 산책을 혼자서 하고 돌아왔다고 담당의사가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함성을 지르며 천의선도 치료법을 전수받았습니다.

7월 14일에는 오하요주 주지사님이 한국의 민중의술이 세계에 으뜸이라고 찬사를 하시며 감사패를 주셨고, 17일에는 콜럼버스 시장님이 명예시민장도 주셨습니다. 2011년 월드코리아에서 세계속의 한국인 자랑스런 민중의술 대체의학 부문 대상도 받았습니다 만은 제 나이가 82세, 나의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이세상에 전무후무한 천하제일의 천의(天醫) 하늘이 준 의술을 묻어두고 갈순없어 이 세상에 공개해서 한가정에 한사람씩 천하제일의 명의가 있다면 건강한 가정에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되어 일반에 공개하면서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을 분 기다립니다. 나의 안내문에 의심이 나거든 강동구 천호2동 333-45 전화 02-568-4955 대가연 통증의원 원장 의학박사 심요택 박사님을 만나 보십시오. 심박사님은 암 환자를 대체의학의 자연요법을 체험해 보시고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감탄하시며 시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일반인이 자기 가정을 돌보기 위해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는 분에게는 일체 전수비를 받지 않습니다.

책값 50만원에 필요하면 은용해기 35만원, 매선침 100개 내지 150개 구입하면 준비완료.

천하제일의 명의가 되는데 소요시간은 천의선도를 전수 받고 실습시간 육각수를 만드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환신 받는데 10분, 5시간이면 넉넉하고 암환자를 치료 하려면 육경신수련 60일에 하루씩 6회 참석 수련하시면 됩니다. (오방신장의 관습을 벗어나기 위해서 입니다.)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의선도를 전수받으십시요.

천의선도 태종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배래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연락전화 : 010 - 4933 - 4528

사할린 영구귀국 동포돕기 나눔의 손길

나누우리, 2년째 후원…정기총회서는 새 이사장 혜산 스님 선출

자비나눔 실천도량 나누우리(이사장 월운)는 1월 10일 천안 청당동 버들마을 휴먼시아 주공APT회관에서 사할린 영구귀국 동포돕기 자비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나누우리 이사장 월운 스님을 비롯한 30여 회원과 사할인 영구귀국 동포 50가구 100명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사장 월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 매우 반갑고 고맙다. 경기침체로 인해 지난 해 보다는 다소 부족한 지원품이지만 사할린 동포 여러분들의 살림에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나누우리가 사할린 영구귀국동포들에게 전달한 후원품은 백미 20kg 100포, 빵 100개 등이다. 이에 앞선 구랍 19일에는 나누우리와 태고종 충남교구가 공동으로 라면 50box와 생필품 50set를 전달했다.

이어 나누우리 회원들은 수년째 천안지역 52가구의 독거노인들에게 점심공양 배달봉사를 해 온 도광사(주지 지엄)를 찾아 독거노인들을 위한 백미 20kg 44포를 후원했다.

행사에 앞선 9일에는 나누우리 부이사장 혜산 스님과 국내담당이사 청공 스님 등 나누우리 충남지부 회원들이 천안 버들마을 장애인 돕기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서는 백미 20kg 10포와 생필품 등이 천안 버들마을 장애인 5가구에 전달됐다.

한편, 나누우리는 10일 천안 도광사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0년도 결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에서 세입결산액은 1억125만 세출결산액은 7922만원으로 결산 승인됐다.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은 7100만원이 의결됐다.

이어 2012년도 사업계획안 심의에서는 제2차 해외구호 지원사업 기획 · 시행에 관한 건, 국내 소외계층 연중지원 프로그램 개발건, 각 사찰별 나누우리 봉사단 결성의 건,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개발건, 회원배가운동 건 등이 심의 · 의결됐다.

또,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선출 토의에서는 이사장에 혜산 스님(태고종 충남교구 종무원장), 부이사장에 송월 스님, 감사에 법도 스님, 봉사단장에 법륜사 신도회장 이인선 불자를 선출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할린 영구귀국 동포들을 위한 후원품을 나르고 있는 나누우리 회원 스님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큰법당에서 열린 신년하례법회에 참석한 재가자들

"받기보다 주는 즐거움이 더 크다"

금산사 임진년 신년하례법회 봉행

금산사 본말사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임진년 새해를 맞아 보살행과 전북지역 불교 중흥을 다짐하는 신년하례법회를 1월 5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큰법당에서 열었다.

신년하례법회에는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과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보현사 주지 일원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들과 김백호 전라북도 불교신도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 송하진 전주시장을 비롯한 불자 300여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었다.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받는 사람의 행복보다 주는 사람의 행복의 가치가 훨씬 높으며 미래사회는 이타행의 시대가 도래 할 것이다"며 "베풀고 나눠주는 이타행의 실천을 통해 인류의 행복과 평화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정토세계가 구현될 수 있다"고 설했다.

스님은 또 "청소년 문제는 어른들의 잘못이 크다. 정치인들과 각급 기관장들은 원만한 정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신년사에서 "신도조직을 재점검해 가족 법회 활성화, 청소년 포교사업, 복지사업, 군포교 사업을 역점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밖에 "뇌묵처영 역사문화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년하례법회에서는 가람수호와 대사회복지활동, 종무행정 등에서 모범을 보인 남원 선원사(주지 운천)와 완주 안심사(주지 일연)가 우수사찰 표창을 받았다.

또 이수복(전주교도소 성불회) 강석춘(전북포교사단 사무국장) 정순례 (108순례단 부단장)불자가 포교대상을 수상했으며 정창자(금산사 마야회총무) 정정자(금산사 법등회 부회장) 김정례(서고사 신도회부회장) 소정순(서고사 지장회장) 불자가 봉사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정읍시민이라면 내장사 무료입장

내장산 무료입장 기념 걷기대회

2011년 정읍시민의 내장산 무료 입장을 결정한 정읍 내장사(주지 지선)가 이를 기념하는 걷기 대회를 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내장사와 정읍시, 정읍시 체육협의회와 불자들은 1월 7일 '내장산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내장사를 출발해 원적암~벽련암~일주문에 이르는 3.6㎞구간을 함께 걸으며 내장산의 빼어난 경관을 함께했다.

걷기대회에서는 정읍시립농악단의 흥겨운 농악공연과 시민대표의 '내장산 사랑 다짐 결의'와 내장사 주지 지선 스님의 개방 선언이 이어졌다.

기념식에서 내장사 지선 스님은 "내장산 정읍시민 무료개방을 계기로 시민 모두가 내장산을 지켜 세계 최고의 명산으로 가꾸어 나가는 한편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복원과 우화정 개축 등 대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 주민 내장산 무료 입장 허용에 따라 정읍에 주소지를 두거나 거주를 입증하는 시민은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풍 성수기로 많은 인파가 몰리는 10 · 11월은 제외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육군 논산훈련소 임진년 첫 수계법회 봉행

1월 8일, 2500 장병 '불자다운 삶' 다짐

육군 논산 훈련소 호국 연무사는 임진년 새해를 맞아 장병수계법회를 1월 8일 봉행했다.

군종교구와 동학사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남원 영선사 월공 스님과 제천 무암사 황도 스님에게 감사장이 전달됐다. 월공 스님은 30년 동안 육군 논산훈련소 장병들에게 계첩과 간식, 기념품을 후원한 불교어머니회(회장 김옥분)를 지원해 왔다.

스님은 불교어머니회가 수십년을 변함없이 논산 훈련소 법당을 후원하는 것을 보고 아무리 좋은 불사도 재정적 뒷받침 없이 오래가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불교어머니회를 지원해 왔다. 월공 스님은 영선사 내에 불교어머니회 지원을 위한 후원회를 조직하고 2008년부터 영선사 자체 포교기금과 매월 지장 철야기도에 동참한 불자들의 성금을 모아 불교어머니회를 지원해 왔다.

황도 스님도 불교어머니회를 꾸준히 후원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한편 2500여 장병들에게 삼귀의계와 오계를 설한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은 법어를 통해 "건강하고 원만하게 군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 늘 부처님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군생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이 월공 스님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곡사, 마을공동체 형성 '팔 걷었다'

귀농운동본부 등과 협약
사찰 임야와 농지 경작권 제공

예로부터 십승지의 하나로 불려온 공주 마곡사(주지 원혜)가 귀농인들과 손잡고 지역순환공동체 확산에 나섰다.

마곡사는 1월 3일 전국귀농운동본부(상임대표 정용수), 에너지생태건축협동조합 두레배움터(대표 박승옥)와 협약을 맺고 '십승지 소농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귀농인들은 3305785.12㎡(100만 평)규모의 마곡사 임야와 농지에서 가족소농 형태의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경작권은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는 땅을 사용할 수 없으며 협동조합 형태로 권리가 보장된다.

주거공간도 조합 출자를 통해 겨울철 난방비가 거의 들지 않는 생태순환형 흙집으로 공동농가주택을 짓고 살게 된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없고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다. 탈퇴하면 출자금 환금이 가능하다. 에너지생태건축학교를 통해 직접 배우면서 집을 짓는 과정에도 참여하게 된다.

귀농본부는 소농학교 운영을 비롯해 각종 농사 교육과 귀농자의 정착 지원 활동을 담당한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수행 · 복지 · 전법 · 포교도량 기반 확충 기대

복지재단, 불교회관 건립 추진
24교구종회, 예산안 심의 의결

조계종 제24교구 선운사(주지 법만)는 교구종회의원, 실국장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월 12일 법인 정기이사회와 교구종회를 개최하고 종무행정 계획을 확정했다.

같은 날, 선운사 종무소 세미나실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 복지재단'(이하 선운사 복지재단) 제1회 정기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정식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취득 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사회에서는 정관 승인 및 임원 명부 확정, 법인재산목록 등 복지재단 설립보고에 이어 2012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승려노후수행마을 운영규정안을 심의 · 확정했다. 또한 선운사 복지재단은 이사장인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을 포함한 19명의 이사를 확정했고 4300만원 상당의 토지(개별공시지가)와 1억9300만원의 현금 자산을 기본재산으로 현재 위탁운영중인 고창군 종합사회복지시설과 승려노후수행마을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고창군이 새로 조성계획중인 뉴타운 지역 내 아동복지타운과 불교회관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이 마무리되면 수행과 복지, 전법과 포교,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확충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교구종회서는 불사 수행 교육 문화 복지 생태환경 포교 지역사회와의 연대 등 세부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한불교가야법사대학 2012학년도 신(편)입생

법사 제9기생, 대법사 제8기생, 출가학승 제8기생 모집요강

본 교는 대한불교가야법사종 교육법 제58조에 의한 종단 종립대학으로서 대한불교가야법사종 기본교육기관입니다.

제9기 법사 과정 (출강통신) 2년 4학기
제8기 대법사 과정 (출강통신) 1년 2학기
제8기 출가학승 과정 (출강) 2년 4학기

●수업학과 : 불교학, 역경학, 실천불교학(포교사), 범음범패 의식학
●일 시 : 매달 3회 강의 (일요일 1시 ~ 4시까지, 3시간)

제 출 서 류
1. 입학원서(본교양식)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사진(증명) 3매
4. 동등자격소지사 특별 전형 입학
* 불교교육대학 제7기 과정모집 / 6개월 교재3권 입학원서

원서 접수 및 마감
• 2012년 1월 1일 ~ 2012년 2월 12일까지 • 면접일시 : 2012년 2월 13일 오후 1시

특 전
• 법사대학 졸업자에게는 포교사 자격증을 부여함.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시는 불자님, 그리고 어려운 수행속에서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정을 학승으로 공부하지 못한 스님께서는 특강하며 사암, 포교원 개설운영 과정으로 행정지원.
• 불교의식 교육원은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및 상주권공,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을 지도합니다.
• 불교교육대학 등록금 10만원. 법사, 대법사, 출가학승 등록금 1학기 50만원. 교재비 1학기 30만원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주소 : 경남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43-1번지 가야법사대학 불교의식교육원 총무원
전화 055)345-9393. 346-5115

대한불교가야법사종 금화사 가야법사대학 불교의식교육원 총무원장 석혜법

대한통일불교 조계종
종 도 모 집

종 정 벽 암

귀의 삼보하옵니다.
본 종단은 부처님의 불법을 널리 펼쳐 불국정토를 이루고자 하는 큰 서원으로 참된 교육을 통한 정법 포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불심을 모아 함께 정진하실 승려, 법사님을 널리 모십니다.

{ 개인사암의 자산과 관리는 일체 주지 권한이며, 총무원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

■ 입종서류 입종 등록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부,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도교육 종도 강원교육, 집체교육, 사미기본교육, 통신강의
(사미율의, 초발심자경문, 치문, 아함경, 방등경,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外 천수경, 반야경, 금강경오가해, 유식삼십송, 선문촬요, 정토삼부경, 원시불교, 부파불교, 불교계론, 기타 등등)

▣ 총본산 : 경남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444번지 자비선원 (구, 백운암)
▣ 전화 055)391-3014(선원장실), 3004.3024(종무소) 팩스 055)391-3016

‘영성’은 ‘불성’의 동의어, 사람의 보편적 성품

명상상담연구원 인경 스님의 〈수심결〉 특강 ①

불성과 영성

〈수심결(修心訣)〉은 고려시대 보조 국사의 저술이다. 제목처럼 마음 닦는 비결을 적은 어록을 명상상담연구원 교양대학원 원장 인경 스님의 특강이 마련됐다. 강의는 ‘불교에서는 영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체험을 하는가’를 주제로 1월 5일부터 8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명상상담연구원에서 열린다.

인경 스님은 “〈수심결〉은 마음 닦는 비결을 제시한 책으로 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공부하는 이들의 필독서였다. 강의에서는 대승불교에 기초한 간화선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관점에서 영성에 대한 상담이나 심리치료의 새로운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본지는 인경 스님의 특강을 8주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수심결(修心訣)〉은 ‘마음을 닦는 비결’이란 뜻이다. 팔공산 거조사에서 정혜결사를 시작한 보조 국사(1158~1210)는 40세가 되던 해(1197)에 지리산 상무주암으로 옮겨간다. 여기서 간화선을 창도한 〈대혜어록〉을 보고서 세 번째 마지막 깨달음을 얻었다. 〈수심결〉은 대혜선사의 어록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상무주암에서 저술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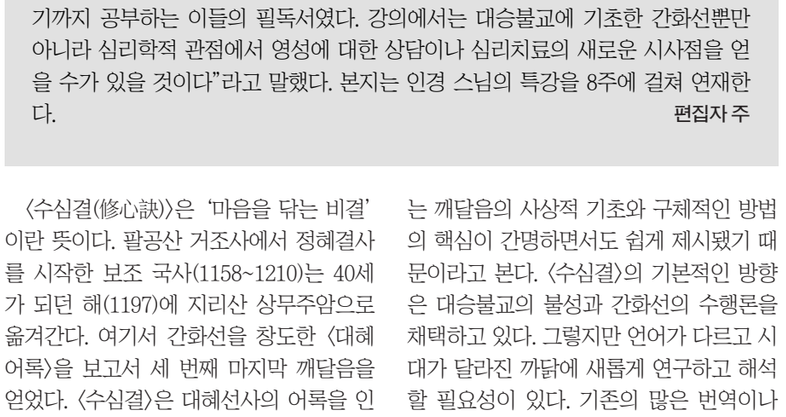
많은 어록이 출현했지만, 〈수심결〉은 현대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어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이나 일본에서 간행한 대장경에도 등재가 돼 있고, 많은 선각자들이 〈수심결〉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례가 보고됐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국내에서는 단일 저술 가운데 가장 많은 연구와 번역과 강의가 이뤄졌고, 대만에서도 역주작업을 통해 출간됐다. 뿐만 아니라 로버트 버스웰 교수에 의해서 美 하와이대에서 영어로 번역됐다. 명상에 기초한 스트레스 완화(MBSR)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존 카밧진(Jon Kabat-Zinn) 같은 심리학자들도 〈수심결〉을 인용하고 있다.

〈수심결〉의 어떤 점·무엇이 이런 역사적인 관심을 지속시켰을까? 필자가 보기에는 깨달음의 사상적 기초와 구체적인 방법의 핵심이 간명하면서도 쉽게 제시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수심결〉의 기본적인 방향은 대승불교의 불성과 간화선의 수행론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지만 언어가 다르고 시대가 달라진 까닭에 새롭게 연구하고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많은 번역이나 연구의 방향과 대동소이하다면, 여기서 특별하게 강론해야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전체적인 기조나 관점이 달라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필자는 〈수심결〉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설을 해야겠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하면 오랜 대승불교의 전통적 사상인 불성과 간화선이 보다 현실적인 담론이 되고, 오늘의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것이다.

1. 불교에서의 영성

〈수심결〉의 핵심된 사상은 불성이다. 이것은 〈수심결〉이 대승불교의 일반적인 맥락을 잘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불성, 곧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이점을 현대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 불성과 가장 가까운 용어는 ‘영성(sprituality)’이다. 오늘날 영성(靈性)이란 용어는 기독교에서 잘 사용하는데 반해 한국 불교계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참고로 일본 불교학계에서는 영성이란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물론 영성이란 낱말은 불교 경전이나 논서와 선어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는 영성을 불성과 동의어로 사용한다.


〈수심결〉 특강을 듣고 있는 수강생들. 강의는 1월 5일부터 8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열린다.

이를테면 〈대보적경(大寶積經)〉에서는 ‘여래께서 깨끗한 천안으로 관찰하시니, 일체의 무량한 불토에 모두가 영성(靈性)을 가지고 있음이라[一切無量佛土諸含靈性]’고 말한다. 여기에 따르면 모든 불토에서 영성은 불성과 동의어로서, 모든 생명체에게 갖춰진 보편적인 현상이다. 〈대보적경〉은 120권으로 당(唐) 시대(706~713)에 보리류지(菩提流志)에 의해서 한역됐다.

기독교에서 ‘영성’ 단어를 처음 사용한 기록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1441년경 사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불교에서의 ‘영성’ 사용이 상당히 빠른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영성’이 선어록에 사용된 경우는 북송대 영명연수(永明延壽; 904~975)가 지은 〈종경록(宗鏡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평등한 법성의 묘한 마음은 성문이나 연각과 보살 및 모든 부처에게 함께 갖춰져 있지만, 서로 다른 장소에 생하는 것은 이 영성(靈性)이 생각의 장소에 따라 윤회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생명체마다 영성을 함유하고 있지만, 사람마다 나타나는 정도가 다른 것은 생각 생각에 따라서 윤회하는 까닭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생명체는 모두 동일한 영성을 갖고 있지만 생각에 의해서 물들기 때문에 혹은 그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경험될 수가 있다는 말이다.

논서는 이통현 장자의 〈신화엄경론(新華嚴經論)〉에 나온다. “수행해 승진하고 점진적으로 그 지혜가 영성(靈性)에 통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영성이 수행에 의해서 그 결과로서 성취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명상수행의 궁극의 목표가 영성에 있음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면 불교에서 이해하는 영성은 사람마다 갖고 있는 보편적인 성품이지만,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생각 생각에 윤회하는 까닭이며, 명상수행이 본래 청정한 영성에 도달하는 좋은 접근방식이라는 것으로 정리가 된다. 불교에서는 ‘영성’은 ‘불성(佛性)’과 동의어로서, 법성(法性)·자성(自性)·본성(本性)과 함께 사용한다. 불성은 부처의 성품인 까닭이요, 법성은 모든 형상의 본질이며, 자성은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닌 스스로의 성품이고, 본성은 본래부터 갖춰진 성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영성은 불성과 동의어로서 불교의 핵심된 위치를 차지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심리학에서의 영성

전통적인 심리학이 세속적인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작용하는지를 연구하는데 집중한다면, 최근에 대두되는 영성심리학·초월심리학은 인간의 근원적인 신성하고 거룩한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1997년 이런 동향을 인정해 인간의 건강을 몸·마음·사회건강이라는 기존 관점에서 ‘영성건강’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첨가하고 있다. 단순하게 질병이나 허약함의 결여가 건강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정의해 역동적인 온전한 상태로서의 웰빙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핵심된 영역은 바로 영적(spiritual)인 측면이다. 영적 측면이란 특정한 종교 영역이 아니라 인간 고유의 본성이고 보편 현상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렇게 건강 개념이 변화한 것은 그동안의 심리학계 연구성과가 반영된 까닭이다.

〈수심결〉은 영향력 큰 대표 어록
깨달음의 핵심 쉽게 제시
‘영성’은 불교서 먼저 사용
기독교 1441년경 처음 사용


명상상담연구원 원장 인경 스님은 이번 특강을 통해 〈수심결〉의 현대적 해석을 시도했다.

심리학자들은 영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영성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널리 퍼져 있어서 일률적으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영성과 관련한 새로운 경향의 심리학파를 기존 심리학파인 정신분석, 인지행동, 인본주의에 상대해 제4세력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영성의 개념이 이들 학파와 별개로 전개되지는 않았다. 그렇다보니 영성에 대한 접근방식이 약간씩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영성개념이 자리 잡는데 기여한 주요 심리학파의 대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본다.

정신분석에서 분파한 칼융(Carl Jung)이 있다. 프로이트는 영성인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명상이나 영성체험을 퇴행과 같은 부정적 개념으로 해석했다. 반면에 융은 원형(archetype)이라는 영적인 어떤 원리를 인정했다. 이때의 원형은 바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영적인 자기이다. 이런 자기(Self)의 개념은 인도의 아트만(Atman) 개념과 유사하다. 융에게 있어 자기(Self)는 정신의 전체성이고, 참 본질로서 초월적인 요소이고, 초월적인 자아로서 자기인격의 궁극적인 개아이다. 융은 신체[身]가 감각과 정서로 마음[心]이 생각과 개념들로 구성된다면, 영혼[靈]은 제3의 관점으로서 이것들과는 구별돼야 한다고 봤다. 그래서 융은 영성을 영혼(soul)과 정신·마음(psyche)과 동의어로 함께 사용했다.

인본주의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영적 체험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인물이 매슬로우(maslow)이다. 매슬로우 역시 종교적인 관심을 병적인 증후라는 프로이트에 반대했다. 그는 “인본주의 심리학은 적극적으로 영적 가치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매슬로우는 “인간에게 햇살·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듯 영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며 “이것들은 종교단체가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매슬로우(maslow)는 인간의 실존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 경험을 ‘절정경험(peak experience)’이라고 불렀다. 이런 신비적인 경험상태가 앞으로 심리학의 개척분야임을 강조한다. 이런 노력은 마침내 1969년 자아초월 심리학회지가 발간되는 결실을 맺었다.

영성체험을 중시하는 자아초월심리학(Transpersonal Psychology)적 관점에 서 있는 심리치료자들은 내담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영성체험을 유도하고 영성을 성취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기존 심리치료와는 매우 다른 성향을 보여준다.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도 기존의 종속적인 의사-환자나 교사-학생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 함께 여행하는 영적인 동반자로서 묘사된다. 이것은 단순하게 개인적인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체험과 성장을 목표로 한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영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할 것인지는 개인의 고유한 문화 배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기독교가 영성을 초월적 존재와 그에 대한 믿음에 관련시켜 이해한다면, 불교는 초월적인 존재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내적인 자질이나 성품으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결정적인 차이점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전제를 갖고 출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적인 본성으로 보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철학적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지만, 현실을 중시하는 명상과 심리학에서는 형이상학적인 문제보다 구체적으로 영성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지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다.

수강안내 02)2236-5306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0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2월 1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2월 2일(목요일) 개강. **매주 (화,목)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최고의 교수진과 열성적인 강의로
불교인재 양성
배움이란 마라톤처럼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동산반야회 29년 역사와 그 바탕으로 20년 전 설립된 본 대학은 불교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동산불교대학이 지성을 찾아 인격과 덕성을 함양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012년 동산불교대학 40기 신입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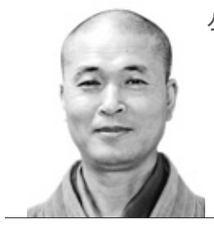
불교학과 | 토요반(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목요반(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통신반

1년차 교과목	불교학개론, 불교미술, 선학의이해,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근본불교, 반야사상, 유식사상, 불교상담론	무진장 대종사(본대학학장), 최종석 교수(금강대) 김호귀 교수(동국대), 윤열수 교수(동국대) 활안 스님(동산대), 최봉수 교수(대원대) 김형준 교수(동산대), 묘주 스님(동국대)
2년차 교과목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사상, 대승불교,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불교사회복지론	황순일 교수(동국대), 차차석 교수(동방대학원) 김상현 교수(동국대), 박종 교수(동산대) 주명철 교수(동방대학원), 정엄 스님(승가대) 종석 스님(승가대), 보각 스님(승가대)

- 사찰음식문화학과 (1년) : 3월 7일(매주 – 수) 정산 스님, 오후 2시
- 불교미술학과 (3년) : 3월 8일(매주 – 목) 법인 스님, 오전 10시 30분
- 불교한문학과 (2년)(정규,통신) : 3월 8일(매주 – 목) 만춘 스님, 오후 7시

- **모집인원**
  | **불교학과** | 180명(토요반, 목요반, 통신반 각 60명)
-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 입학금 25만원
- **원서교부및 접수**
  | **불교학과** | (2012년 1월 2일 ~ 2012년 2월 4일)
- **입학일시**
  | **불교학과** | 2012년 2월 4일(토) 오후 5시(동산불교회관) 개강
-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처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우)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0
  동산불교회관 www.dongsanbud.net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허공이 땅에 떨어질 때

학승이 물었다.
"잣나무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있다."
학승이 물었다.
"언제 성불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허공이 땅에 떨어질 때를 기다려라."
학승이 물었다.
"허공은 언제 땅에 떨어집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잣나무가 성불할 때를 기다려라."

問 柏樹子還有佛性也無 師云有 云幾時成佛 師云 待虛空落地 云虛空幾時落地 師云 待柏樹子成佛

잣나무는 이미 성불했다. 성불한 잣나무를 또 성불시키려고 하니 그것이 절대 불가한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은 이미 부처이다. 그런 사람이 또 부처가 되려고 하니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머리를 두고 머리를 찾는 것과 같다. 이것은 임제 선사가 한 말이다. 임제 선사는 참선 한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황벽 스님의 주장자를 3번 맞고 깨어났다. 이것은 늦게 깨달은 것이다. 육조 스님은 행자 8개월 만에, 스님이 되기 전에 홍인 스님의 〈금강경〉 해설을 듣고 깨어났다. 이 육조 스님이 중국에서 가장 빨리 깨달은 선사이다. 그러나 법으로 말하자면, 육조 스님도 늦다. 단 한번 법문을 듣고도 깨달아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법이다.

잣나무가 성불한 부처임을 알려면 자기가 성불해야 한다. 내가 부처의 눈을 갖추고 있으면 잣나무는 이미 부처가 되어있다는 것을 즉시 알게 될 것이다. 잣나무만 아니다. 삼라만상은 부처님의 몸이고, 우주는 부처님의 마음이고, 형형 색깔은 부처님의 옷이다. 눈을 뜨고 보면 틀림없다. 부처님이 그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이고, 그대를 보호하고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학승이 물었다.
"조사가 인도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앞니 빨에 털이 났느니라."

問 如何是西來意 師云 板齒生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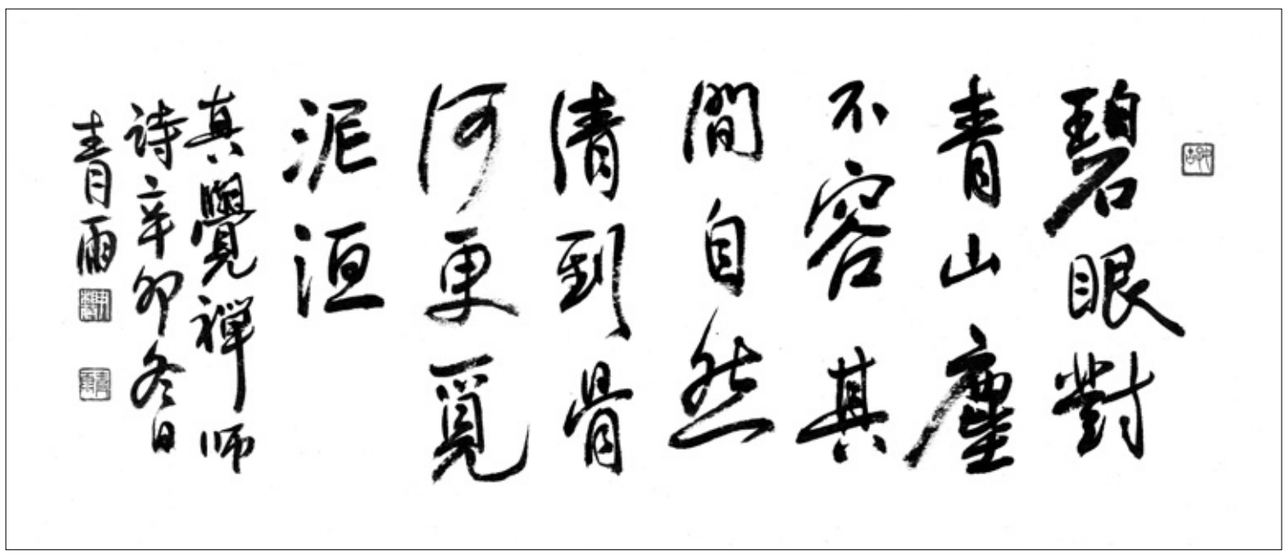
70년대 해인사 승가대학에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한 선서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판치생모(板齒生毛)라는 말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그런데 판치생모라는 조주의 뜻을 아는 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도대체 판치(板齒)라는 한자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얼른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몇몇 선배들에게 물어보아도 역시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판치(板齒: 판대기 이빨) 자체가 풀어야할 화두인가보다 생각했다. 그후 세월이 오래 지난 뒤에 판치가 '널판에 난 옹이'라는 뜻임을 알게 되었다. 목재상에 가서 널판을 잘 들여다보면 나뭇가지 뿌리였던 동그란 옹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툭 치면 널판이 뻥하니 구멍이 뚫린다. 이 옹이가 바로 판치(板齒)이다. 판치를 '앞니 빨'로 번역하는 것은 유상(類象)으로 번역한 것이다. 사실 '앞니 빨'에 털이 난 것으로 보면 더욱 가관이 아닐 수 없으므로 이것도 일방 효과적인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판치는 화두가 아닌 한자 표현이다. 판치생모는 조사서래의에 대해서 조주 스님이 왜 '앞니 빨에 털이 났다'고 했는지 그것을 궁구해야 한다.

고전 선서는 중국어로 저술된 것이라 번역할 때 한글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 우선 번역 전문가가 직역을 중심으로 번역하고, 뜻을 살피는 사람이 다시 윤문하고, 선의 전문가가 다시 감수하는 식으로 2 · 3중의 번역이 되어야 하는데, 70 · 80년대 한국 선불교 번역은 그리 완전을 기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판치라는 자구의(字句意) 하나를 아는 데만도 몇 년씩 걸렸다. 현재 2011년이 됐어도 선서만큼은 그리 큰 발전이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달마가 중국에 가져온 선지(禪旨)를 묻는데 판치에 털이 났다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가? 판치라는 글자를 들여다보지 말고 이렇게 말한 이유를 알아보아야 한다. 본 납자에게 판치생모의 뜻을 묻는다면 "천하의 납자들이여! 그대들은 역대 선사와 제불에 속지 말라"고 말하겠다.

무불선원 선원장

윤상민의 **서화산책** 혜심 선사구



碧: 푸를 벽
眼: 눈 안
塵: 티끌 진
泥: 진흙 니
恒: 항상 항

碧眼: 선사
泥恒: 열반

어찌 열반을 구하리오

碧眼對青山 塵不容其間 自然清到骨 何更覓泥恒
(벽안대청산 진불용기간 자연청도골 하갱멱니항)
푸른 눈이 청산과 마주하니 그 사이에 티끌을 허용치 않고 자연의 청정함이 골수에 이르니 다시 어찌 열반을 구하리오. - 고려 진각혜심 선사의 '선당시중(禪堂示衆)'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②



아름다움과 추함에 미혹되지 않고 〈대반열반경〉

"아름다움과 추함에 미혹되지 않다"니, 누가? 과연 누가 그럴 수 있는가? 우린 모두 아름다움은 좋아하고, 추함은 싫어하지 않는가? 아름다움을 좋아하고, 추함을 싫어하는 것이야말로 인지상정 아닌가. 누가 사람으로서 아름다움을 싫어하고, 추함을 좋아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그렇기로소니, 사실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우리 스스로, 속으로만,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이라 하여 좋아하고 추함이라 하여 싫어할 수 있다면 말이다. 속으로만 그렇게 하고서, 그 아름다움과 추함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선택이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면, 무엇이 굳이 문제가 되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취업을 앞둔 학생들은 외모에까지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아마도 겨울방학에 성형외과는 성시(盛市)일 것이다. 아는 성형외과 의사 한 분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훌륭한 성형외과 의사는 훌륭한 정신과 의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의대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의 머리말에 나오는 말이라 들었다.

성형외과 의사가 정신과 의사이기도 해야 한다는 말은 성형외과를 찾는 이들에게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이 되리라. 설혹 그렇다손 치더라도 성형외과를 찾는 그 개인만의 문제이겠는가? 성형하지 않고서는, 스스로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고 바꾸지 않고서는 올바른 대접을 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 전체가 '정신병에 걸린 사회'가 아닐까. 그래서 훌륭한 성형외과 의사는 사회병리를 고쳐가야 하는 훌륭한 정신과 의사도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외모도 경쟁력이다"라는 말은, 우리 사회의 루키즘(lookism, 외모지상주의)을 상징한다. 외모가, 인물이, 아름다움이 이제 개인을 억압하고, 소외하고,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렇게 된 지 오래되었다. 광고와 선전, 그리고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탓도 적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지만, 사회 속에서 그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 인간들 안에서 해결하라 말씀하신다. 아름다움과 추함에 미혹되지 않는, 수승한 경지(勝處)를 요구하는 것 아닌가. 놀랍게도 〈붓다의 마지막 여로(대반열반경)〉에서, 나는 이 말씀을 만났다.

"자신의 내부에 색(色)과 모습이 있다고 생각[想]하는 사람이 외부의 모든 색과 모습을 보고, 그곳에 한없는 아름다움이나 추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더라도, '이 아름다움과 추함에 미혹되지 않고 나는 진실을 보고,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최초의 수승한 경지이다."(강귀희 역, 민족사, 75~76쪽)

"아름다움과 추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름다움과 추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판단은 그 아름다움과 추함에 이끌려서 속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대승경전인 〈무량수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나는 진실 보고 안다" 수승한 경지
극락은 남에게서 호불호 받지 않아

"가령 내가 부처가 되더라도, 그 나라 사람과 하늘의 생김새가 같지 않아서 좋아함과 싫어함이 있다면, 정각을 얻지 않겠다." 이는 아미타불이 된 법장비구의 48원 중 네 번째 원이다. 무유호추원(無有好醜願)이라 부른다.

〈무량수경〉의 호추가 저 〈대반열반경〉의 미추와 다르지 않음은 두말 할 나위 없으리라. 48원 중에서, 특별히 이 원에 주목한 인물은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 1889~1961)다. 무유호추의 원 위에 스스로의 미학을 세웠다.

그런데 위에서 옮긴 내 번역을 좀더 선명하게 고치고 싶어진다. "그 나라 사람과 하늘의 생김새가 같지 않다고 해서(다른 사람과 하늘로부터) 좋아함과 싫어함을 받는다면, 정각을 얻지 않겠다." 극락에도, 외모가 잘 생긴 사람과 못 생긴 사람은 있다. 다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남으로부터 좋아함을 받거나 싫어함을 받거나 하지는 않는다. 극락은 그런 세상이다.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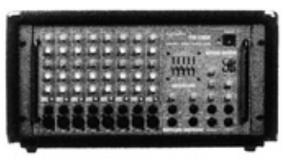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엠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POWERED MIXER 앰프

PM-805


스테레오 앰프 300AN


• 高音質 무선마이크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일반형)
◇가격 :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사찰 담장은 재료와 축조기법 제대로 따져야

담장(3)

담장에는 외부와의 경계선에 쌓은 외담과 정해진 공간 내부에 쌓은 내담이 있다. 외담은 경계를 표시하거나 외부로부터의 시각과 통행을 차단하여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기능성이 우선되며, 동시에 아름다움을 강조하여 외부에서 볼 때 차별화된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하기도 한다. 반면, 내부에 쌓는 내담의 경우에는 이질적 공간을 구분하여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지키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축조하는데, 장식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능적 목적과는 상관없이 장식담을 쌓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외담은 내담에 비해 높이가 높은 편이며, 방어적 기능에 맞도록 담장의 구조가 튼튼하고, 두께도 두꺼운 편이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스님들의 수행공간과 생활공간에 내담을 쌓아 스님들이 장애 없이 수행을 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한다. 특히 최근 들어 신도 수가 많아지고, 관람을 목적으로 사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스님들의 수행과 생활이 방해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사찰경내에 쌓은 내담은 스님들의 일상에 있어서 보호막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최근 도시에서는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나 지역의 거주민을 위해 담장을 털어냄으로써 시각적으로 개방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담장 없애기 운동을 벌여 관공서나 학교 등 공공기관의 담장을 철거한 사례가 많다. 산지사찰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도심사찰의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이러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부대중이 사찰을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하고, 사찰에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문화공간이나 예술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도시민들에게 있어서 사찰은 제한된 종교공간이 아니라 언제든지 찾아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귀중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스님들과 신도들의 수행이나 생활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좋지 않은 사례

전통사찰의 담장은 그 사찰에 적층(積層)되어 형성된 전통성과의 조화가 가장 중요한 설치과제이다. 왜냐하면 경내의 건물이나 시설물 혹은 구조물과의 자연스러운 조화가 이루어진 담장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전통사찰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경관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사찰에서 담장을 새로 신축하거나 수리를 할 때에는 사찰의 오래된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료나 축조공법을 적절히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수행환경 보호 기능 있지만
경관 조화 고려 재료 · 공법 선택
목재 펜스 대표적 실패 사례
화강석 판석 사용도 신중해야


장대석 석단 위에 목재 펜스를 설치한 경우는 잘못된 재료 선택으로 전통사찰의 경관성을 해치는 대표적 경우다.

최근 만들어진 담장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은 역시 재료를 잘못 선택하여 전통사찰의 경관성을 헤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장대석 석단 위에 목재펜스를 설치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사례에서 보이는 목재펜스는 새로운 디자인 효과를 주고 설치가 쉽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특별한 시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목재펜스의 재질감이나 형태는 전통사찰의 경관성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심대하다. 더구나 높이가 높아지게 되면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부정적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벽돌을 사용하여 축조한 담장도 문제가 된다. 벽돌담장은 궁궐이나 사대부가에 주로 축조한 것으로, 우리나라 전통사찰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전통사찰에 벽돌담장을 쌓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문제는 이 벽돌담장이 주변의 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사례에서 보이는 벽돌담장은 오래된 것은 아니고 새로 쌓은 것으로, 건물에 바짝 붙여서 설치하여 그 용도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 더구나 담장의 재료가 되는 벽돌의 색채가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붉은색이고, 담장하부의 석재 기초부분도 허술하여 축조기법도 좋지 않다.

기존의 담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강석 판석을 사용해 담장을 연결 · 설치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 역시 좋은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사찰에서 화강석 판석을 사용하여 담장을 만든 경우가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전통사찰에 도입한 이 담장은 매우 예외적인 사례인 셈이다. 물론 전통사찰에 도입하는 담장의 재료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엉뚱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사찰의 경관적 정체성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재료의 도입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축조기법까지 잘못된 경우도 많다. 먼저 살펴볼 사례는 사괴석, 견치석, 장대석이 혼재된 담장이다. 이 담장은 수리과정에서 원래의 담장 디자인을 존중하지 않고 재료와 축조기법을 선택함으로써 전혀 다른 형태의 담장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담장의 경우 정돈되지 않은 혼재된 경관성을 보이게 돼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안정한 느낌을 주게 된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사찰경역 외부 경계에 쌓은 사괴석 담장으로, 재료는 발파석을 사용했고, 축조방식은 시멘트줄눈을 넣어 전통성과는 거리가 먼 담장을 만들었다. 더구나 마주보고 있는 담장과 축조방식을 달리하여 한 공간에서도 통일된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담장 역시 전통사찰의 경관성과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담장은 아니지만 담장과 유사한 시각적 효과를 가지는 것이 바로 건물의 기단에 설치하는 난간이다. 우리 사찰에서는 오래 전부터 석재 난간을 설치해왔는데, 석재 난간은 담장과는 또 다른 건축적 요소로 건물과 이루는 조화성이나 기단의 높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안전성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지혜로운 시설물이었다.

특히 석재 난간은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여 사찰마다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석재 난간의 현대적 계승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전통사찰에 설치된 철제 난간이나 알루미늄제 난간의 경우에는 사찰경관에 좋지 않은 부정적 작용을 하게 된다. 물론 이 난간들이 사람들이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설치한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관적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이한 사례로 지적할 수 있는 것으로 오래된 산지사찰에 설치한 목재난간을 꼽을 수 있다. 이 목재난간 역시 사람들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상의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나 주변의 오래된 건물이나 석단과는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으로 특히 재료나 형태적 측면에서 볼 때,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건립되는 현대사찰의 경우에는 전통사찰의 경관성과는 다른 다양한 담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 이미 건축의 재료와 공법이 달라지면서 드러나는 경관성이 다른데 담장만 전통적인 디자인을 고수해야 한다면 그것은 전통의 창조적 계승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경기도 장흥에 새로 건립한 청련사의 담장 겸 난간은 중요한 시사점을 마련해 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 담장 겸 난간은 철, 유리, 돌을 조합해 만든 것으로 콘크리트제 건물과 잘 조화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자연을 차경(借景)하는데 매우 적합한 디자인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다양한 재료와 축조기법이 혼재돼 불안정한 느낌을 주는 담장


기존의 담장과 어울리지 않는 화강석 판석을 사용해 담장을 연결한 경우



참선자, 수행자, 수험생, 학업자
소원성취의 옷

침향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에서 항균효과가 가장 뛰어나 공기정화에 탁월합니다.

사람의 체온에 해당하는 36°도 이상의 열을 받을 때부터 그 기운을 발하기 시작하며 위를 따뜻하게 하고 몸 속에 나쁜 기를 내려주고 기의 순환을 원활히 해주고 사기(邪氣)를 몰아내어 머리를 맑게 해주어 한의학적으로 많이 사용하며 부처님의 향으로 최고의 수행과 참선을 할 수 있는 중생제도로 탁월한 하늘이 내려준 천연향이며 향기를 내는 신비한 물질이다.

삼각법(삼각기법)을 통하여 참선과 수행자의 중심이 되어 기가 가장많이 모여지며 심신이 안정되어 소구하는 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산스크리스트어)는 일체의 소망을 성취케하고 복을 받게 하며 무적이며 일체중생이 윤회하는 삼유(三有)의 길을 청정케 하는 것이다.

색중에서 적색(빨강)과 흑색을 교합하여 흑색은 깨우침, 팔정도(정견, 정어, 정념, 정업, 정명, 정사유, 정정진, 정정)의 의미로 적색은 항상 쉬지 않고 수행하라는 정진을 상징합니다. 글자 하나 하나마다 금박과 침향이 무한한 기운으로 변하여 부처님의 자비로 일체 중생을 성취케하는 깨달음의 옷입니다.

모든 보시금은 대불전 불사에 쓰여집니다.

불자라면 가족 모두가 깨달음의 옷으로 소원성취 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빨강색 (액운, 액살 소멸), 노랑색 (부를 상징)
졸업선물, 각종 선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개당가격 : 23,000원 1SET : 45,000원
단체주문 환영

상표등록 40-2011-0049176 / 디자인등록 30-2011-0038559
가격 : 31,000원
단체주문 환영

우 능 사 031)898-5698 / 010-2589-7280
우체국 104604-01-005265 [예금주 : 우능사]

구산선문 종갓집 법통 한 줄기 바람이 전해주네



영남제일 수선도량 석남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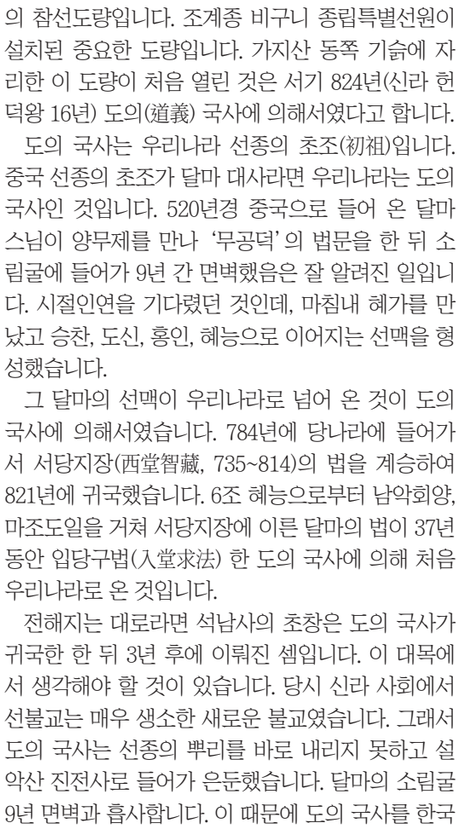
가지산(迦智山) 석남사(石南寺)는 비구니 스님들의 참선도량입니다. 조계종 비구니 종립특별선원이 설치된 중요한 도량입니다. 가지산 동쪽 기슭에 자리한 이 도량이 처음 열린 것은 서기 824년(신라 헌덕왕 16년) 도의(道義) 국사에 의해서였다고 합니다.

도의 국사는 우리나라 선종의 초조(初祖)입니다. 중국 선종의 초조가 달마 대사라면 우리나라는 도의 국사인 것입니다. 520년경 중국으로 들어 온 달마 스님이 양무제를 만나 '무공덕'의 법문을 한 뒤 소림굴에 들어가 9년 간 면벽했음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시절인연을 기다렸던 것인데, 마침내 혜가를 만났고 승찬, 도신, 홍인, 혜능으로 이어지는 선맥을 형성했습니다.

그 달마의 선맥이 우리나라로 넘어 온 것이 도의 국사에 의해서였습니다. 784년에 당나라에 들어가서 서당지장(西堂智藏, 735~814)의 법을 계승하여 821년에 귀국했습니다. 6조 혜능으로부터 남악회양, 마조도일을 거쳐 서당지장에 이른 달마의 법이 37년 동안 입당구법(入堂求法) 한 도의 국사에 의해 처음 우리나라로 온 것입니다.

전해지는 대로라면 석남사의 초창은 도의 국사가 귀국한 한 뒤 3년 후에 이뤄진 셈입니다. 이 대목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신라 사회에서 선불교는 매우 생소한 새로운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도의 국사는 선종의 뿌리를 바로 내리지 못하고 설악산 진전사로 들어가 은둔했습니다. 달마의 소림굴 9년 면벽과 흡사합니다. 이 때문에 도의 국사를 한국의 달마라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석남사의 초창에 대해서는 도의 국사가 직접 절터를 잡고 도량을 열었다는 설과 그의 제자 진공(眞空, 855~937)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설 등이 있습니다. 분명한 기록이 전하지 않으니 추정이 전부이지만, 석남사와 도의국사의 인연이 천년의 세월을 넘어 면면한 것 자체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도의국사 진영

도의 국사와 거의 같은 시기에 대륙에서 구법수행을 하고 돌아온 선사들이 잇따라 선수행 도량을 열게 되어 구산선문이 형성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문을 연 도량은 실상산문 실상사이지만, 선불교의 법을 가장 먼저 들여 온 것은 도의 국사에 의한 것이므로 구산선문의 원조는 도의 국사입니다. 도의 국사의 제자는 염거(廉居, ?~844) 화상이고 그의 제자인 체징(體澄, 804~880)이 장흥 보림사를 창건해 도의 국사를 조사로 모시는 산문이 형성됩니다. 이를 가지산문이라고 합니다. 구산선문의 종갓집인 셈입니다.

가지산문의 가지산이 바로 석남사가 위치한 바로 이 가지산입니다. 그러므로 초창도량은 장흥 보림사이고 선문의 명칭은 가지산문입니다. 가지산과 도의 국사의 연관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드러난 자료는 없습니다. 고려초기의 원응(圓應, 1052~1144) 국사가 만년에 가지산 인근의 운문사에 머물렀는데, 이때부터 가지산문의 중심이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옮겨 온 것이라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원 국사의 행장은 운문사 기행에서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날카로운 산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아침, 허연 입김을 토해내며 석남사 경내에 들어섭니다. 대웅전을 참배하고 '울주 석남사 승탑'이란 팻말의 꼬부라진 화살표를 따라 청화당 뒤 석축위에 모셔진 '석남사부도' 앞에 섭니다. 보물 제369호인 이 부도는 도의 국사의 부도라고 전합니다. 설악산 진전사에서 만난 도의국사 부도가 그렇듯 사료에 의한 확증은 없습니다.

팔각원당형의 이 부도는 높이가 353Cm인데, 학계에서는 통일신라말기나 고려 초기에 조성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팔각형의 2중 기단 위에 상 중 하대가 놓였습니다. 예리한 각을 피해 둥글게 다듬어 진 하대석에는 뭉글뭉글 구름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위로 놓인 중대석과 상대석도 연잎 문양을 차분하게 넣었고 탑신에는 문비와 사천왕상이 아주 차분하게 돋을새김 되어 있습니다. 옥개석은 기왓골이 고르고 처마의 치솟음도 차분합니다. 일부 모서리가 깨져 나간 것이 안타깝지만 보주들이 온전히 잘 얹어져 있어 전체적인 균형미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찬 겨울바람에 댓잎 서걱대는 소리가 하염없는데 절에서는 사시예불이 시작되는지 목탁소리가 맑게 들립니다. 이 부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따지기 보다는 이 자리에서 수많은 승도(僧徒)들의 수행을 지켜보았을 천년 세월의 깊이에 더 침잠되고 싶어집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며 부도를 바라보고, 이 부도를 스치고 지나갔을 바람과 구름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는 상념이 아득하기만 합니다.

석남사 조사전은 대웅전 바로 뒤에 있는데 안이 말끔합니다. 가운데 도의 국사의 진영이 모셔져 있고 좌우로 석남사를 거쳐 간 고승들의 진영이 걸려 있습니다. 모두 11분의 조사들이 조사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석남사 4부도 중 사료에 의한 확증은 없지만 도의국사 부도로 알려져 있다. 침잠된 4부도는 수많은 승도의 수행을 지켜보았음을 짐작케 한다.



도의 국사 창건, 부도 주인 도의 추정
조사전에 선사 11분 모시고 매년 재 올려
인홍 스님 20년 불사로 특별선원 설치
단아한 부도와 탑비 수행 이미지 담아

도의 국사 창건, 부도 주인 도의 추정 조사전에 선사 11분 모시고 매년 재 올려 인홍 스님 20년 불사로 특별선원 설치 단아한 부도와 탑비 수행 이미지 담아

있습니다. 석남사는 매년 5월에 선대 조사 스님들을 기리는 재를 지내고 있습니다.

쇄락했던 석남사를 오늘의 거찰로 가꾼 스님은 근현대 한국불교 비구니계의 큰 별이었던 인홍(仁弘, 1908~1997) 스님이었습니다. '가지산 호랑이'로 통했던 스님은 '가야산 호랑이' 성철 스님의 법문을 즐겨들었고, 1951년에 창원 성주사에서 봉암사 결사에 견줄 결사를 맺어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가풍을 진작하기도 했습니다. 1957년 석남사 주지로 부임하여 20여 년 동안 대웅전, 극락전을 비롯한 많은 당우를 지었고 토지를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홍 스님의 덕화는 소임을 충실히 한 사판(事判)이 아니라 부단한 정진으로 일관된 수행의 면모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인홍 스님의 부도와 탑비는 석남사 경내로 접어드는 청운교 오른쪽 양지바른 언덕에 있습니다. 정갈한 자리에 단아하게 서 있는 부도와 탑비는 마치 고운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좌선에 든 스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입적 2년 후에 조성한 부도는 연한 자줏빛이 감도는 화강암입니다. 팔각의 기단위에 앙련의 하대석과 낮은 중대석 그리고 복련의 상대석이 부도의 하부중심을 견고하게 잡고 있습니다.

우주만물의 집결체인 듯 둥그런 몸돌에는 '인홍선사적조탑'이라 음각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장식 없이 매끈하게 다듬어진 옥개석은 끝이 사뿐하게 들려져 무게감을 허공으로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이어 얹어진 보주들은 간소하지만 기품이 있습니다.

탑비는 목주름이 두드러진 귀부와 오석으로 다듬어진 몸돌 그리고 장엄한 운룡문의 이수로 이루어졌습니다. 비문은 석정 스님의 글입니다. 한글과 한자를 혼용한 비문은 인홍 스님의 일대기를 매우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부도와 탑비 그리고 비문이 전해주는 단아함과 담담함의 이미지. 인홍 스님의 삶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탑비의 비문과 작가 박원자씨가 지은 인홍 스님의 일대기 〈길 찾아 길 떠나다〉(김영사, 2007)에는 가지산 호랑이의 생애와 수행 면모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마조 선사의 증법손인 도의 국사가 신라 선종의 가지산문을 열었는데 일천년이 지난 후에 인홍니가 가지산 석남사에서 다시 선문을 꽃피우니 수십 년의 결재 동안 2천여 명의 운수납자가 이 회상에서 정진하였고 333여 명의 은제자를 길러내니 석존 재세 시대에도 비구니의 화현이로다."

〈길 찾아 길 떠나다〉의 출간에 즈음한 당시 조계종 종정 법전(法傳) 스님의 법어입니다. 실로 부처님 재세시의 대애도 비구니와 한국 선종의 초조 도의 국사와 석남사 중창주 인홍 스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진리의 당체로 일체화 되고 있음을 종정이 증명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1997년 음력 4월 14일 세수 90세 법랍 56년의 일기를 마치며 부른 인홍 스님의 열반송은 이렇습니다.

삼세불조(三世佛祖) 가신 길을 나도 가야지.
구순생애(九旬生涯) 사바의 길, 몽환(夢幻) 아님 없도다.
일엽편주(一葉片舟)처럼 두둥실 떠나가는 곳
공중(空中)에 둥근 달 뿐이네.

다시 청운교를 건너 이제 속세로 향한 길을 걸어 내려갑니다. 작은 기념품 가게를 지나 탱자나무 울타리를 뒤로할 무렵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면 부도밭이 보입니다. 4기의 부도가 앞에 표지석을 세워 놓고 서있습니다. 맨 앞의 부도는 팔각원당형을 계승했고 나머지 셋은 석종입니다.

팔각원당형 부도 앞의 표지석에는 '선교양종지봉당거기대사탑'이라고 음각 되어 있고 그 옆의 석종은 표지석이 없는데 몸돌에 '소암당세위대사'라 새겨져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함월당덕휘대선사탑' '재월당화백대선사지탑'이 서 있습니다. 이 네 분의 선사들이 어느 시대를 어떻게 살다 갔는지 전하는 자료가 없어 알 길이 없습니다.

비질한 흔적이 또렷한 부도밭에서 행장을 잃어버린 옛 스님들의 유적을 더듬는 일은 쓸쓸합니다. 칼바람 부는 겨울의 한 낮, 고요한 부도밭은 시간도 공간도 다 잃어버리고 두둥실 일엽편주로 떠 흐르는 듯합니다.



글 · 사진=임연태(시인 · 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지성·수행·대중불교 서원…불교계에 새 바람



1967년 봉은사에서 열린 제4차 전국 대의원대회, 사진 앞줄 왼쪽부터 덕산 이한상 거사, 서돈각 서울법대학장(법불회 지도교수), 광덕 스님
– 출처 〈덕산 이한상 신문기사 자료집〉 화보



1963년 법주사 1차 수련대회 후, 오른쪽부터 지하 스님, 청담 스님, 이한상 거사, 왼쪽 두번째 홍도 스님, 혜성 스님



1966년 대불련 구도부원이 정진한 김룡사에서. 오른쪽부터 박성배 교수, 이한상 거사, 송산 스님, 성철 스님, 서경수 교수

① 1960년대 – 전국적인 대학생불교운동의 태동기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이하 대불련)가 2013년 9월 1일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해방과 민주화 등 역사의 흐름 속에 대불련은 청년불교의 대표단체로 80년대 민중불교운동, 90년대 재가불교운동, 2000년대 참여불교운동 등을 이끌었다.

하지만 현재 대불련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취업난으로 인한 교내 학업경쟁으로 이미 많은 대학에서 법회가 실종된 상태다. 또 학생들을 지도하는 지도교수와 지도법사 등의 관심이 줄어들며 학교와 지역을 불교계와 잇는 네트워크가 무너졌다. 이런 시기 대불련 50년을 앞두고 각 시기 상황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학생 불교운동의 흐름을 짚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본다.

대학생 불교운동의 시작은 일제강점기를 지나 1950년대 단과대학별로 진행됐지만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조직이 구성된 것은 1963년 3월 24일부터이다.

1963년 3월 24일 조계사 총무원 회의실에서 사상 첫 간담회를 가진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는 8월 28일 조계사 학생회관에서 동국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17개 대학과 삼군사관학교 학생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창립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봉은사로 이동해 1만 배를 올리며 불교 중흥을 발원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있었던 대학생 불교활동을 조직적인 연합회 활동으로 발전시키는 일대의 사건이었다.

청년불교운동이 불교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기를 서원한 이들은 9월 1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대불련을 정식 창립했다.

대불련은 창립의 주요 이념으로 '지성' '수행' '민족' '대중' 불교의 기치를 내걸었으며 동시에 전국 대학생 불교연합회 조직, 사회봉사 및 국민계몽, 민족문화재 보호, 국제교류 등을 사업계획으로 수립했다. 대불련은 주1회 법회, 정기수련회를 진행했으며 매년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사상강연회를 통해 젊은 불자들을 대상으로 포교를 펼쳤다.

당시에도 젊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데서 더 나가 단체활동에 나선 것은 생소하고도 신선한 충격이었다.

지성의 상징인 대학생들이 불교단체를 만들자 당대의 선지식들이 대불련을 지원하고 지도했다. 이 당시 대불련 활동을 이끌어준 스님들이 바로 성철·탄허·광덕·숭산 스님 등이었다. 초대 회장에는 신호철 씨(서울대)가 선임됐다.

해인사·월정사 등지에서 큰 스님들의 지도하에 수련대회 등을 통해 전국 대학생들의 신행활동을 이끌어간 대불련은 1965년 3월 대의원 총회를 거쳐 지부설립을 결의하고 서울 충남 강원 경남 전북지부 등 1967년까지 56개 지회를 설립했다. 또 1967년 3월 대의원 총회에서는 대불련 회기 및 마크, 회가가 제정됐다.

1967년 4월 23일에는 봉은사에서 제1차 명예회원 추대식을 개최해 탄허 행원 능가 광덕 스님을 비롯해 서돈각 이기영 김영두 홍정식 이종익 서경수 이한상 등 14명을 명예회원으로 추대했다.

같은 해에는 대불련 출신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학사불교회가 창립된다. 10월 3일 김윤권 초대회장을 비롯해 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조계사 학생회관에서 학사불교회 발기인총회를 열고 학사불교회를 창립했다.

초기지만 대외적인 행보도 가속화돼 5일에는 최동수 명예회원이 대불련 대표로 세계불청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대불련은 1965년 제2차 전국대의원 총회를 계기로 4월 10일 창가학회(승단을 부정하는 재가자 중심의 일본 신흥불교교단. 현 SGI) 규탄대회를 조계사에서 여는 등 대외 행보에도 나섰다. 5월 부처님오신날에는 불교인식 여론조사 및 각 주요기관 자비등 점등, 제1회 제등행렬 등에 주도적인 활동을 펼쳤다. 5월 21~25일에는 대구 청구대 불교부 주최 하에 한국 현대화와 종교인의 사명을 주제로 대종교제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당시 15개 대학이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대학 불교부 모여 1963년 창립
당대 선지식·교수들 지도에 앞장
군승제 도입·창가학회 규탄 주도

대학생 불자로서 대불련이 불교계에 남긴 족적은 군승제 도입에서 드러난다. 군포교가 발돋움하던 시기 10여 년 전 이승만 정부 당시 도입된 군목에 비해 군승제 도입은 미진한 상태였다. 이런 답보상태는 당국의 무성의와 타종교 방해로 인한 요인이 컸다.

1967년 3월 19일 봉은사에서 열린 제4차 전국대의원 총회에서 당시 불교계 요구사항인 군종승제도 실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대불련 대표들은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예비위를 거쳐 전국 각 대학의 목소리를 수렴해 4월 11일 군종승제도 추진위를 결성하고 군승제도 실시를 재차 촉구했다. 이어 17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회의를 통해 결의문을 작성했다.

4월 18일 조계사에서 500여 청년불자들이 군종승 추진 촉구대회를 여는 가운데 이무웅 회장을 비롯해 김동길 사무장 등 대불련 대표들은 국방부 대표인 인사국장 정승화 소장을 만나 불교계 요구를 전달했다.

정 소장은 4월 30일까지 군종위원 임명 및 불교대표 2명을 군속으로 임명하기로 하고 군승준비위를 5월 31일까지 국방부에 설치키로 약속했다. 이후 구체적인 준비단계를 거쳐 1968년 11월 30일 5명이 최초의 군승으로 임명됐다.

대불련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되자 전국 각 대학에서 불교학생회가 불같이 일어났다.

기존 동국대·고려대 등 불교학생회에 이어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를 통합한 서울대 총불교학생회가 1968년 11월 8일 창립됐으며 성균관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에서도 불교학생회를 창립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젊은 불자 양성 시급합니다"

명호근 대불련 총동문회 총재



창립 때 보다 회원 수 줄어
취업난으로 총체적 위기
회관 건립, 100억 모연 발원
2월 젊은 불자 육성대회

"젊은 불자 양성에 한국 불교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윤제철, 이하 대불련)가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젊은 불자 육성 발원대회를 통한 청년불교 진흥에 본격 나선다.

대불련은 2월 18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젊은불자육성발원대회를 개최한다.

명호근 대불련 총동문회 총재(사진)는 대불련 50주년과 젊은불자육성발원대회를 앞두고 청년불교 활성화에 대한 불자들의 애정어린 관심을 당부했다.

명호근 총재는 "불교 전체가 예전보다 침체가 돼 있다고 본다. 특히 젊은 불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더 이상 이런 현실을 방치 할 수 없기 때문에 젊은 불자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2009년부터 대학생 불자들에 대한 장학사업과 군부대 법당 건립 및 군포교 지원사업을 벌여왔다.

장학사업으로는 지난 3년간 60여 대학생 불자와 불교학생회에 7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군포교사업으로는 3개 군부대에 2억 6000만원 규모의 법당불사를 비롯해 20여 군법당 법회를 주관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젊은 불자들에 대한 포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불교회관 마련을 위한 100억 규모의 '젊은불자육성기금'을 조성키로 하고 2012년 30억원의 기금을 모금할 예정이다.

명호근 총재는 "창립 당시에 비해 학생 수가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역량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70~80년에는 1만명을 상회하는 수가 대불련 법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창립 초기의 원력으로 다시금 일어날 시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젊은불자육성대회는 3부에 걸쳐 진행된다. 1부 행사에서는 '왜 젊은불자에게 기대하는가?' 를 주제로 대불련 학생들의 국악연주와 율동과 함께 동문회 주요활동 및 젊은불자 육성 성과보고가 이어지며 공로자 및 후원자에 대한 감사의 시간도 마련됐다.

2부 행사에서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만해시 낭송을 시작으로 젊은불자 육성 사업계획이 보고되고 젊은불자 육성을 위한 현장 기부약정식이 개최된다.

3부에서는 대불련 동문들의 성악과 연주 등과 대불련 동문들의 젊은불자 육성불사를 위한 서원과 다짐의 시간이 진행된다.

이석우 대불련 총동문회 사무총장은 "대학가에서 취업난으로 인해 불교 신행활동이 감퇴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불련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한다. 모인 기금은 대학생 불자 장학금 및 군포교 진흥, 회관 건립을 위해 사용된다"며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02)720-1963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허리찜질,족욕,좌욕,반신욕,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 전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중소기업청 청업진흥원 '청의적 기업가상'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당뇨,신장질환,동맥경화,고혈압,심장병,부인병,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 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850년 전 앙코르 문명 3D 복원 시작

캄, 반테이 츠마르 사원 복원…글로벌 헤리티지 펀드 지원

오랫동안 인간의 손길을 거부해 왔던 캄보디아의 고대 사원이 깨어나고 있다. 앙코르 왕국의 대표적인 사원 중 하나였던 반테이 츠마르(Banteay Chhmar)에서 고고학적 조사가 진행되고, 드물게 오지 여행가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저개발국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지원 활동을 펴고 있는 '글로벌 헤리티지 펀드(Global Heritage Fund)'의 후원을 받아 반테이 츠마르 사원 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존 센데이(John Sanday) 단장은 "자야바르만 7세(Jayavarman VII)가 지은 반테이 츠마르는 앙코르 왕도로부터 북서쪽 165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지금까지도 인간의 접근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곳"이라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크메르 내전 당시 폴포트의 피난처였던 사원 일대에 대량의 지뢰가 설치되어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다. 다행히 2007년 독일의 후원으로 반테이 츠마르 사원 안에 매설된 지뢰를 완전히 제거하긴 했으나 사원 주변은 여전히 위험하다.

최근 반테이 츠마르 사원에 대한 지표조사를 마친 센데이 단장을 비롯한 60여 명의 고고학자들은 3D 입체영상 촬영 장비를 동원해 사원 곳곳에 흩어진 사암 조각을 촬영하는 등 원형 복원을 위한 기초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

"글로벌 헤리티지 펀드가 매년 이 작업에 2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한 센데이 단장은 "3D 입체영상으로 촬영된 사암 조각에서 원래의 모습을 유추하는 힘든 과정이지만, 850여 년 전 앙코르 문명을 엿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컴퓨터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사암 조각들이 순식간에 제자리를 찾아가 찬란했던 문명을 한 눈에 조망할 때를 상상한다"는 그는 "그쯤 되면 반테이 츠마르 사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반테이 츠마르 사원에는 1177년 앙코르를 침략했던 찬파(지금의 베트남)와의 전투 장면, 자야바르만 7세의 아들이 적들과



오지였던 캄보디아 반테이 츠마르 사원이 최근 글로벌 헤리티지 펀드의 후원으로 최근 복원을 시작했다. 사진은 반테이 츠마르 벽에 조각된 관음보살상

벌이는 전투 장면, 크메르 군대의 패배 장면 등이 사실적으로 대담하게 묘사되어 있다. 또한 수많은 관음보살이 선명하게 조각돼 있는데, "관음보살의 가호를 세계에 전파하려 했던 앙코르 문명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센데이 단장은 설명했다.

앙코르 시대의 위대한 크메르 왕 자야바르만 7세는 찬파의 침략에서 나라를 해방시킨 1181년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보복 침략을 통해서 찬파를 병합시킨 한편, 남쪽으로는 말레이반도의 크라 지협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위로는 버마의 살윈 강까지 진출해 동남아시아에서 크메르 제국을 건설한 그는 국가를 쇄신하기 위해 종교를 불교로 삼고, 스스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불제자로 묘사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송광사 출가경험 토대 한국불교 알려

세계의 불교학자(2)

로버트 버스웰 美 UCLA 교수



2009년 5월, 동국대 불교학술원 초대 원장에 푸른 눈의 외국학자가 임명돼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美 UCLA 동아시아학과 로버트 버스웰 교수(사진)가 그 주인공이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한국불교학의 세계적인 대가로 손꼽힌다. 동국대 산하 불교학술기관인 불교문화연구원, 전자불전연구소, 동국역경원, 종학연구소를 하나로 통합한 교책 연구기관의 장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었다는 후문이다.

버스웰 교수는 1986년 UCLA 동아시아학과 교수로 임용됐고 1993년 UCLA에 한국학센터를 설립했다. 한국학센터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한국학 센터로 한국의 종교 · 문화 등을 가장 한국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1974년 송광사 구산 스님 문하에서 출가했다. 당시 그는 '혜명' 이란 법명을 받고 5년간 수행을 통해 한국불교를 익혔다. 1985년 UCLA에서 '〈금강삼매경론〉의 한국적 기원' 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원효 스님의 〈금강삼매경〉을 비롯해 지눌 스님 전집을 번역했다. 특히 버스웰 교수는 학부 때 영역해 출판한 〈지눌 법어 선집〉을 비롯해 줄곧 지눌의 선 등 한국불교 연구에 매진해 왔다. 그의 다양한 저술을 통해 한국불교가 서구 학계에 소개됐다. 버스웰 교수의 저작은 하나하나가 불교학사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불교계에서는 버스웰 교수의 이런 공로를 높이 사 1994년에는 불이상을, 2008년에는 만해대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인 '〈금강삼매경〉의 한국적 기원' 은 종전까지 인도 혹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던 〈금강삼매경〉이 한국에서 쓰여졌다고 최초로 주장한 책이다.

버스웰 교수는 박사과정 때 원효 스님이 쓴 〈금강삼매경〉 해설서 〈금강삼매경론〉을 공부하던 중 〈금강삼매경〉을 거론한 중국 저작이 하나도 없고, 시기적으로도 한국에서 출판됐다고 볼 만한 증거들이 있다는 점을 논증해 학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연구 업적만큼이나 대외활동도 활발하다. 최근에는 한국학 전공자로는 최초로 중국학 · 일본학이 주도하는 미국 아시아학회(AAS,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의 학회장 등도 역임했다. 현재 미국 UCLA 아시아언어문화학과 교수, UCLA 불교학연구소장이 그의 대표적인 직함이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현재에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대장경 · 천태종 상월조사탄신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등 다수의 국내 학술행사에 참석했다.

버스웰 교수는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임명 당시 "외국인 학자로서 동국대와 외국대학을 연결하는 역할이 나의 가장 큰 소임이라고 여기고 있다. 해외 불교학자와 한국 내 학자의 교류에 힘쓰는 것이 내 역

불교학술원 초대 원장 역임
미국 최대 한국학센터 설립
"고려대장경 편찬은 1960년대
달탐사와 비견될 사건"

할이고, 그것이 한국불교학을 발전시킬 기회"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불교학의 최우선 과제는 외국에 한국학자의 업적을 알리는 것"이라며 "한국불교 주제의 국제학술행사 개최, 한국불교학자의 해외 학술행사 등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2010년 동국대 간화선 국제학술세미나 등의 밑거름이 됐다.

버스웰 교수는 고려대장경 편찬을 1960년대 미국의 달 탐사사업에 비견할 만한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서구에서는 일본이 1920년대 간행한 〈신수대장경〉이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야 하고, 이는 간화선을 세계화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송광사와 태국 등에서의 출가경험을 잊지 않으려 매일 요가와 참선을 한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도 마음을 가라앉히는 명상을 즐긴다.

김종명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박포리 교수(美 아리조나주립대), 리차드 맥브라이드 교수(美 와싱턴대) 등 다수의 제자를 배출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쓰촨 · 칭하이성 등지, 티베트 스님 3명 분신

중국의 티베트 통치 저항… '정치적 시위' 분신 확산 우려

올들어 중국의 티베트 통치정책에 저항하는 티베트 스님들의 분신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분신 사건의 진원지였던 쓰촨성 외에 칭하이성과 티베트자치구 등 티베트인 거주 지역 전역으로 '정치적 시위' 분신이 확산되고 있다.

1월 8일 오전 칭하이성 다르현 냔모사원의 니아게 소남드루기우(42) 스님이 티베트인들의 자유를 요구하며 분신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현지 주민과 티베트인권단체 등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숨진 스님은 현지인들 사이에 '린포체 소파(Sopa)' 라고 불리며 존경받는 스님이다. 그는 숨지기 전 "티베트인들은 투지를 잃지 말아야 한다. 달라이 라마의 장수를 위해 길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10일 이번 분신 사건을 보도했지만,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발각돼 자살했다' 고 보도했다.

앞선 6일에는 쓰촨성 아바현에서 22살 승려 등 2명의 승려가 분신했다고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

니아게의 분신은 지난해 3월 쓰촨성 아바현의 키르티 사원(Kirti monastery)에서



국제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는 티베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압력과 제재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사진은 중국 공안이 티베트 스님을 강제 연행하는 모습

첫 승려 분신 사건이 일어난 이후 외부로 알려진 15번째 사례이며, 칭하이성에서의 분신은 이번이 처음이다. 티베트(시짱)자치구와 칭하이성, 쓰촨성 서부 등은 전통적으로 티베트의 영역이었으나 중국에 점령된 뒤 여러 행정구역으로 분할됐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와치(Human Rights Watch) 홍콩지부 조사관 니콜라스 베퀴린(Nicholas Bequelin)은 "티베트인들이 (중국)저항의 한 형태로 분신을 선택하고 또 동조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의 압력과 제재가 커질수록 지금의 극단적 선택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오종욱 편집위원

미얀마 카친주 종교단체 전쟁난민 구호 나서

메유 씨 자르 불교사원 등 난민 1000명 새로 수용

미얀마 카친(Kachin) 주의 흐파칸트(Hpakant) 지역 종교단체들이 전쟁 피난민들에게 종교시설을 개방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에 나서고 있다.

카친 주에서 2011년 6월 카친독립단체(Kachin Indepe- ndence Organization, 이하 'KIO')와 미얀마 정규군 간의 전투가 시작되면서, 고향을 등진 피난민이 급증하고 있다.

올들어 메유 씨 자르 불교사원(Maw Si Zar Buddhist temple)은 470여 명, 로옹흐캉 카친 침례교회(Lawng Hkang Kachin Baptist Church)는 300여 명, 메유 씨 자 카친 침례교회(Maw Si Za Kachin Baptist Church)는 120여 명 등 이미 피난민 1000여 명을 새로 수용했다.

"지난해 6월 카친 주에서 시작된 미얀마 정규군과의 전투로, 3만여 피난민이 발생했다"고 전한 KIO는 "피난민 대부분이 흐파칸트를 비롯해 남 야(Nam Ya)와 로옹 흐캉(Lawng Hkang)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미얀마의 최북단에 있는 흐파칸트 지역을 피난처로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KIO는 "새해가 시작되면서 카친 주의 와잉메유(Waingmaw), 카와 양(Kawa Yang) 남 만(Nam Mam) 핀 바우(Pin Baw) 메그웨이(Magway) 등지에 미얀마 정규군 400여 명이 증강 · 배치됐다"며 "미얀마 군부의 군사적 압력이 커진 만큼, 피난민의 수도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O와 미얀마 정규군 간의 전투가 빈번해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인권도 크게 훼손되고 있다. 여러 국제인권단체에서는 "KIO의 군사적 저항이 시작된 지난해 6월 이후부터 미얀마 군인들이 카친 일대에서 저지른 절도 폭행 강간 학살 등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데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카친독립단체 저항군과 미얀마 정규군 간의 전투로 피난에 나선 카친 난민들

오종욱 편집위원

※경전사경※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 내 지 : 70장 자연색메트지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220㎜×310㎜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신묘장구대다리 / 츰부다라니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 여러종류의 사경책 · 사경지가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츰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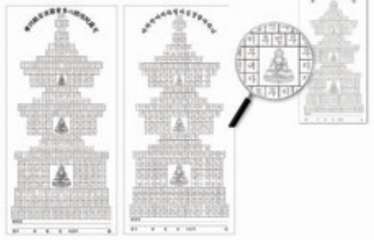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 가 20,000원(1권)
• 내 지 : 한지 108장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435㎜×300㎜

※사경지※



반야심경 탑사경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 종 류 : 한문,한글



쿠라다케 붓펜 입하



★사경용 금분액



바림등(8cm)
할인가 3,000원(50개 이상)
• 1BOX : 25개 • 등지름 : 24cm
• 빨강,보라,노랑,분홍,진분홍,흰색

공단등(8cm)
할인가 3,000원(50개 이상)
• 1BOX : 25개 • 등지름 : 24cm
• 흰색, 노랑, 연분홍, 진분홍

광명진언
할인가 1,200원(100권이상)
정 가 2,000원
• 크 기 : 12×18.5cm
• 내 지 : 80메트지(64p)

삼베 삼재풀이
할인가 800원(200개 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경면한지 불설삼재풀이
할인가 1,000원(200개 이상)
정 가 1,2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한지 삼재풀이
할인가 700원(200개 이상)
정 가 9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금강경탑다라니
할인가 180원(600개 이상)
정 가 25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인견한지]금강경탑다라니
할인가 400원(450개 이상)
정 가 6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신년맞이기도부
할인가 800원(200개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121068-56-042256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구멍없는 피리 불고 줄없는 거문고 탄 도인

경허 스님 수행 일화 ②·③

한번 앉아서 일을 마치다

계룡산 동학사에서 젊고 유능한 강사로 명망이 높은 경허 스님에게 수학하려고 밀려드는 학인들의 수는 나날이 많아져 갔다.

하지만 발심한 경허 스님은 강사를 그만두고 조용한 수도처를 찾았다. 이는 생사의 무상함을 깊이 느껴 장부의 대사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동학사에서 주장자와 발우를 거둔 뒤 스님이 찾은 수행처는 홍주 내포였다. 오늘날 충남 서산군 연암산에 있는 천장암(天藏庵)이다.

바랑을 풀고, 경허 스님은 마음껏 용맹 정진했다. 천장암은 학인 · 신도 등 누구도 찾지 않는 조용한 암자로 정진하기에는 다시 없는 곳이었다.

천장암서 누더기 입고 1년 장좌불와
숨쉬는 등신불 같던 용맹정진 끝에
심신 습기 조복받아 생사자재
행함 없고 한가로운 오도가 불러

경허 스님의 수행은 철저하기가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스님은 일반인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이 치열하게 수행했다. 스님은 솜을 덧대어 지은 누더기 한 벌을 입고 꼬박 1년 동안 장좌불와를 했다. 공양을 하거나 대소변을 보는 일 이외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좌선한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심지어 세수나 양치, 목욕하는 일까지 돌보지 않고 언제나 오직 앉아 있을 뿐이었다. 잠을 자기 위해 눕거나 벽에 기대는 일도 전혀 없었다. 숨쉬는 등신불과 같아 때로는 사람들이 절에 와 소란을 피워도 경계에 마음쏠림이 없었다.

스님이 1년간 면벽하는 동안 몸도 씻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아 땀에 찌든 누더기 옷과 머리에는 싸락눈이 내린 것처럼 이가 들끓었다. 이가 너무나 많아 마치 두부를 짠 비지를 온몸에 문질러 놓은 것처럼 허옇게 될 정도였다.

보다 못해 사람들이 새 옷을 수행방 밖에 가져다 놓고 '스님, 제발 옷 좀 갈아입으세요' 라고 통사정을 했지만 스님은 일체 용납하지 않았다.

경허 스님은 철저한 용맹 정진 속에서 안으로 일어나는 번뇌의 습성과 밖에서 오는 유혹의 경계에 동요되지 않는 마음과 몸의 습기(習機)를 조복 받았다. 스님은 생사에 자재 할 수 있는 경계에서 수행을 계속했다.

이와 같은 정진을 계속해 1년을 채운 날 경허 스님은 주장자를 문 밖에 내 던지고 입었던 옷을 활짝 벗어 던지며 쾌활한 노래를 불렀다.

다음은 경허 스님의 오도가다.

忽聞人語無鼻孔(홀문인어무비공)
頓覺三千是我家(돈각삼천시아가)
六月燕巖山下路(유월연암산하로)
野人無事太平歌(야인무사태평가)

홀연히 사람에게서 고삐 뚫을 구멍 없다는 말 듣고
삼천 대천 세계가 이 내 집임을 몰록 깨달았네
유월 연암산 아랫길에
들 사람 일이 없어 태평가를 부르네

확철대오한 경허 스님은 천장암에서 유유자적하며 낮에는 맑은 바람과 사귀고 밤에는 밝은 달과 벗하였다. 스님은 때로는 구멍 없는 피리를 불고 때로는 줄 없는 거문고를 타면서 무심삼매(無心三昧)에 든 일 없는 사람이었다. 또 행함이 없는 참사람이며 한가로운 도인이었다.

깨우친 경허 스님에 대한 일화다. 어느날 밤 만공 스님이 큰 방에 볼 일이 있어 호롱불을 들고 들어가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큰 뱀 한 마리가 경허 스님의 배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이었다.

만공 스님이 "스님 배 위에 뱀이 걸쳐 있습니다"고 말하자 경허 스님은 놀라지도 않고 그대로 누운 채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실컷 나와 놀다 가도록 내버려두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림 · 박구원

찌그러진 그릇 찌그러진대로 반듯

만공 스님이 도암(道巖; 만공 스님 속명) 행자로 처음 출가 입산해 동학사에서 전암 스님을 모실 때의 일이었다.

어느 날 석양의 해 그림자가 어두워질 무렵 큰 방 앞 마루에서 주장자 놓는 소리와 함께 앞문이 열리면서 우렁찬 목소리로 "객 문안 드립니다"하고 들어서는 스님이 있었다.

구척 장신의 거구 경허 스님이었다.

그날 동학사에서는 야간 법회가 있었다. 동학사

동학사 법회서 강주 스님이
"곧은 나무라야 쓸모 있다" 하자
경허 스님 법석 올라 말하기를
"삐뚠 것은 삐뚠 대로 곧은 것"

강주(講主) 스님이 "나무도 삐뚤어지지 않고 곧아야 쓸모가 있고, 그릇도 찌그러지지 않는 그릇이라야 쓸모가 있다. 사람도 마음이 불량하지 말고 착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설법을 통해 학인들의 정진을 당부하고 있었다.

이어 경허 스님이 법석에 올라 설법했다. "강주 스님이 말씀하기를 '반듯하고 정직해야 한다' 고 했으나 나는 그렇지 않다" 대중은 의아했다. 그도 잠시 경허 스님이 말을 이었다.

"삐뚤어진 나무는 삐뚤어진 대로 곧고 찌그러진 그릇은 찌그러진 대로 반듯하며, 불량하고 성실치 못한 사람은 그대로 착하고 성실함이 있느니라."

행자였던 만공 스님의 마음에 경허 스님의 말씀은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때부터 만공 스님은 경허 스님을 존경하고 따르게 됐다고 전한다.

구성=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각 ₩15,000원 규격 : 약 14cm(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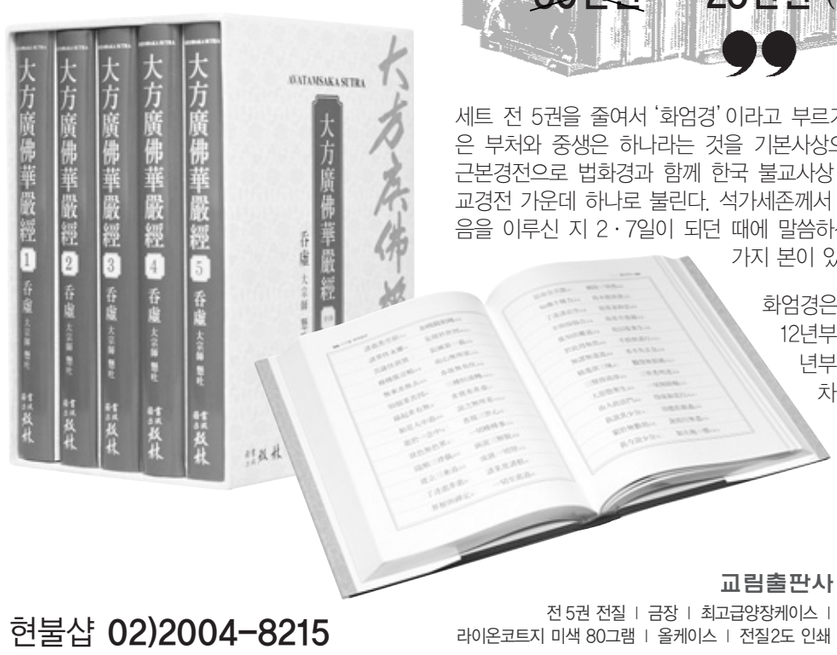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특별판매



현불샵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100질 한정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 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 · 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 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 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질 | 금장 | 최고급양장케이스 | 라이온코트지 미색 80그램 | 올케이스 | 전질2도 인쇄

현불샵 02)2004-8215

병풍 같은 산에 매화나무 심어 꽃천지를

청매실농원 홍쌍리 선생 (하)


청매실농원 홍쌍리 선생은 〈짚 한 오라기의 혁명〉을 펴낸 후쿠오카 마사노부를 찾아 '흙이 밥이고 매실이 뱃속 청소기'라는걸 깨우친 뒤, 3만평에 60종이 넘는 먹을거리를 심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일이다. 광양시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청매실농원에 가실 테니 헬기 앉을 자리를 만들라고 했다. 홍쌍리 선생(70)은 전시관 앞 비탈에 흙과 돌을 트럭 3700대 분이나 부어 메웠다. 지금 장독대 자리다. 공사를 마치고 나니까 법정 스님이 오셨다. 스님은 "잘 했다. 이제 턱이 있어 됐다"며 "돈 많이 들었지? 빚 많이 졌지? 그래도 앞으로 괜찮을 것이다"고 했다.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느냐는 선생 말에 "그땐 보살이 빚에 깔려 죽을 판인데 그 소리를 어찌하겠나"고 말씀했다. 그때 전시장 올라가는 왼쪽 축대도 새로 쌓았다. 스님은 축대 위에다 항아리를 한 줄로 나란히 놓으라고 일렀다. "그 뒤에 웬 스님이 한 분 오셔서 누가 저렇게 항아리를 일자로 놓으라고 했느냐고 물어요. '법정 스님이요.' 그랬더니 무릎을 치는 기라. 햇빛나면 항아리가 얼마나 번쩍거립니까? 그 스님이 용비늘이 번쩍거린다고 하더군요."

법정 스님은 섬진강 건너 산을 가리키면서 저 앞산을 봐라. 수놈 학이고 이 뒷산은 암놈 학이다. 암컷이 부화하려고 알을 품고 앉았는데 수컷이 섬진강 먹이를 끝없이 물어다 준다. 그러니 이곳에 집을 2층보다 더 올리지는 마라. 3층 높이로 지어버리면 알이 부화가 되지 않고 썩는다고 말씀했다. "평생 잊히지 않는 기라예."

장독대 아래 집을 짓는데 집 골조가 장독대보다 더 올라왔다. 마침 그때 법정 스님이 오셨다. 차를 대어 놓고는 건물 골조가 솟아 있는 걸 보시더니 두 말도 하지 않고 도로 차에 오르셨다. 느닷없는 스님 모습에 당황한 선생이 쫓아가서 차 문고리를 잡으며 다급하게 외쳤다. "스님! 와예? 하니까. 내리시더니 아따, 눈에 불이 번쩍이시면서 '저 건물 누가 지으랬어!' 아이고, 너무너무 화를 내세요. '생각 해봐라. 코앞에 키 큰 사람이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내가 그러지 않았나, 지어도 2층이 넘게는 짓지 말라고. 어쩌자고 저렇게 큰 건물을…' 스님이 말을 잇지 못하셔예. 그걸 뜯어내는데 5000만원도 더 들었어요. 그나마 지붕도 안 덮고 뼈대만 세워놨을 때니까 망정이지. 뒤에 오셔서 '이제 됐다' 그러시더라고. 스님은 좋은 말씀을 하셔도 부드러운 인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화가 나시니까 무섭데예."

임권택 감독이 100번 째 영화, 〈천년학〉을 청매실농원에서 찍으려고 하니 초가집을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초가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스님 좀 봐주시지요? 말씀드렸더니 온 산을 두루 둘러보시고는 '보살, 여기 용이 여의주를 물려고 입을 벌리고 있네. 이게 용목이고, 여기가 용배고, 용꼬리니까 이곳에 집을 앉히면 누가 와서 하룻밤 자더라도 몸과 마음이 편할 것이다' 고 하셔서 그대로 집을 앉혔지요."

"친정아버지가 나를 국문학과를 보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워하다가도 내를 공부시키지 않아서 다행이다. 공부를 시켰더라면 흙을 일구는 농사꾼이 되지 못했을 테고, '밥상이 약상' 이라는 걸 몰랐을 텐데요." 농사는 작품이지 돈이 아니라며, 농부라서 행복하다는 홍쌍리 선생(70). 한 해 김장을 배추 5000포기나 담는다. "우리는 1500포기쯤 먹고 나머지는 장애자들, 엄마 · 아버지 없는 아이들, 자식 없는 노인네들과 나누지요. 김장할 때보다 배추 가꿀 때가 더 힘들어요. 배추 포기 안은 파란 벌갱이가 먹고 바깥은 달팽이가 먹어요. 다닥다닥 붙어 있는 달팽이한테 '달팽아 맛있나? 니도 먹고 나도 먹자. 니가 조금만 먹는다면 잡지 않을 게. 나는 식구가 많으니까. 이 어미 힘이 들어' 그러지요. 나눠먹어야지요. 벌갱이가 먹지 않으면 사람도 먹어선 안 돼요." 가꾼다는 말은 본디 몸을 매만지거나 꾸민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채소나 곡식도 가꾼다. 땅을 걸구는 데부터 정성을 쏟아 마치 아이를 쓰다듬고 어르듯 한다. 개화기 기독교 선교사 게일은 우리 밭농사를 가리켜 '농사가 아니라 원예園藝' 라고 했다.

"요새 웰빙이니 친환경농법이니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옛날 우리조상님들이 짓던 농사나 음식이 가장 좋아요. 길은 새로 난 고속도로가 좋지만, 농사를 짓든 먹든 거꾸로 가라. 먹던 대로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전쟁에서 2등하면 나라가 없는데, 농사라도 왜 2등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땅 살리고 풀 살리고 사람 살리는, '밥상을 약상' 으로 만들 것인가, 땅 죽이고 풀 죽이고 사람 죽이는, '환자 상' 을 만들 것인가. 많이 아프다보니까 그게 화두였어요." 선생은 29살 때 자궁내막염으로 수술을 두 번이나 했다. 또, 류머티즘으로 밥을 떠먹지 못하고 머리도 감지 못했고 목욕도 할 수 없었다. 팔과 다리 허리를 구부릴 수 없어서. 견디다 못해 자연농법 효시로 〈짚 한 오라기의 혁명〉을 펴낸 후쿠오카 마사노부를 찾아가 '흙이 밥이고 매실이 뱃속 청소기' 란 걸 깨우쳤다. 온전히 우리조상님들이 짓는 농사법대로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선생은, 3만 평에 예순 종이 넘는 야생화를 모두 먹을거리로만 심었다. 산에서 일하다 내려오면서 이것저것 뜯어 그냥 나물도 해먹고, 데쳐도 먹고, 겉절이도 해먹고, 매실된장에 쌈도 싸먹곤 했다.

암컷 학이 부화하려고 알을 품고 앉았는데 수컷이 섬진강 먹이를 끝없이 물어다 준다

"류머티즘은 낫지 않는다고들 해요. 그런데 쑥뜸하고 매실 농축액으로 싹 나았어요. 맵고 · 짜고 · 시고 · 떫고 · 쓴 오미오색이 다 담긴, 산에 난 풀이란 풀이파리들을 다 뜯어다가 채로 쓸고, 10가지가 넘는 곡식 가루 세 숟가락, 매실원액 세 숟가락을 10년 묵은 간장으로 간을 하고 참깨는 볶아서 빻은 걸 뿌려서 김에다 싸먹었어요. 국을 먹어야할 때는 다시마 무 표고버섯 두부나 콩나물을 넣고 된장에 멸치는 넣지 않고 끓여 먹었어요. 쑥뜸을 뜰 때 멸치를 먹고 뜨니까 가려워서 끊임없이 긁어대니 피도 나고 못 견디겠더군요. 그때 멸치도 단백질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가장 좋은 게 미역이에요. 미역은 10년 묵은 간장에 참기름 조금 넣고 자글자글 볶아놓으면 기름이 안 뜨고 뽀얗게 돼요." 석 달 열흘씩, 세 해 동안 다섯 번 단식을 하고 나니 73kg이 나가던 몸무게가 53kg이 되었다. 그전엔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사람 얼굴이 둘 셋으로 겹쳐 어른어른해서 잘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 뒤로 칠순을 앞둔 이제까지 안경 쓰지 않고도 저녁에 신문도 잘 본다.

농사를 짓든 먹든 거꾸로 가라. 땅 살리고 풀 살리고 사람 살리는, 밥상을 약상으로 만들어야

스님이 편찮다는 소식을 들은 선생은 강원도로 제주도로 반찬을 해서 보내고, 허파에 좋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다 해서 보내드렸다. "폐에 좋다는 뿌리, 잎, 꽃잎, 열매를 두루 고아 조청을 만들고 반찬은 일고여덟 가지를 했어요. 폐에 수수가 좋거든요. 그래서 수수조청도 만들어서 함께 보냈어요. 그걸 받으시고는 하루는 스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날이 따뜻해지면 초가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불일암으로 가마. 누가 이렇게 늘 정성스레 만든 반찬을 꾸준히 보내겠나. 보살 편지를 받아들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하시며 고맙다고."

법정 스님은 치료를 받으러 미국 병원에 다녀오시고 나서, 선생에게 길상사에 한번 다녀가라고 했다. "딸내미하고 같이 갔는데, 행지실 문을 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앉아서 들어갈 틈도 없더라고요. 열고 들어가니까. 스님이 그 먼데서 왔네. 그러시면서 사람들 뒤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가운데로 오라케요. 옆에 가서 앉으니까 스님이 차를 따라 주면서 '보살, 이 떡 맛있어' 그러시곤 내 손을 덥석 쥐고 치켜드는 거라. 그 많은 이들 앞에서. 이 보살님 손 한번 보라고. '내가 한 마디 하면 둘, 셋을 하는 보살님이다 내가 뭐라고도 많이 했지만, 그 말을 믿고 이제까지 신통하게 잘 해왔다. 다른데 가서 똑같이 시켜도 잘 따르지 않더라. 이 손 좀 보라' 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한 번 씩 다 가봐라. 어찌 해놓고 사는지를.' 민망해서 혼났어요. 너무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니까. 사람들이 모두 어떤 부모가 저렇게 말해주겠느냐고 그러더군요. 비행기 시간이 다되어서 가겠다고 일어나니까. 스님이 사리 문밖까지 나오셔서 조심히 가라면서 손을 꼬옥 잡으셨어요."







생전의 법정 스님은 홍쌍리 선생으로 하여금 지금의 청매실농원을 이루기까지 많은 조언을 했다. 스님은 홍쌍리 선생을 "내가 한마디하면 둘, 셋을 하는 보살이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선생도 스님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게 있다고 아쉬워한다. 스님이 오시면 늘 앉아 섬진강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곳이 있었다. 어느 날 스님은 여기에 자그마한 암자를 하나 지어서 기도를 하면 보살님 몸과 마음이 편안할 것이라고 말씀했다. "내가 '너무 좁아서요.'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서 기도할 건데 좁으면 어떤데.' 그러셨어요. 벌써 한 20년 됐어요. 터만 다듬어 놓은 채로 아직 그대 있어요."

2008년 제주도로 요양을 가시기 전, 법정 스님은 선생에게 전화를 걸어 느닷없이 광양시장을 모셔 놓으라고 했다. 스님은 시장보다 한 시간 앞에 오셔서 산을 다 둘러보고는 곱게 핀 꽃을 보면서, 매화나무 몇 그루를 길상사로 옮겨 심어달라고 했다. 농원을 한 바퀴 쭉 둘러본 스님은 예전과는 달리 숨이 가빠하셨다. "그때는 왜 나는 멍청이 같이 힘들어서 그러시는 걸 몰랐을까요." 스님은 20년씩 넘은 동백이 있는 동백산에 좀 가보자고 했다. 그곳에서도 당신 마음에 드는 동백나무를 골라 끈으로 묶고는 길상사에 심어달라고 했다. 선생은 스님 뜻에 따라 동백나무 다섯 그루, 매화나무 다섯 그루를 길상사에 옮겨 심었다.

"스님은 하얀 땅콩죽에 백김치를 좋아하셨어요. 하얀 땅콩죽에 하얀 김치를 놓고 스님이 하얀 티셔츠를 입고 드시면 마치 외로운 학 한 마리가 앉아서 밥을 먹는 모습이에요." 밥을 드시고 난 법정 스님은 "보살님이 그동안 고생을 너무했으니 시장님이 많이 도와주세요"하고 광양시장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너무 놀랐어요. 그런 말씀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코미디언 백남봉 씨는 "청매실농원아, 번개춤 춰라! 하동이 돈 벌꾸마?" 그랬단다. 3월 매화 축제를 하게 되면 청매실농원에 와서 꽃을 보고 즐기지만, 먹고 자는 일은 하동에서 다 한다는 얘기를 빗대서 한 말이다. 하동뿐 아니라 청매실농원이 있는 다압면은 물론이고, 머지않은 구례까지 매화 덕을 톡톡히 본다. "다른 축제는 10일이나 길어야 14일쯤 하는데 여기는 30일이거든요. 꽃이 낮은데서 피기 시작해서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피니까요. 하동 사람들 한 해 소득이 매화꽃 축제 때가 으뜸이라니까, 자고 일어나면 청매실농원 쪽으로 절 한 자리하고 아침밥을 짓는 사람들도 있대요. 우리 다압면 사람들은 온갖 잡곡이나 말려놓은 채소들을 우리 집 앞에 와서 다 팔아요. 논 천 평 농사짓는 것보다 여기 와서 한 달 파는 소득이 더 많다고 해요. 다 같이 살아야 하니까, 다른 곳에서 온 잡상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경호원들을 삼교대를 시켜요. 잡상인이 밤중에 들어올지 새벽에 들어올지 모르니까."

스님 하필이면
이 봄날에 가셨습니까
매화꽃이 스님을 얼마나 기다리는데
부디 저 세상에서 건강히…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청매실농원은 농원이 아니라 공원이라고. 법정 스님은 병풍 같은 산에 매화나무를 심어 마을 사람들은 살림이 넉넉해지고, 메마른 도시 사람들에게 안식을 찾게 하는 '꽃천지 마스터플랜'을 세우시고 홍쌍리 선생은 그 꿈을 실현했다.

스님! 하필이면 이 봄날에 가셨습니까? 매화가 피는. 매화꽃이 스님을 뵙고 싶어 어찌 살라고. 봄이 오면 매화꽃이 스님을 얼마나 기다리는데. … 하얀 매화꽃 저고리, 스님이 앉아 계시던 파란 보리치마… 지금도 보릿잎이 스님 온기를 기다리고 있네요. …스님, 부디 저 세상에서는 아프지 마시고 건강히 글 많이 쓰십시오.

아름다운 농사꾼이 올립니다.

엄마 품처럼 푸근히 보듬어 주는 고향 같은 농민이고 싶다는 홍쌍리 선생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도종환 시인이 쓴 '꽃잎 인연'이 떠올랐다. 법정 스님과 홍쌍리 선생, 두 어른이 일군 천국을 누리는 모든 이들이 꽃잎 인연이기에.

몸끝을 스치고 간 이는 몇이었을까
마음을 흔들고 간 이는 몇이었을까
……
가지 끝에 모여와 주는
오늘 저 수천 개 꽃잎도
때가 되면 비오고 바람 불어
속절없이 흩어지리
……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고
헤어지는 일도
빗발과 꽃나무들 만나고
헤어지는 일과 같으리.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랑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아직 여기에 있는가



동국대 선학과 교수

강보에 싸여 나비잠을 자고 있는 아이의 모습에서 편안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누구나 그 시절이 있었건만 인간은 왜 누가 앗아가지 않은 그 편안함을 잃었을까. 우리가 정작 아쉽고 그리운 것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진한 향수가 아닐까 한다.

거리에 있다 보면 분주히 걷고 있는 행인을 본다. 그들에게서 편안함이나 여유란 별반 찾아보기 힘들다. 무엇에 홀린 듯 마냥 앞으로만 달려간다. 앞은 오직 서성거림이 주관하는 세계다. 앞은 경쟁이 치성한 세계이기도 하다. 반면에 뒤는 여유가 있고, 느긋하게 관조할 수 있는 세계이기도 하다. 우리는 왜 앞에만 길들여져 있고 그 좋은 뒤는 낯설고 패자의 세계라고 치부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 항시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은 걸인의 동냥주머니 마냥 허기를 채우기가 힘들어 진다.

경이로움은 생성과 소멸에서만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경이로움은 실험실에서나 일어나는 형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주변의 일상생활에서나 혹은 자신에게서 쉼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누구나 매일 사용하고 있는 비누를 보자. 사용하다 보면 많은 비눗방울이 일어났다가 이내 사라진다. 비눗방울의 생성과 소멸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 상황을 경이로움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이웃집에 아이가 탄생했다' 던가 '열심히 노력해 신분상승을 했다'는 사실도 경이로움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나와는 별반 관계없는 일인 양 지나치고 만다.

육신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경험도 빼놓을 수 없다. 노화라는 것이다. 노화는 사념(思念)의 대상이 아니라 기적과 같은 것이다. 어제의 검은 머리가 반백으로 반백에서 백발이 되어가는 현상은 분명이 기적임에 틀림없다. 보폭을 넓혀도 민첩했던 걸음걸이가 세월의 무게에 눌려 지팡이에 의지하거나 아니면 히뜩거리고 마는 것도 경이로움이다. 이러한 현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순응이란 이러한 현상을 받아들이는데 합당한 말이 아닐까 한다.

농부는 장마에 대비해 논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편비내를 서두른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방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외부의 유혹이 엄습해도 방어할 태세를 갖추려 하지도 않는다. 임시변통으로 순간순간을 모면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다.

임제 선사에게는 아주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선사는 이렇게 묻곤 했다.

"임제, 자네 아직 여기에 있는가?"

그러면 제자들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스승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입니까?"

"나는 언젠가 이런 대답이 나오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아니, 존재계만 있을 뿐 임제는 없다네.' "

인간은 의식이 도달 할 수 있는 궁극의 정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어두운 길목을 배회하는 나그네이다. 임제 선사는 바로 이러한 점에 철저한 자기점검이 따랐던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철저하게 무관심해야 한다.

사무량심 가운데 사가 있다. '버릴 사(捨)'라는 말은 말처럼 쉽지 않다. 범어로 'upeksha'라고 하는데 '간과하다' '무관심하다'는 뜻이다. 사념과 사념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면서 사념에 전해지던 모든 에너지가 차단돼 결국 마음의 평정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마음에 대해서 무관심해진다는 말이다.

임제 선사가 매일 아침 일어나
"임제, 자네 아직 여기 있는가"
묻고 또 물은 까닭은
철저한 무심 · 자기점검 까닭

어느 날 한 남자가 에머슨(Emerson)에게 물었다.

"당신은 몇 살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거의 삼백육십 살쯤 되었지요."

남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에머슨은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믿어 왔는데,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의아했다.

"믿을 수 없네요. 당신은 겨우 육십 살 정도로 보이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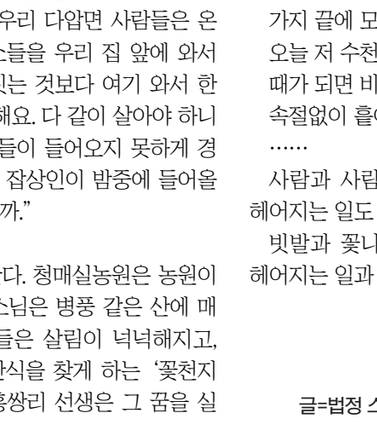
"나는 육십 년을 살았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아요. 하지만 나의 육십 년은 남들의 삼백육십 년 보다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나는 여섯 배나 더 강한 삶을 살아온 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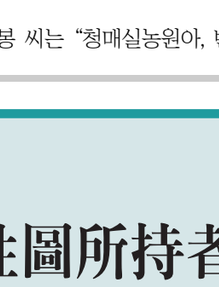
x축이 수평이고 y축이 수직이라면 수평선상에서는 관능과 온갖 욕심과 시기 질투를 어리장수마냥 고되게 지고 가는 것이고, 수직선상은 진리에 대한 탐구와 삶에 대한 탐구로 가득한 것이다. 수직선상에서는 숫자로 나이를 세지 않고 경험으로 나이를 센다. 경험이란 신성한 체험을 말한다. 신성한 체험은 미움이 전혀 없는 순수함 자체이다. 휴화산이 활화산이 되어 용암이 솟구치는 그런 현상, 그것은 경이로운 깨달음의 세계의 현상이다.

특허등록(30-0607637)

法性圖所持者成就一切萬法消滅一切諸障碍

법성도는 心지요체 정법입니다.
혹 方便으로 사용하고있는 符籍보다는
천만배 이상 靈驗과 隨乘한 공덕이 있습니다.
회화나무 꽃으로 수제품 딱종이에 염색한
槐黃紙에 鏡面朱砂로만 특수 제작하여
불자님들께 護身
(휴대)용으로 염가 普及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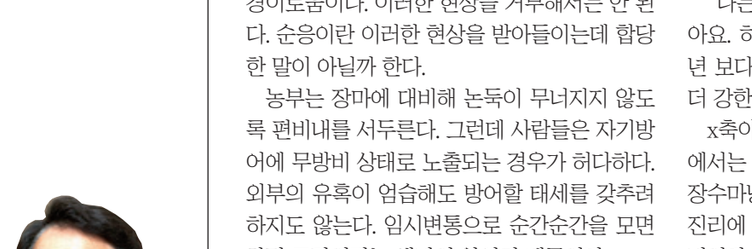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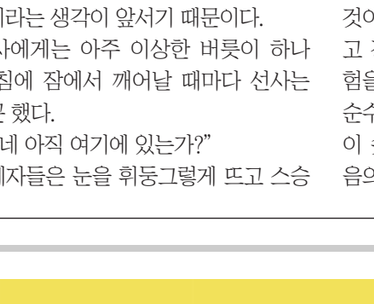
호신용 액자용 부처님 점안 복장용
윤달 예수제용 등 주문제작합니다
槐黃紙 원지 판매합니다.

법성원 : 051)532-1113 / 010-8258-9963 홈페이지 : www.bswon.com
은행계좌.837026-56-062884 농협 이상경 / 전국 유명불교 용품점에서도 구입가능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원터치 고리용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인등)
소원성취
및 사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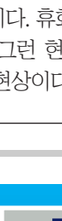
불제새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건전지용 초(정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노랑·빨강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관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불교가 우리 사회에 접근해 가는 변화의 상징

생활불교, 실천불교의 탑주심인당

진각종 법당은 심인당으로
금당법계 비로자나궁전으로도 불려
불상을 모시지 않은 까닭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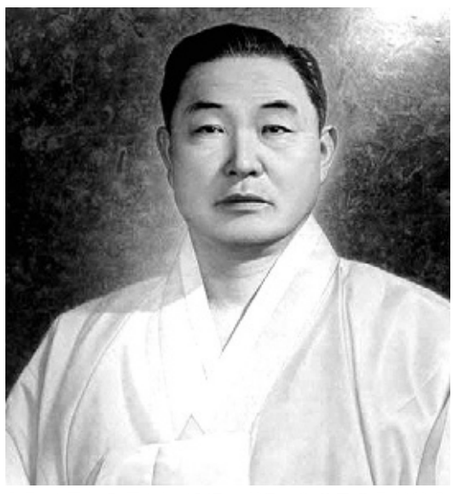

서울 하월곡동에 자리한 진각종 탑주심인당. 심인당은 자신의 마음을 찾는 곳으로 심인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뜻한다.

불교는 부처님이 가르쳐준 것을 실천해 깨달음을 얻는 종교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모습은 사라지고 불상을 보고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모습이 됐다. 그런 신행생활이 지속되다 보니 불상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가 됐다. 중생심은 또 불상을 분별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느 곳이 기도처로 영험하다는 세간의 이야기가 생겼다.

불교에서 불상은 무엇인가? 불상은 예전 깨달았던 부처님의 모습을 중생들에게 소개하는 모델이다. 수천 년 전 진리와 일체가 되는 삶을 산 성인이 있으니 본받자고 만든 것이다. 그런데 본받을 생각은 안 하고 불상 앞에 와서 빌기만 한다. 그 길이 힘들기 때문에 쉽게 복을 비는 신앙으로 치우친 것임을 알지만 불상이 불교의 전부로 생각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불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은 절대자에게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고 이미 구원돼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 우리의 존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자기 속에 구비돼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욕심에 눈이 가리어 물질만능에 휘말리면 암흑세계를 헤매는 비극으로 이어지지만, 본모습에 덮여있는 먼지를 없애면 찬란한 구슬의 본성이 빛나게 된다. 그런 무명을 없애 깨달음을 얻자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지하철 6호선 월곡역 3번 출구로 나와 300m쯤 걸으면 웅장한 건물 하나가 보인다. 3층탑 모양인데 예사스럽지 않다. 전통 사찰양식과 다른 모습을 한 대한불교진각종의 문화전승관이다. 전승관 옆으로 진각종 수행도량인 탑주심인당이 있다. 진각종에서는 대적광전, 대웅전과 달리 심인당(心印堂)이라 한 것은 불교의 법당이 자신의 마음을 찾는 곳이기 때문이다. 심인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그것은 사물을 보고 '좋다', '나쁘다'라고 느끼는 일상의 마음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마음이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스승과 제자가 서로 이어받아 법통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그런 의미 이외에도 심인에는 진언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결한 마음의 진언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런 심인은 나에게 있는 마음이 부처님이란 의미를 상징한다.


회당 손규상 대종사는 1947년 육자진언으로 깨달음을 얻은 뒤 진각종을 세웠다.

진각종은 1947년 6월 14일 회당 대종사 손규상에 의해 세워졌다. 1902년 5월 10일 울릉도에서 태어난 그는 36세가 되던 1937년 장남이 세상을 떠나자 신앙심이 돈독한 어머님의 권유에 따라 불교에 귀의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삶의 계기가 돼 깨달음을 구하는 생활로 일관했다. 이후 10년 동안 불법의 체득에 심신을 바친 결과 1947년 5월 16일 경북 달성군 성서면 농림촌에서 육자진언(六字眞言)을 통해 불법의 진리를 깨달았다.

진리를 깨달은 대종사는 46세가 되던 1947년 6월 14일부터 교화를 시작했다. 처음 도량의 명칭은 참회원(懺悔園)이었다. 대종사는 진리의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이 최고라고 하는 번뇌에서 벗어나 참다운 자신을 찾는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자신을 철저하게 발견할 수 있는 '참회'를 강조했다. 자신의 허물을 진정으로 참회해 자신의 참모습이 드러나면 자신과 모든 만물과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고 그때서야 자신이 모든 만물로부터 은혜를 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 후 1953년에 참회원의 명칭을 대한불교진각종으로 바꾸면서 한국 밀교의 중흥을 표방했다.

심인당에 가면 여느 사찰과 달리 불상이 없다. 불상이 없는 것은 심인당은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곳이고, 마음이 부처이므로 그곳이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법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각종에서는 심인당을 금강법계 비로자나궁전이라 한다. 궁전의 중앙에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동방에 아축불, 남방에 보생불, 서방에 아미타불, 북방에 성취불이 계신 법의 세계를 의미하므로 불상을 모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곳에서 수행할 때는 단순한 기복적인 신앙보다는 내 마음을 알고 그것을 고치고 바르게 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먼저 마음을 밝히고 고치면 오히려 중생들의 근심도 사라지고 물질적인 생활이 넉넉해지기 때문이다.

처음 심인당에 오는 사람들은 심인당의 외형이 일반적으로 보아 오던 사찰과 다른 것을 보고는 매우 의아해 한다. 외형이 다른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분별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찰의 양식은 목재가 우리의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로 쓰일 때 지어진 것이다. 자연히 그 역사가 오래돼 우리의 눈에 익숙하게 됐다. 그리고 그 건물에 여러 가지 색을 칠해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우리들에게 익숙하다 보니 사찰은 기와집에 단청이라는 생각이 고정됐다. 이런 잠재된 의식으로 심인당을 보면 사찰과 다른 양식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심인당 역시 건축양식에서 보면 전통양식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심인당의 양식은 팔작지붕과 우진각지붕이 합쳐진 우산각지붕이라 해서 새롭게 시도된 양식이다. 단청이 없고 현대식 구조를 하고 있어 생소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도심포교의 새로운 건축양식으로 자리할 수 있다. 우리가 처음 상투를 짜르고 서양식의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나라가 망했다고 한탄했다. 그런데 지금은 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다. 명절에도 점점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건물도 그와 같은 흐름을 지니고 있다. 산과 강이 조화를 이루는 곳은 전통양식의 건물이 아름답고 정취 있게 보인다. 그렇지만 현대처럼 빌딩 사이에 어울리는 건축양식이 아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는 그 시대에 맞는 건축양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심인당의 외형은 불교가 우리 사회에 접근해 가는 새로운 변화로 보면 좋을 것 같다.

심인당의 특징은 도심에 있다는 점이다. 보통 불교하면 산 속에 있는 사찰과 그 곳에서 울리는 종소리나 풍경소리를 생각한다. 사실 그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익숙한 탓이다. 부처님은 오히려 수행도량은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심인당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회당 대종사의 깨달음과 교화의 행적에 관련이 깊다. 회당 대종사는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찾았고, 그것을 주위 분들에게 가르치면서 교화가 이루어졌다.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도심 속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교화의 도량인 심인당도 도심 속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심인당이 도심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회당 대종사가 제시한 생활불교, 실천불교의 실천 때문이기도 하다. 대종사는 기존 불교의 장점과 단점을 검토하고 그 한계를 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그것은 기존 불교의 수행 공간 용어 그리고 의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확연히 다른 불교의 모습을 제안한 것이다.

생활불교는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맞는 새로운 불교신앙을 세우는 일이다. 불교는 전문 수행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쉽게 접근될 수 있도록 쉬워야 한다. 중생들이 단순히 수행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수동체가 아니라 스스로 불교를 알고 행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를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려면 수행도량이 멀리 있어서는 안 된다. 산 속의 사찰처럼 멀리 떨어져 어쩌다가 찾아가는 그런 도량이라면 생활불교로서의 성격보다는 기복적인 성격이 강해질 수 있다.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신앙은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라지게 한다. 현실 세계를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임을 확인시켜 준다. 그런 현실적인 불교관이 사회적인 실천으로 강조된 것이 실천불교이다. 이것은 개개인이 긍정적 사고를 지닌 다음 그 역량이 사회적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개인보다 사회유지에 우선순위를 두어 개인적 욕심에 의해 공동 사회의 일이 방해받아서는 안 되며, 공적인 법칙을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들을 경계한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폐단의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으며, 그것을 없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불교실천의 본질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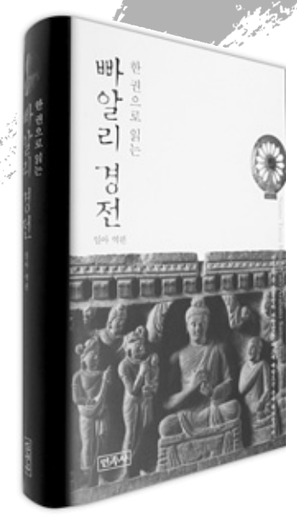

김경집/진각대 교수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어려운 삶을 사는 모든 이들에게
위안과 평화와 행복을 선물합니다.

'빠알리어'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언어이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언어 그대로 전승되다가 쓰여진 경전이 빠알리 경전이다.

이 책은 요약이 아니다.
중요한 경전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철저히 저자의 개인적인 첨가를 배제했다.



| 책의 특징 |

1. 불교의 근본 경전인 빠알리 대장경의 다섯 니까야와 율장에서 선별하여 한 권으로 엮었다.
2. 교리별, 주제별로 분류하여 공부하고 가르칠수 있도록 하였다.
3. 부처님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내용을 선별하였다.
4. 주석 없이도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번역하였지만 꼭 필요한 주석은 짧게 달아 번거롭지 않게 하였다.
5. 부록에 빠알리 경전과 연관된 내용/주제별로 자세하게 찾아보기와 고유명사와 낱말 찾아보기/부처님의 활동 지역과 아소까왕의 담마 사절단을 파견한 지역을 정리한 지도 등을 수록하여 이 한 권으로 빠알리 경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두루 갖추도록 하였다.

일아 역편 | 신국판 양장 | 752쪽 | 값 28,000원

당신의 마음은 몇 개인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만 번 이랬다저랬다 간사하게 변하는 마음의 정체는?,
내 마음은 어디에?, 이러한 궁금증을 파헤쳐 마음의 본체 탐구를 위한 책.



마음공부 첫걸음
| 유식 입문 |
마음은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
글 · 김명우
224쪽 | 값 9,000원

불자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연말연시 맞춤선물
불교의 모든 지식이 이 한 권에 다 들어 있다.
- 총 1,216쪽, 4,950여 항목을 수록했다.
- 각 단어에 대한 설명이 상세 · 명확 · 풍부하다.
- 영어 세대를 위해 각 단어의 개념을 영어로 요약 표기했다.
- 콘사이스판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
- 크기는 작지만 내용은 백과사전 못지않게 풍부하다.



김승동 편저 | 1,216쪽 | 4,950여 개 항목 수록 | 고급 양장 | 값 38,000원

민족사 |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 전화: 02-732-2403~4 · 팩스: 02-739-7565 · 홈페이지: www.minjoksa.org · 이메일: minjoksa@chol.com ·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탐욕을 끊어 버리기 위해서요,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성내지 말아야 할 것이니 증오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요, 현혹하는 말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어리석음을 끊어 버리기 위해서이다. - 잡아함경 -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찰스님 20%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2012년 나가는 삼재조심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묵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스님 20%할인)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사찰이미지 200% UP! 사찰이벤트?

이제는 사찰도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사찰이벤트와 만나십시오

신도에게는 말씀의 감명을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法 법과 果



법과활용(Application)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법과란? (Buddha Cooki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또한,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하고 전자동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고급 식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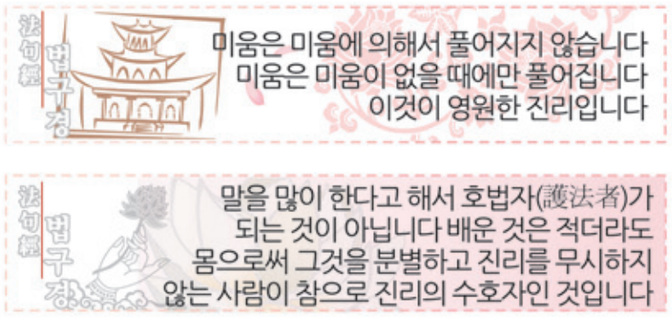
법과 이벤트(Event)

'법과(法果)'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감명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이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앞면 – 사찰안내 또는 행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뒷면 – 현대어로 재편집된 생활법구경이 들어갑니다



※ 500개 이상부터 주문가능하며 원하시는 이미지 / 문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법과 문의
TEL : 02)2004-8216
FAX : 02) 737-069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밝은 달 보니 놀라서 짖어대네

오동폐월도(梧桐吠月圖)


오동폐월도(심전 안중식 作)

오동폐월도는 오동나무 가지 위에 높이 걸린 밝은 달을 보고, 놀라 짖어대는 개를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은 촉견폐월(蜀犬吠月)에서 유래했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 나오는 유비(劉備)가 제갈공명과 함께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자리잡은 중국 사천성(四川省)은 촉나라 땅이었다.

이 지역은 중국 중부 양자강 상류 사천분지와 티베트고원 동부에 걸친 곳으로 예전부터 기후가 따뜻해 비가 많이 내리고, 높고 험준한 산이 많은데다, 날이 흐린 날이 많아서 달을 보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다. 그래서 가끔 밝은 달이 높이 뜨면, 민가의 개들이 놀라서 짖었다는 고사(故事)에서 나온 말이다.

근세 풍속화의 대가인 홍월헌(弘月軒) 김득신(金得臣)이나 심전(心田) 안중식(安中植)이 그린 개그림들이 유명하다. 영화 취화선(醉畵仙)에는 오원(吾園) 장승업(張承業)이 그린 그림을 화가인 김선두가 다시 모사해 그린 오동폐월도가 나온다.

오동폐월도 '촉견폐월'에서 유래
근세 풍속화에서 개[犬] 소재로 그려
홍월헌 · 김득신 · 안중식 그림 유명
개는 어리석기보다는 아상 강한 동물

이 촉견폐월이라는 고사성어는 어리석고 미욱한 중생이 어질고 덕있는 현자(賢者)를 욕하고 비난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개는 그리 어리석고 미욱하지만은 않다. 사실 개는 아상(我相)이 매우 강하다. 동물연구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키우는 개들의 10마리 중 4마리는 평생 자신들이 사람인 줄 알고 살다가 죽는다고 한다.

'동물농장'이라는 TV프로그램을 보면, 집안의 말썽꾸러기인 강아지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코너가 따로 있다. 거기 나오는 동물전문가의 훈육에 따라 개과천선(改過遷善)하는 개들을 보면, 감탄을 금치 못한다.

옛 경전에 의하면, 우리 주변의 동물들은 전생(前生)에 우리 친척이나 부모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일제시대 간행된 어느 신문에는 잘 만든 삼태기를 지게에 얹고, 거기에 집에서 키우던 암놈 진돗개를 업고, 묘향산 보현사를 탐방하는 경상도의 농부처사 일화가 나온 적이 있다.

경상도 지역 어느 시골에 제법 농사를 짓고 사는 이 농부의 집에 어느 여름에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 살았다. 5년 여를 함께 살았다는 이 암캉아지는 워낙 똑똑하고, 눈치가 있어서 집의 아기가 우물을 향해 기어가면 물어다가 툇마루에 놓고, 손님이나 친지가 아닌 사람이 사립문을 들어서면, 짖었다. 영리해서 식구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지냈다.

들어와 산지 5년이 다 된 어느 초복(初伏)이 다 된 여름에 마루에 누워 개를 쳐다보던 농부가 말했다. "올 여름에는 저 개xx를 잡아서 끓여 먹어야겠다." 그 말을 들은 개는 시골집 섬돌과 마루 사이 공간에 들어가서 밥도 먹지 않고 사흘을 꼬박 꿈쩍도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온 집안 식구들의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처럼 지팡이를 짚고, 낡은 두루마기를 입고, 찾아와서 눈물을 흘렸다. "너희들 엄마한테 잘 해드려라"하며 되돌아 떠나는 것 아닌가. 꿈이든 말든, 식구들이 아버지를 붙잡고, "도대체 어머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다. "툇마루 밑에 있다"하며 사라져 버렸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식구들이 모두 같은 꿈을 꾼 것을 알고, 툇마루 앞에 모여, '어머님 나오세요'를 외치니 암캐가 굶어서 힘없는 모습으로 설설 기어 나왔다.

식구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개에게 먹을 것을 주고 따스한 사랑방에 잠자리를 해주고, 살아생전 모친의 소원이던 금강산 유점사와 묘향산 보현사를 보여주려 길을 떠나는 모습이 그 신문에 실려 있었다 한다.

이런 일이 현실에 생기면, 전생(前生)과 윤회(輪廻)가 어찌 없다고 말할 수 있으랴! 인과(因果)는 분명해, 촘촘한 그물과 같아 새어나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비록 가족에 집착해 개로라도 태어나서 함께 사는 개의 어리석음을 비웃을 수는 있지만, 그 끈끈한 정(情)과 집착의 결과는 옷깃을 삼가 바로 잡게 한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수건 보다 108산사 염주 어때요?"

불교 액세서리 기업 '밈', 108디자인프로젝트 실시


김민지 대표(오른쪽)는 108개 사찰의 고유문화유산을 디자인한 펜던트와 염주를 만들어 해당 사찰에 판매할 계획이다.(오른쪽 상단부터) 낙산사 해수관음상, 약사사 석불 모형의 펜던트

불교 액세서리를 만드는 김민지 대표(28)는 2011년 1월 사회적기업인 '밈(mim, made in mind 이하 'mim')을 설립한 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108개 사찰의 고유 문화유산을 디자인한 펜던트와 염주를 만들어 해당사찰에 판매하는 '108디자인프로젝트'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현재 낙산사의 해수관음상, 약사사 대웅전 석불 등을 직원들과 손수 디자인하고 펜던트를 제작해 납품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문화유산의 80%가 불교문화인데 왜 그것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게 답답했어요."

김민지 대표는 사찰에서 수건이나 떡 등 사찰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물건을 행사 때 나눠주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냈다. 해당 사찰의 특성을 살린 문화재를 소재로 불교 액세서리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제일 쉬운 염주부터 만들어보자고 의견을 모았어요. 요즘 천연석 팔찌가 유행이거든요. 또 웬만한 불자들은 염주 하나씩은 다 차고 있잖아요. 지인들에게 선물하기에도 부담없고. 그래서 원을 세우고 108개 사찰 염주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는 "해당 사찰명을 새긴 상자에 염주의 의미와 사찰을 소개하는 설명서를 넣는 등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밈'은 2011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심플한 디자인의 펜던트와 목걸이, 귀고리, 반지 등 액세서리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출시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커플염주'는 대중의 반응이 좋다. 붉은 빛과 하늘빛의 터키석, 검정빛의 오닉스, 황옥, 옥색 등 보기만 해도 갖고 싶은 색상과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 제품명답게 연인 · 친구, 엄마와 아들, 아빠와 딸이 함께 함께 할 수 있게 한 것도 특징이다.

김민지 대표는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고 동국대 불교미술학과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했다. 한국문화에서 불교문화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변의 시선은 달랐다.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는 젊은이들에게는 그저 촌스럽고 후진 문화로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김 대표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다.

"고등학교 시절 부여박물관에 전시된 '백제금동대향로'를 본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인간문화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어요."

막연한 꿈을 갖고 미술학도의 길을 걸었던 김 대표는 2010년 6월 정토회 100일 출가를 했다. 정토회 대학생 작은 짜이집 봉사를 하면서 제3세계를 돕겠다던 생각은 사회적 기업을 구체화 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렇게 해서 '밈'이 탄생됐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지만 '밈'은 크게 '국내문화사업(사찰문화사업)'과 '해외문화사업(저개발국가 문화 보존 및 교류)'으로 나누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국내문화사업은 급속도로 이루어진 경제성장과 식민지 탄압 등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소외된 전통문화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김민지 대표는 "문화재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개발과 지원이 미비한 '사찰문화' 상품과 컨텐츠를 개발하고자 한다"며 "'MEDITATION PENDANT(메디테이션 펜던트)'가 개발된 '사찰문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테이션 펜던트는 한국 특유의 불교 사상(선불교 사상)을 스토리화 해 쥬얼리(목걸이 귀고리 반지 핸드폰고리)와 패션소품으로 상품화한 것이다.

이어 김 대표는 "사찰의 디자인경영 컨설팅과 문화행사를 기획하는 '사찰문화 꽃피우기'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얻어진 수익을 해외지역문화 '문화 상품'을 발굴하고 제작하는데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지 대표는 "처음엔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은 직원 월급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마음을 치유하는 불교 액세서리를 통해 불교문화재의 우수성과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www.minddesignmim.com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연꽃의 사계(四季) 정감 있게 표현

김창배 화백, '연꽃그림' 130여 점 담은 수묵화집 펴내



선묵화와 다묵화를 중점 연구하는 담원 김창배 화백이 130여 연꽃을 그려 〈마음의 거울 연꽃 - 수묵명상의 치유〉(솔과학 刊)라는 책을 펴냈다.

연꽃의 사계를 정감 있게 그려 낸 130여 컷의 수묵화와 더불어 연꽃에 스며든 삶의 철학과 사색을 오롯이 글로 엮어낸 아름다운 책이다.

"생명이 움 트는 봄이 오가고 빛의 계절 여름이 오면 향기로운 연꽃은 피기 시작합니다. 그 연꽃들의 삶을 하나하나 관조하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차(茶)에 흠뻑 빠져 다도(茶道)에 대한 그림을 연구하던 김창배 화백이 그림 주제를 연꽃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선 연꽃 핀 정원과 연못을 수없이 찾아다니며 설레임과 반가움을 만끽한다.

"한낮이 다 가도록 연꽃 향기와 대화를 나누는 즐거움, 자연의 소리를 듣고 싶거든 연당을 찾아가서 새소리, 곤충 소리, 맑은 바람 소리, 달빛이 내리는 소리, 연꽃 터지는 소리, 물 위에 반짝이는 햇살소리, 물속 물고기가 헤엄치는 소리를 듣던 것만으로 명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흠뻑 빠져 있는 것이 바로 명상의 시작입니다."

김 화백은 많은 시간 연꽃을 보며 수묵화로 표현했다.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배우며 세상 번뇌를 비울 수 있는 명상을 터득했다.

김창배 화백은 "앞만 보고 달려온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와 치유의 윤활유가 됐으면 한다"며 "무거운 번뇌를 털어 비우고,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지 독자들이 읽으며 살아가는 삶에 사유(思惟)의 시간을 가질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설도(한지수묵담채 2010년 作)

이나은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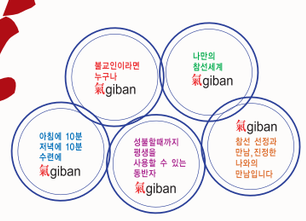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사직동 그 가게에 가면 티베트 볼 수 있다

티베트 수공예품 판매하는 공정무역가게 '사직도 그 가게' 탐방

서울 사직동 배화여대 방면으로 언덕길을 올라가다 보면 작은 카페 하나가 있다. 30년 동안 문방구였던 가게를 개조해 '사직동 그 가게'라고 손으로 직접 쓴 간판을 달고 손님을 맞는 곳이다. 가게 입구에는 얼기설기 나무판자로 짜놓은 가판대가 있고 그 위에는 중고책들을 판매하고 있다.

가게 안에는 학교에서 쓰는 의자와 테이블 서너개가 놓여있고 선반에는 스카프 지갑 헝겊주머니 등 알록달록한 수공예품들이 놓여있다. 그리고 커피, 허브티, 인도식 밀크티 짜이, 유기농샐러드, 가정식 인도요리 등을 판매하고 있다.

서울 한복판 주택가의 가정집이나 구멍가게를 개조해 카페를 차리는 것이 요새 유행이다. '사직동 그 가게'도 이국적 정취의 물건을 파는 여느 점포 가운데 하나로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곳은 티베트 난민들의 평화운동을 알리고 동참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소통의 공간이다.

티베트 난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 록빠

'사직동 그 가게'는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비정부기구인 '록빠(Rogpa)'에서 운영하는 카페다. 록빠는 티베트어로 '같은 길을 함께 가는 친구'라는 뜻으로 남현주씨가 설립해 티베트 난민들의 사회·경제·문화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록빠에서는 무료탁아소와 여성 수공예 작업장을 중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티베트 난민 부모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탁아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록빠 후원금 및 여러 가지 기금 마련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망명정부에서 여성들의 삶은 더욱 혹독하다. 그래서 탁아소 엄마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재봉틀 두 대를 놓고 수공예 작업장에서 가방 지갑 앞치마 팔찌 노트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들은 '사직동 그 가게'에서 판매되고 그 수익은 모두 록빠 활동을 위한 후원금에 쓰이게 된다. 한마디로 '사직동 그 가게'는 공정무역을 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여기서 파는 대부분은 수제품이에요. 직접 재배한 채소로 커리음식을 만들고 수제 초콜렛 포장 하나하나까지도 여기서 일하는 자원활동가들이 손으로 접어 만듭니다."

임태영 매니저는 '사직동 그 가게'가 홈메이드 방식을 추구한다고 강조한다.

문화를 나누는 소통의 공간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는 다양한 문화워크샵도 열린다.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티베트 문화를 이해하고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직동 그 가게'로 모인다. 티베트 인형 만들기, 팔찌 만들기, 멜로디 잔치, 인도 요리 워크샵, 핸드메이드 어린이 책 만들기, 면생리대 만들기 워크샵 등 신기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알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임태영 매니저는 "워크샵들은 록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기획됐다"며 "티베트 인형 나눔 모임은 다람살라에 있는 '록빠 여성작업장'에 새로운 제품 디자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사직동 그 가게가 신제품 개발실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록빠는 한국에서 '피스 티베트 팽창전'을 개최해 티베트 관련 다큐멘터리 상영, 전통 공연, 워크샵 등을 진행하고 있다. 1월 16일 '사직동 그 가게'에서는 인도 북부의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티벳 유목민의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목숨을 걸고 고산지대를 넘는 티벳 승려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Journey from Zanskar'를 상영하고 소감을 나누었다.

최근 록빠는 다람살라의 티베트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무료 탁아소에서 돌볼 수 없는 3~12세 미만의 아동들이 함께 모여 공부도 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직동 그 가게'에서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책과 기금마련을 위해 매주 일요일 '록빠 문화 프로그램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다. 워크샵을 통해 도서관에서 실행할 환경·평화·예술·지역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책과 기금마련을 위해 잡지를 간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임태영 매니저는 "티베트 난민의 삶을 지원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록빠 홈페이지에 가서 탁아소 및 작업장 운영을 위한 후원금을 내실 수도 있고, '사직동, 그 가게' 블로그에 공지하는 여러 자원 활동에 참여할 수있다"며 "무엇보다도 디자인이나, 음악, 각종 만들기 기술 등을 보유한 사람들의 '재능기부'를 환영한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무 때나 '사직동, 그 가게'에 방문하면 된다"고 말했다.

중국의 티베트 통치정책에 저항하는 티베트 승려들의 분신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매년 인도 다람살라의 티베트 자치구역으로 망명하려는 사람들은 3000여 명에 달하고 그 중 3분의 1은 어린이다. 티베트 문화를 지키기 위해 부모들은 아이들을 히말라야 너머로 보내고 있는 것이다.

'사직동 그 가게'는 우리나라에서의 작은 소비가 티베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공간이다. (070)4045-6331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직동 그 가게' 입구. 가판대에는 티베트 난민 어린이 도서관 운영을 위해 중고도서를 판매하고 있다.


카페 내부 모습. 티베트 여성이 만든 수공예품도 판매하고 있다.


직접재배한 채소로 만든 커리음식과 인도식 밀크티 '짜이'


설 세시풍속 중 하나인 '윷놀이'

국립민속博, 24일까지 임진년 설 축제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특별전도 열려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천진기)은 1월 24일까지 임진년 설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세시놀이 체험 ▷중국 춘절세시체험 ▷만들기 체험 ▷전통 연희공연 ▷세시 음식 맛보기 체험 ▷어린이와 함께하는 설 행사 등 7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행사는 온 가족이 참가할 수 있도록 '도전! 세시풍속 퀴즈왕', 윷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투호던지기, 세시음식 나누기, 복조리 나눠주기 등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설 행사에는 한중수교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중국 춘절(春節) 세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한 해의 길운을 점쳐보는 '첨시(簽詩)' 뽑기와 중국 겨울 별미인 '삥탕후루' 맛보기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도 다채로운 타악 공연이 3일간 진행된다. 22일에는 '퓨전 풍물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며 23일에는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임진년 신년맞이 큰 굿'이 열린다. 또 23일 박물관 앞마당에서는 평택농악보존회가 마당굿(지신밟기), 고사소리, 구정놀이 등 흥겨운 풍물향연을 펼친다. (02)3704-3121

이나은 기자

전시회 보고 복받으세요

동대 출신 작가 '2012 복 사세요' 展 31일까지


스카프_휘날리며(비통맨)_52X73cm장지에분채,금박_2011(한상윤 作)

새해가 되면 염원을 기원하는 부적처럼 호랑이 모란 복주머니 돼지 등의 그림을 찾는이가 많다. 이는 액을 쫓고 소망을 담은 그림들이다. 그림들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깃들여져 있다.

서울 재동 갤러리 에뽀끄에서는 1월 31일까지 새해맞이 기획전시 '2012년 복 사세요'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김근중 작가의 '모란 화원', 김민수 작가의 '민화', 김은진 작가의 '복 주머니', 이용애 작가의 '호랑이와 모란', 한상윤 작가의 '돼지'를 만나볼 수 있다.

호랑이는 호축삼재(虎逐三災)라 해 삼재(화재·수재·풍재)를 막아주고 지병과 기근 그리고 병란을 막는 의미가 있다. 이는 액운과 잡귀를 막아 준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모란은 화중지왕(花中之王)이라 해 꽃 중의 왕으로 불리며, 부귀를 뜻한다. 복 주머니는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 차고 다니는, 여러 길상무늬가 새겨진 주머니이다. 길상의 뜻을 지닌 수(壽), 복(福), 부(富), 귀(貴) 글자가 무늬처럼 수놓아져 있다. 장수를 기원하고, 만복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돼지는 재력과 부귀, 총명, 용맹, 승리들을 상징하며, 병을 물리치고, 길운을 가져온다고 믿었다. 재(財)와 부(富)를 자랑하며 현실을 긍정하는 길운(吉運)의 메신저인 것이다.

한상윤 작가는 돼지를 소재로 일본화 채색법으로 풍자적인 그림을 그린다. 장지에 아교 그리고 분채를 기본으로 화려한 색상과 다듬어지지 않은 자신감 넘치는 선(線)으로 재미있는 그림을 표현한다. 그는 돼지와 함께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힌 현대인을 나타내는 '루이비통' 로고를 소재로 사용해 '비통맨(돼지 슈퍼맨+루이비통=비통맨)'을 표현했다.

김근중 작가는 캔버스위에 무성한 모란꽃 밭을 그렸다. 붉은 꽃부터 푸른 꽃에 이르기까지 싱싱한 화원을 그려냈다. 모란 화원은 메시지가 강한 일종의 상징적 도상이다. 모란의 부귀는 곧 재산이 많고 신분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귀를 마다할 이는 없을 테니, 작가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모란을 통해 그려냈다.

호랑이 모란 복주머니 돼지
액운을 쫓고 복 가져와
한상윤 김은진 등 5인 작가
26점 작품 새해맞이 기획전 열어

김근중 작가의 모란은 올오버 페인팅처럼 화면을 같은 패턴으로 가득 채운다. 그야말로 무성한 모란꽃 밭이다.

호랑이와 모란을 즐겨 그리는 민화작가 이용애 작가는 편안하게 앉아 있는 호랑이의 늠름한 모습과 모란의 탐스러운 자태를 은은하게 표현한다.

김은진 작가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명품과 보여주기 위한 소비품들, 그리고 무병장수와 부귀를 의미하는 모란을 이용해 돈에 움직이는 사람들의 복을 표현하고자 했다.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바람이 커진다. 그 재물에 대한 소유욕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다. (02)747-2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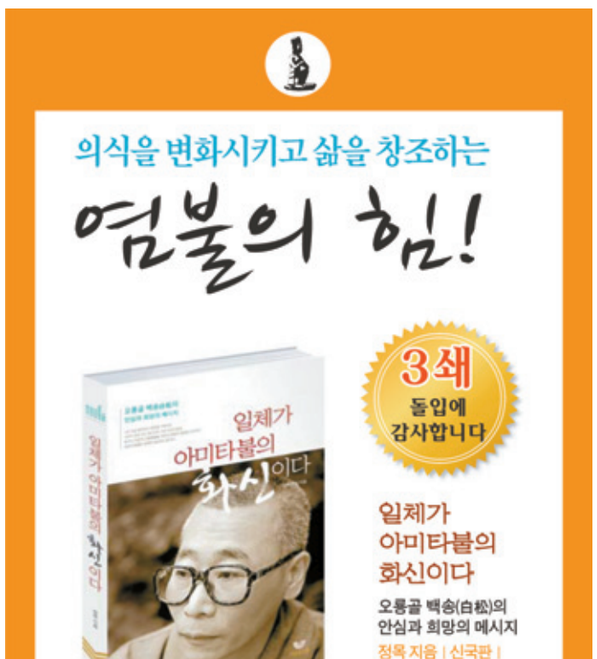
이나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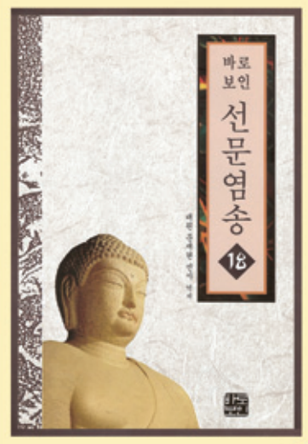


자기전 발바닥에 붙였다 떼어내면 불필요한 수분이 갈색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바닥 외 무릎, 허리, 어깨, 팔 등에도 사용가능
불필요한 수분 흡수 갈색변화 눈으로 직접 확인!!
★ 이런 분께 권해드립니다 ★
· 팔,다리,무릎이 안 좋으신분 · 어깨,허리때문에 고생 하시는분.
· 운전자, 수면이 부족한 사람. · 몸이 무겁거나 향상 피로 하신분.
· 오랜시간 서서 일하는 사람. · 가사에 지친 주부님.
· 공부하는 수험생. · 연로하신 노인분.
주문 및 상담 02)4444-595 / 010-7255-6668
주문즉시배달(1~2일) www.BB21.com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의식을 변화시키고 삶을 창조하는
염불의 힘!
3쇄 돌입에 감사합니다
일체가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오룡골 백송(白松)의 안심과 희망의 메시지
정목 지음 | 신국판 | 칼라 | 280쪽 | 14,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염불삼매 · 관불삼매를 성취한 우리 시대의 원효
정목 스님이 들려주는 일심정토 염불수행법
범어사 승가대학의 강사 소임을 역임한 정목 스님은 92년 전수염불 정진 중 염불삼매를 얻었으며, 98년 하안거 정진 중에 관불삼매를 체험했다. 한국정토학회 이사로서 염불수행과 원효사상 보급에 앞장서 온 스님은 2004년 경남 양산 오룡골에 정토원(055-375-5844)을 설립, 다음카페 '아미타파(cafe.daum.net/amitapa)'를 통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염불 수행자들을 온-오프 라인을 통해 동시에 지도하고 있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8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18권 출간!
협산선사, 투자선사, 취미선사, 조과도림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치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무소유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다

변택주 작가, ‘법정, 나를 물들이다’ 출간



법정, 나를 물들이다
변택주 지음
불광출판사
1만5000원

우리 시대 ‘무소유’라는 큰 화두를 남기고 간 법정 스님. 스님의 가르침은 ‘무소유’가 틀림없을까? ‘법정 스님=무소유’라는 명제에 과감히 반기를 들 뻔했던 책이 출간됐다.

법정 스님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작가는 12년 동안 법정 스님 법회 사회를 본, ‘맑고 향기롭게’ 前 이사이다. 그가 최근 〈법정, 나를 물들이다〉 출간에 부쳐 “법정 스님의 메시지는 무소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저자는 책 제목이 출판사의 고사로 끝내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무소유가 아니다’가 되지 못했다고 말한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말씀했지만, 그게 스님이 전하려던 핵심 메시지는 아니다. 사람들이 법정 스님 메시지를 무소유 하나로 한정하는 게 못내 아쉬워서 소리 한번 지르고 싶었습니다.”

저자가 펴낸 책은 법정 스님과 함께 가서(同行) 법정 스님과 함께 행복했던(同幸) 열아홉 사람의 인연 이야기. 본지에 연재되고 있는 ‘법정 스님과 만난사람들’을 모은 책이다.

책에는 성철 스님 시봉일기로 유명한 원택 스님, 종교 벽을 허물고 우정을 나눈 장익 주교, 온 누리 어머니로 사는 원불교 박청수 교무와 같이 우리 시대에 큰 길을 가는 종교인이 말하는 법정 스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독보적인 자기 예술 세계를 구축한 조각가 최종태, 법정 찻잔으로 스님과 인연을 이어 간 도예가 김기철, 그림으로 시를 쓰는 화가 박항률, 농사꾼으로 변신한 방송인 이계진처럼 잘 알려진 이들이 만난 스님의 모습도 만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여 년간 스님 어머니를 모신 사촌동생 박성직, 괭이 한 자루 들고 등산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파 내려오던 백지현, 스님이 왜 길상사에서 딱 하루만 묵으셨는지 사연을 들려 준 홍기은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 비친 법정 스님도 있다.

그들에게 법정 스님은 어떤 분일까? 스님에게 그들은 어떤 존재였을까?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법정 스님의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만날 수 있는 책은 독자들에게 법정 스님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경험을 선사해 준다. 그 속에서 법정 스님이 우리에게 진정 전하려던 메시지가 종이에 물 스미듯 물들어 온다.

저자는 책을 마무리 하는 글에서 ‘법정, 나를 물들이다라는 제목이 자신의 집필 동기를 충분히 담지 못한다고 적고 있다. “스승은 홀로 스승이 아니다”라며 법정 스님과 저자가 하나도 아니지만 둘도 아닌 것을 강조한다.

“법정 스님과 나는 서로 주고받았는데, 책 제목은 법정 스님에서 나온 것이 내게 한 방향으로 흘렀음을 의미하니 반쪽짜리 제목입니다.” 지금은 사바 세계에 계시지 않는 스승을 그리워하는 제자가 스님이 항상 강조하신 불이(不二)와 연기(緣起)로 풀어낸 현답이다.

책에는 스님과 인연 있는 이들이 늘어놓은 재미진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진명 스님은 법정 스님에게 퇴박을 놓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불일암을 찾는 바람에 법정 스님이 참기 힘들

법정 스님과 함께한 19명의 이야기
장익 주교, 이계진 등 다양한 인물들

다고 하니 진명 스님은 대뜸 “스님! 그게 싫으시면 글 쓰지 마세요. 글을 쓴다는 건 사람을 부르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도 많은 고민 끝에 어렵사리 찾아오는 건데 그렇게 예의 없는 사람 취급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라고 윽박지른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무소유가 아니라는 발칙한(?) 저자가 본 스님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

저자는 책 4장 머리글(264~267쪽)에 친절하게 적어 두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로 시작하는 스님의 오관게 풀이에 담겨 있는 그 뜻이다. 바로 나는 나지만 내가 아니라는 것, 나를 살아 있게 하기까지 유명을 달리한 수많은 목숨들, 뭇목숨의 살신공양으로 이어온 삶을 헛되게 보내지 말아야겠다는 다짐, ‘중이 밥값이나 하고 가야겠다’던 스님 말씀의 속뜻이다. ‘제 몸을 기꺼이 내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어머니 은혜와, 심고 가꾸고 거두어들인 수많은 손들이 흘린 땀을 헤아려, 날목숨이 아닌 온목숨으로 살라’는 가르침이다.”

이 책을 보고 인드라망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숲 속의 정갈한 기운을 생각나게 하는 법정 스님의 마당에 싱그럽게 함께해 온 사람의 숲 향기가 참 좋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서재탐방 |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

“책은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길잡이”

“책을 읽을 땐 곱씹으면서 읽어야”
〈숫타니파타〉 〈왕오천축국전〉은 위대한 불서

“종암동 ××번지 가주세요.”

택시기사에게 번지수를 일러주고 몸을 실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곳은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한 주택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번지수가 달랐다. “여기 말씀하신 번지수가 맞아요.” 택시기사 안내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문패아래 유성매직으로 집주인이 알려준 번지수가 쓰여 있다.

초인종을 누르자 둥그런 인상에 한복을 차려입은 백발의 노인이 우리를 반겼다.

한국불교학의 거목이자 석학인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76). 불교교리사와 계율학 권위자인 그는 불교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로 손꼽히기도 했다. 40여 년간 재가자 교육에 헌신해온 목 명예교수는 현재 서울 신당동 약수법사(藥水法寺)에서 〈삼국유사〉 원전과 〈기신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아담한 2층 주택에 들어서자 시서화(詩書畵)에 능한 그답게 집안 곳곳에 작품들이 걸려있다.

“뭣 땜에 왔는교. 내 보여줄게 없는데….”

목정배 명예교수에게 서재 보여주기를 요청했다. 평생 불교교학에 매진해온 석학의 서재는 어떠한지 궁금했다.

“책? 없어! 서울불교대학원대학에 다 갖다 기증했어.”

2002년 동국대 교수직을 정년퇴임한 목정배 명예교수는 2004년까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지내며 그곳 도서관에 7000권이 넘는 도서를 기증했다. 〈초조대장경〉 〈빨리대장경〉 등 불교경전을 비롯해 각종 문·사·철 도서까지 30여 년간 교수생활을 하며 공부하고 수집한 책들이었다.

목 명예교수는 2층 방 한 칸을 서재로 쓰고 있었다. 서재에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 기증하고 남은 2000여 권의 장서들이 빼곡하게 쌓여있다. 곳곳에는 작은 불상 조각과 애연가였던 그가 즐겨 쓰던 파이프와 라이터도 놓여있었다. 열반한 前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막역한 사이였음을 보여주는 젊은 시절의 사진들도 보



목정배 명예교수는 “서재의 작은 법당”이라며 불상을 소개했다.



목 교수는 정년퇴임 후 서울불교대학원대학에 7천여 권의 장서를 기증했다. 현재 서재에는 2천여 권의 책이 쌓여 있는데도 매주 대형서점에 가서 책 2권씩을 습관적으로 산다.

였다. 목정배 교수는 “최근 인문학 서적을 많이 읽고 있다. 1주일에 한 번씩 대형 서점에 들러 책 2권씩 산다”고 했다.

목 명예교수는 70여 년을 살아오는 동안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들을 소개했다. 그는 우선 〈숫타니파타〉를 꼽았다.

“〈숫타니파타〉는 어려운 용어나 내용이 없는 쉬운 불경이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만큼은 심오해요. 한 구(句) 한 구 외우기도 쉽죠. 만약 작곡을 할 줄 안다면 〈숫타니파타〉를 가사로 한 노래를 만들고 싶을 정도예요. 이렇게 쉬운 구절을 노래로 만들어 부른다면 불자들이 그 뜻을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목정배 교수는 혜초 스님이 쓴 〈왕오천축국전〉도 소개했다.

“혜초 스님은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부처님의 고향을 혼자 답사하고 기록했어요. 부처님이라는 한 인물을 알기 위해 작은 신라 땅에서 출발해 중국을 거쳐 히말라야를 넘어갔다 다시 와서 정리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러시아 문호들의 책도 즐겨 읽은 목 교수는 톨스토이의 〈인생독본〉,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을 좋아한다고 했다.

“톨스토이의 작품은 부처님의 〈아함경〉과 같아요. 톨스토이의 작품들이 이솝우화에 따온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솝우화는 〈백유경〉에서 나왔거든요. 인생에 도움 되는 글들이 참 많아요.”

목정배 교수는 이 밖에도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라쇼몽〉 등 소설들과 나옹 선사의 시 등 고승대덕의 시집과 어록도 즐겨 읽는다고 했다.

대학원 시절 〈범망경〉 보살계를 연구한 목정배 명예교수는 원효·승장·의적·태현이 찬술한 〈범망경 주석서〉를 섭렵하고 번역을 마쳤다. 최근 들어 목 교수는 그때 공부했던 원고들을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교편에서 물러난 후에도 끊임없이 불교 공부에 매진하고 강의활동을 하는 목정배 교수의 원동력은 책에 있었다.

“책은 사색을 하게 해주고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방향이 됩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사색하는 공간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책을 읽을 땐 한 줄을 읽더라도 곱씹으면서 읽어야죠. 마음이 느끼도록 만들어 읽은 책 구절 하나하나가 자기 삶, 주변사람들에게 도움되게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글=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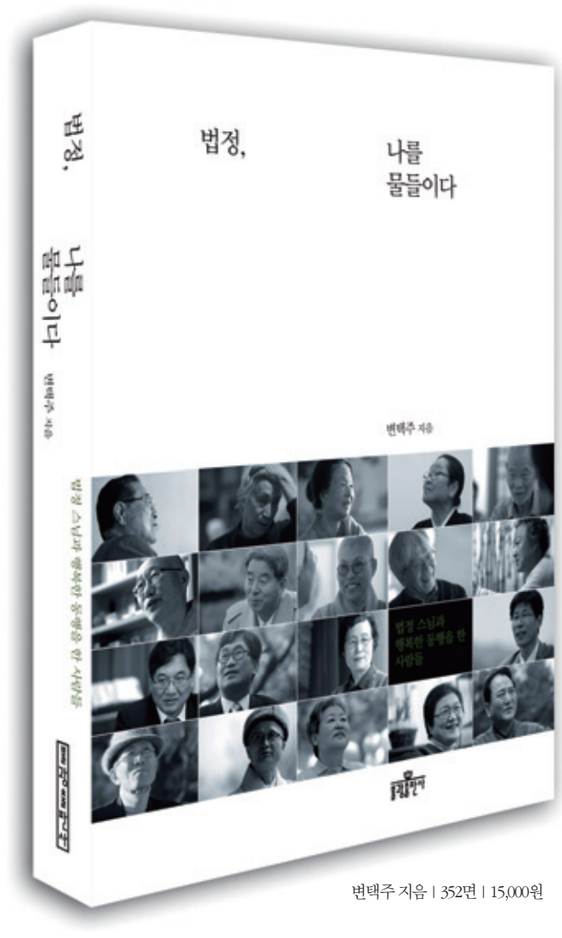
1/4~1/10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2	마음수업	이광정	휴
3	엄마수업	법륜	휴
4	인생을 낭비한 죄	박원자	뜰
5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	명진	말글빛냄
6	망설일 것 없네 당장 부처로 살게나	도법	불광출판사
7	마음챙김 명상 멘토링	김정호	불광출판사
8	지금 이 순간 그대로 행복하라	틱낫한	더난출판
9	인생을 바꾸는 하루 명상	보경	조계종출판사
10	금강경, 문수보살이 묻고 부처님이 답하시다	이수덕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장 익
최종태
방혜자
박청수
김기철
원 택
이계진
진 명
박항률
돈 연
노일경
문현철
강정옥
백지현
박성직
현 장
이창숙
피상순
홍기은



법정,
나를
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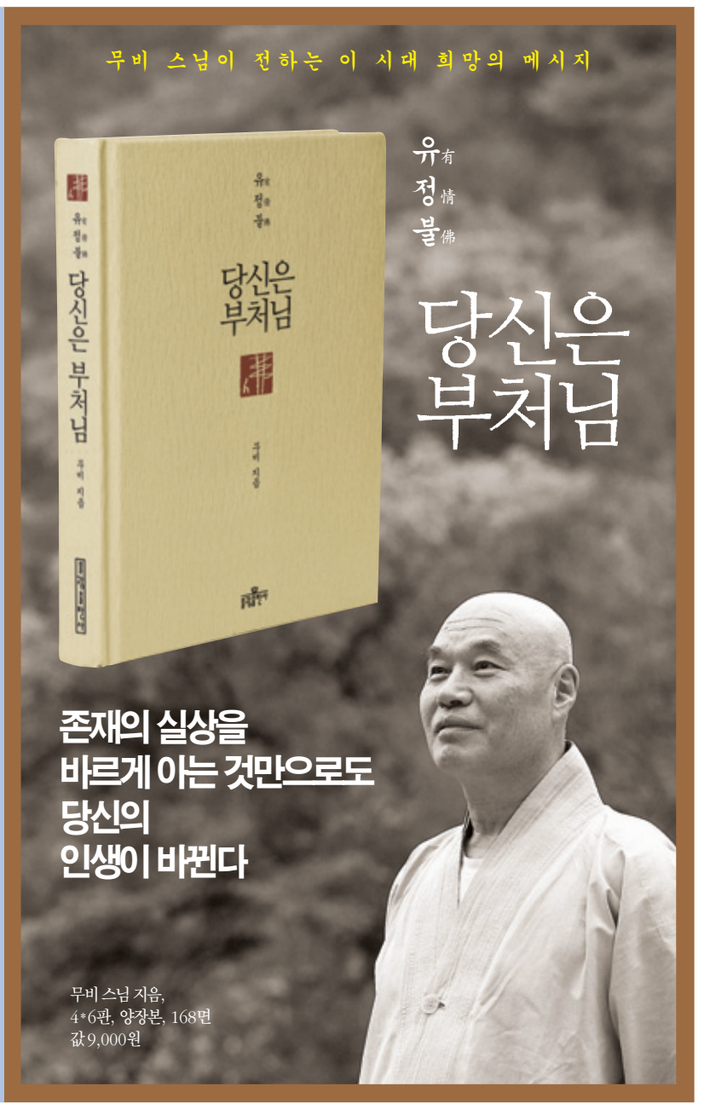
법정 스님과
행복한 동행을 한 사람들

변택주 지음 | 352면 | 15,000원

법정 스님 메시지는
무소유가 아니었다

“법정 스님과 인연을 맺었던 19명에 대한 기록이자, 스님의 메시지를 향한 우회로다.” _경향신문
“스스로에겐 엄격했지만 어려운 이웃에겐 알게 모르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던
스님 면모를 보여준다.” _조선일보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마치 길처럼 철두철미하게 함께 나누는 공유(共有)였다.” _문화일보
“법정 스님은 음식에 들어가 맛을 돋우면서도 본연의 향을 잃지 않은 생강 같은 분이었다.” _매일경제

불광출판사 Tel. (02) 420-3200 Fax. (02) 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 www.facebook.com / bulkwang



“혼자 도 닦는 것보다 함께 행복해야지”

혜민 스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펴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지음
쌤앤파커스 펴냄
1만 4000원

지하철을 타고 가다 옆에 앉은 여성의 스마트폰을 우연찮게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팔로잉한 사람들의 맨션(mention)들을 보고 있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트위터리안이 있었다. 준수한 외모의 혜민 스님이었다. 그녀는 찬찬히 혜민 스님이 올려놓은 메시지를 읽고 있었다. 이후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성경〉이었다. 지하철 안에서도 성호를 긋는 것을 보니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것 같았다.

‘하버드 출신 스님’ ‘트위터 스타 스님’으로 불리는 혜민 스님은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트위터리안’으로 손꼽힌다. 지하철에서 처럼 이웃종교인들도 종교를 초월해 스님을 좋아하고 따른다.

美 매사추세츠주 햄프셔대 종교학 교수로 재직중인 혜민 스님은 2011년 안식년을 맞아 국내에 머물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2011년 6월에는 리차드 기어 방한 때 통역을 도맡았고 매주 안국선원에서 젊은 불자들을 대상으로 영어·한국어 법회를 진행했다. 또 스님은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으로 바쁜 생활을 보냈다.

안식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혜민 스님은 대중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하고자 에세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출간했다.

“프라이팬에 붙은 음식 찌꺼기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물을 붓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떨어져나갑니다. 아픈 상처를 억지로 떼어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의 프라이팬에 시간이라는 물을 붓고 기다리면 자기가 알아서 어느덧 떨어져 나갑니다.”
- ‘휴식의 장’ 中에서

책에는 수만 팔로워들이 놀라운 속도로 세상에 전파시킨 혜민 스님의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와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생활 속에서 틈틈이 쓴 글들이 스님 특유의 성찰과 함께 담겨있다.

혜민 스님은 “‘혼자서 도 닦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함께 행복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트위터가 놀라운 속도로 리트윗 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

“미국에서 영어를 사용하다 생긴 모국어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트위터를 시작하게 됐어요. 강의가 끝나고 텅 빈 연구실에 있다 보면 향수병에 걸린 것처럼 한국어가 사무치게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떠오른 생각들을 트위터에 기록했고 모국어로 대화해주는 사람들과의 소통 속에서 큰 위안을 얻곤 했어요.”

자신이 위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던 날들 속에서 도리어 사람들은 혜민 스님이



아픈 청춘에 용기 희망주려고
맑고 따뜻한 글 트위터에 올려

남긴 몇 마디 말에 위안을 받았다는 글들을 남기기 시작했다.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됐다는 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다는 글 등을 말이다.

혜민 스님은 “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위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됐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맑은 글, 따뜻한 글들을 올려보자고 마음먹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10만 팔로워들과 소통하며 알게 된 사실이 있다. 극심해지는 양극화 문제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등록금, 실업,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스님은 지난 한 해 서울 안국선원에서 ‘콤플렉스’ ‘집착’ ‘질투’ ‘서운함’ ‘마음과 명상’ 등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존의 법회와는 색다른 방식으로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처음 40명이 참석했던 법회는 80명, 120명으로 점점 늘었다. 올해 초 부산 안국선원에서 개최한 ‘마음치유콘서트’는 400명 인원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불교가 너무 오래된 옛날 언어에 갇혀 있어서 젊은 세대와 공감하기 어렵고 고루한 이야기처럼 들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불자가 아닌 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쉬운 이야기들로 불교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혜민 스님의 특징은 불교를 쉽게 설명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남녀노소 종교를 떠나 다양한 사람들이 스님의 팔로워이며 팬이다.

음악을 좋아하는 혜민 스님은 올해 여름 방학에는 한국에서 음악을 곁들인 마음치유 법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30여 회의 법회를 진행하면서 젊은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단다. 필요이상으로 타인을 의식하며 열등감을 느끼고 뒤처지고 있다는 초조함 속에서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마음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그런 그들에게 스님은 한 번 멈추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말한다.

“세상이 바쁜지 내 마음이 바쁜지 그것을 멈추고 한 번 보세요. 세상은 스스로 ‘나 바빠요’ 한적 없어요.”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스포츠 머리·평복도 입는 스님의 구도기

통영 월송 스님의 ‘스님은 왜 머리를 안 깎으세요?’



스님은 왜 머리를 안 깎으세요?
월송 지음
운주사 펴냄
1만원

스님들은 머리카락을 무명초 또는 부평초라고 부른다. 머리카락을 이름 없는 잡초에 비유하는 것은 중생의 번뇌가 무명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수행자가 머리를 깎는 것은 무명으로 인해 생기는 세속의 욕망과 번뇌를 잘라버리고, 청정한 깨달음의 세계로 오롯이 나아가고자 함이다.

사람들은 파르라니 깎은 머리와 풀 먹인 무명옷을 입고 있는 스님의 모습을 보면 청정한 수행의 기상이 느껴져, 범부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리감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스님은 왜 머리를 안 깎으세요?〉의 저자 통영 법운암 주지 월송 스님은 여느 스님과 달리 머리를 깎지 않는다. 물론 일반인들처럼 장발머리는 아니지만,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때론 평복까지 즐겨 입는다.

책에는 어쩌다 어머니를 따라 온 꼬마 신도가 “스님은 왜 머리를 안 깎으세요?”라고 물으면, 스님은 “요즘 바쁜 일이 많아 이발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단다”라고 답한다.

스님은 진짜 머리를 깎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아직 중물이 덜 들어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 가끔 평복을 즐겨 입는 이유도 오랫동안 고향인 통영에서만 지내다 보니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책은 스님이 왜 다른 스님들처럼 머리를 안 깎고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5부로 구성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1부 ‘잊혀지지 않는 여정’에는 신도들과 틈틈이 한국의 유서 깊은 사찰을 순례하며 느낀 생각들을 모은 구도여정이 담겨있다. 2부 ‘삶을 되돌아보자’는 절집생활을 하며 대중들과 함께 겪은 사연이, 3부 ‘환경을 생각하며’에는 자연과 사람과의 공존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 4부 ‘가슴으로 와 닿는 얘기들’에서는 불가에 전래돼 온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풀어 삶의 귀감이 되도록 했으며, 5부 ‘내 마음의 노래’에는 수행자로 살아온 생각과 감정들을 시로 표현하고 있다.

책은 스님이 30여 년 동안 통영 바닷가에 거주하며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수행과 포교의 과정에서 마음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책에는 오직 한곳에서 외길로 수행해온 저자의 구도역정과 진실 되고 소탈한 모습이 녹아져 있다. 외모는 정갈한 스님의 모습이 아닐지 모르나, 구도자의 진솔한 속내가 정갈하게 드러나 있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예화를 곁들여 읽는 ‘금강경’



〈금강경〉은 반야부 계통 경전에서 설하고자 한 공사상을 ‘공(空)’이란 글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유감 없이 드러내 보인 불가사의한 경전이다. 중국에서는 무착·세친 보살 등이, 한국에서는 원효 성사 등 많은 이들이 주석서를 편찬했다. 중요한 경전이지만 한문이라는 장벽 때문에 한글로 번역된 것이 많으면서도 정작 쉽게 읽을 만한 책이 없었다.

동방대학원대학 교수 만춘 스님은 최근 원전의 글마다 훈과 음을 달고 뜻풀이를 더해 〈현토주해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출간했다.

스님은 “경전은 지식 전달이 목적이 아니고 지혜 계발이 목적인 까닭에 선조사 스님들의 글처럼 난자도 많지 않다. 그래서 남는 여백에 예화를 많이 소개해 이해와 신심을 돕기로 했다”고 말한다.

현토주해 금강반야바라밀경 | 만춘 심상현 편저 | 불교서원 | 2만4000원

의례 위에 있는 의궤를 규범



현재 한국불교에서 봉행되는 불교의식은 삼밀수행법에 기초해 편제해 있다.

삼밀(三密)은 신밀·구밀·의밀의 세가지를 가리킨다. 구밀은 어밀, 의밀은 심밀이라고도 한다. 현교 해석에 의하면 보통 일반인의 사려와 측량으로는 붓다의 삼업을 체득할 수 없으므로 삼밀이라고 불린다. 삼밀관은 삼금강관·삼금관·삼훔관으로 신구의 삼업이 지은 죄의 때를 소멸해 없애도 부처의 공덕을 드러내는 수행법으로 사용된다.

법안 스님(서울 대성사)과 우천 이성운 거사(정우서적 대표)가 펴낸 〈삼밀시식행법해설〉은 삼밀행법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의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수문〉을 중심으로 삼밀행법을 복원한 책이다.

삼밀시식행법해설 | 법안·우천 공저 | 정우서적 | 1만5000원

완전한 건강을 실현하다



오늘날 사람들은 육체에만 국한된 의학의 치료를 거부하고, 물질적인 차원을 넘은 더 깊은 차원에 접근하는 힐링에 관심을 두고 있다. 책은 〈영적 가이드와 천사를 통한 사이킥 힐링〉의 10주년 기념판으로, 사이킬 힐링(psychic healing, 심령 치료 또는 초자연적인 치유)에 대한 안내서이다.

사이킥 힐링은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영적인 차원에서 질병의 에너지를 완전히 변화시킴으로써 전인적인 차원의 완전한 건강을 실현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책은 사이킥 힐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소개하고 있으며,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힐링에 관한 실천법들을 담고 있다.

이센셜 사이킥 힐링 | 다이앤 스타인 지음 | 김병채 옮김 | 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 펴냄 | 2만5000원

질병의 원인을 찾다



루이스 L. 헤이의 베스트셀러인 이 책은 루이스가 다년간의 연구과 상담자들과의 작업을 통해 어떤 정신적인 작업을 원하면 모든 것이 치유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책은 몸 안의 질병 뒤에 감춰진 정신적인 패턴에 따른 안내서이다. 책은 자신의 정신 치유 과정에 도움이 되는 내면의 능력들을 일깨워 주며,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 영혼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책은 이런 고통의 원인의 실마리를 제공해, 몸과 마음에 건강을 창조하는 새로운 생각의 유형을 만들도록 안내하고 있다.

힐 유어 바디 | 루이스 L. 헤이 지음 | 김문희 옮김 | 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 펴냄 | 1만6000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한방(韓方)치료로
간 질 환
백반증(백납)
건 선
한 솔 한 의 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26-중-4825호

부산경남 실전위주
범음범패 학인 모집
일 년 과 정
1학기
1) 조석 예불, 타종, 상단불공
2) 사물 다루는 법
2학기
1) 각종 재공편 의식 49재, 시다림, 다비식
2) 천수바라, 오공양나비춤, 작법, 태평소
◑ 강 사 진 : 도성(영담), 성암, 철암
◑ 회 비 : 월 10만원, 일년 완납 100만원, 6개월 완납 50만원 (교제비 별도)
◑ 교 육 : 매주 월요일 오후1시부터 5시 까지 (단, 초하루, 15일, 18일이 월요일인 경우 다음날로 교육)
◑ 찾아 오는 길 : 김해시 지내동 504번지 한국불교태고종 영 봉 정 사
◑ 개 강 : 2012년 3월 5일(월) 입강
◑ 문의전화 : 011-852-8595 055)322-8595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정 각 사
주지 일행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65-5
TEL 063)857-6533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불교의 전래가 이 땅에 미친 영향은 ?

'거문고 갑을 쏴라'는 무속의 불교 견제

1. 불교의 동류

진리에는 본디 방향성이 없다. 다만 우리가 그 방향을 매겼을 뿐이다. 진리[法]는 물[氵]이 흘러가듯[去]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간다. 인도에서 비롯된 붓다의 가르침은 전법승들에 의해 북서와 북동으로 흘러갔다. 붓다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셀 수 없는 전법승들이 타클라마칸 사막을 넘어오다 목숨을 잃었다. 또 그들에 의해 붓다의 가르침을 전해 받은 셀 수 없는 구법승들이 다시 사막을 넘어가다 목숨을 잃었다. 이 사막을 넘나든 이들에 의해 붓다의 가르침은 한나라에서 위진 남북조 시대에 걸쳐 고구려와 백제 및 가야와 신라로 흘러들어왔다. 그리해 붓다의 무상과 무아와 공성의 가르침은 이르는 곳마다 뿌리를 내렸고 만나는 사람마다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

붓다의 가르침은 까르마[業]와 다르마[法]로 이 세계를 해명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나타내는 까르마 설은 자신의 능동적인 의지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해 주었다. 또 존재와 존재의 법칙을 나타내는 다르마 설은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결과임을 일깨워 주었다. 연기설의 다른 이름인 업설을 받아들인 불자들은 점차 불교의 본령에 대해 알기 시작했다. '인연에 의해 생겨난 존재는 모두 변화한다'는 가르침과 '서로의 관계를 떠나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가르침은 '오온은 실체가 아니다'는 공성의 가르침으로 이해됐고 '서로 함께 나누는' 자비행으로 실천됐다. 때문에 상호의존의 연기성에 의한 무상과 무아와 공성의 가르침은 상호존중의 자비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안됐다.

동아시아에 큰 영향 미친 불교,
인간의 생사관 틀까지 바꿔

동아시아에 전래한 불교는 종래의 사상에 깊은 자극을 주었다. 불교는 도교·도가 및 유교사상에 영향을 주어 중국의 철학을 새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 윤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또 불교는 소박한 자연신 신앙과 무교 신앙을 믿었던 동아시아인들의 종교적 심성을 확장시켰다. 나아가 인간 삶의 가치와 의미에 눈을 뜨게 했다. 불교는 동아시아인들에게 자기 행위의 주체는 자기 자신임을 역설하면서 주체적인 인격 완성을 강조했다. 불교적 세계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체적 인격 완성을 통해 개인을 넘어 사회와 국가까지 성찰하는 사회적 성격을 확립하게 했다. 특히 불교의 생사관은 삶뿐만 아니라 죽음과 죽음 이후 세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열어주었다. 육체는 소멸해도 정신은 소멸하지 않고 다시 태어난다는 불교의 내세관은 내세 관념이 결여됐던 동아시아인으로 하여금 내세의 안심을 꾀하고 생사의 도리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내세관의 확장은 현실의 삶에 대한 긍정과 이타적 베풂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다.

불교에서 제시한 연기설과 업설에 기초한 자유 의지는 동아시아인들이 주체적 인격을 완성하는 데 이바지했다. 불교의 윤리사상은 개인의 윤리적 단련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 널리 전파된 대승불교는 자연 및 초월적 세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정치적 시사점과 같은 인간 삶의 밀접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동아시아 대승 불교의 이러한 모습은 불교의 인간관뿐만 아니라 사회관 및 자연관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다. 불교 수양론의 핵심인 "악행을 하지 말고 선행을 하라"는 가르침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밝히는' 능동성과 주체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능동성과 주체성은 동아시아 사회의 인간 이해와 세계 인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2. 고구려와 백제 및 가야와 대발해에 전래

불교 전래에 대한 고대의 기록은 너무나 부족하다. 때문에 문헌기록 뿐만 아니라 유물과 유적을 통해 연구를 보완해 갈 수 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사철 분야 뿐만 아니라 종교 및 예술 분야 등을 아우르는 통섭적 방법론이 요청된다. 아도(阿道)가 전해오고 소수림왕이 받아들인 고구려 불교는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널리 퍼졌다. 마라난타(摩羅難陀)가 전해오고 침류왕이 받아들인 백제 불교 역시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널리 퍼졌다. 이들 두 나라는 각 정부의 적극적 지지를 통해 불교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다. 가야 역시 마찬가지였다.

고구려 소수림왕은 재위 2년(372)에 중국 전진(前秦)왕 부견(符堅)이 보낸 사문 순도(順道)와 불상과 경문을 받아들였다. 순도 이후에도 법심(法深)과 의연(義淵), 담엄(曇嚴) 등이 전해온 불교를 수용했다. 또 2년 뒤(374) 중국 동진(東晋)에서 건너온 사문 아도(阿道)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왕은 사찰을 '복을 닦아 죄를 멸하는 곳[修福滅罪之處]'으로 인식했다. 왕실은 초문사(肖門寺)와 이불란사(伊弗蘭寺)를 지어 순도와 아도를 각기 머물게 했다. 고구려 불교는 불보(佛寶)의 상징인 불상(佛像)과 법보(法寶)의 인증인 경문(經文)과 승보(僧寶)의 대표인 순도의 삼보 모두를 구비하면서 시작됐다. 백제의 침류왕은 원년(384)에 중국 동진(東晋)에서 건너온 인도승 마라난타(摩羅難陀)를 통해 불교를 수용했다. 왕은 교외까지 나가 그를 맞아들여 궁중에 머물게 하고 공경히 받들어 공양하며 그의 가르침을 품수했다. 이듬해 2월에 왕실은 새롭게 도읍한 한산주(漢山州)에 절을 짓고 10명의 승려를 출가[受具得度]시켰다. 또 제17대 아신왕은 "불법을 높이 받들어 믿고 복을 구하라[崇信佛法求福]"는 교지를 내렸다. 국왕이 불교의 교화를 좋아해 불사를 크게 일으키고 함께 기리며 받들어 행하자 불교가 널리 퍼져 나갔다.

가야는 인도 부파불교와 백제를 거쳐 중국 남조에서 전해온 대승불교를 모두 받아들였다. 가야불교는 시조인 수로왕(42~199)의 부인인 허황옥 왕후가 서역 아유타국(阿踰陀國)에서 올 때 배에 싣고 왔다는 바사석탑을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제8대 질지왕이 재위 2년(452)에 수로왕의 부인인 허황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수로왕과 왕후가 결혼한 곳에다 왕후사를 세웠다. 삼보에 공양 올릴 비용으로 절 주변의 평전 10결도 주었다. 그래서 가야불교는 왕실에 의한 기획과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왕후사 창건을 공인의 기점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대가야의 경우는 중국 남조를 거쳐 백제에 건너온 대승불교를 받아들였다.

고구려·백제·발해는 대승
가야는 부파·대승불교 수용

대발해(698~926) 황실 역시 8세기 중후반에 무명(無明)과 정소(貞素) 등을 인도와 중국에 파견한 뒤 그들이 가져온 〈대승본생심지관경(大乘本生心地觀經)〉 등을 번역할 수 있게 했다. 중국의 〈책부원구(册府元龜)〉는 713년 12월 말갈 왕자가 왔을 때 상진문에서 교역과 입사(入寺) 예배를 청했다는 기록(권971)과 814년 대원유(大元瑜) 때 사신 고예진(高禮進) 등 37인을 보내 조공하고 금과 은으로 된 불상 각 1구씩을 헌상했다는 기록(권972)을 싣고 있다. 일본문헌 〈속일본기〉(권34)에는 776년 사신 사도몽(四都蒙) 일행이 다음해 귀국할 때 '수정염주 4관(貫) 등이 부가됐다'고 적혀 있다. 〈일본후기〉(권24)에는 '814년 조공사신 왕효렴(王孝廉) 일행에 기록하는 일을 맡은 [錄事] 승려 석인진(釋仁眞)'의 이름도 보인다. 또 〈유취국사〉(권193)에는 '795년 11월 출우국(出羽國)에 표착한 발해 사절 여정림(呂定琳)이 당에 유학하고 있던 승려 영충(永忠)의 상서를 봉정했다'고 적혀 있다. 이들 기록을 통해 대발해의 불교 전래 과정을 알 수 있다.

3. 신라에 전래

신라는 제13대 미추왕 2년(263)과 제19대 눌지왕 대(417~458) 및 제21대 비처왕 대(479~499)와 제23대 법흥왕 14년(527)에 승려 아도(阿道) 혹은 사문 묵호자(墨胡子)가 불교를 전해왔다는 기록들이 혼재한다. 이들 기록에는 아도와 묵호자가 거듭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 아도는 '머리를 깎은 사람'으로, 묵(흑)호자는 '얼굴이 시커먼 외래 사람[黑胡子]'이라는 일반명사로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는 미추왕 대부터 불교가 이미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신라불교는 국가적 수용과 공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했다. 결국 신라는 네 번째 기록처럼 법흥왕과 이차돈의 신묘한 책략[神略]인 순교사건을 계기로 삼아 불교 교화와 전법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후 왕실과 교단이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의 정통성을 확보해 갈 수 있었다.

〈삼국유사〉 '기이' 편의 '사금갑' 조목은 불교 공인 이전에 불교가 어떻게 전래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조목에서는 소지왕(비처왕) 때 '신라 궁중의 첫 순교자'가 된 분수승(焚修僧)과 정월 대보름 찰밥을 짓는 풍속의 유래에 대해 말하고 있다. 분수승은 왕실의 내전(內殿)에서 '향을 사루어 복을 닦는 승려'를 가리킨다. 왕이 천천정(天泉亭)으로 거동하자 때마침 까마귀와 쥐가 나타나 울었다. 쥐가 사람의 말로 "이 까마귀가 가는 곳을 따라가 보십시오"라고 했다. 왕은 기사(騎士)를 시켜 까마귀를 좇게 했다. 기사가 남쪽 피촌(避村, 壤避寺村)에 이르자 멧돼지 두 마리가 싸우고 있었다. 한참 구경을 하다가 그만 까마귀의 행방을 잃어버리고 길가를 배회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못 속에서 나와 편지를 바쳤다. 그 겉봉에는 "이 편지를 뜯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뜯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고 쓰여 있었다. 기사가 가져와 바쳤더니 왕은 말하기를 "두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뜯지 않음으로써 한 사람만 죽는 것이 낫다"고 했다.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두 사람이란 서민이요, 한 사람이란 왕입니다"고 했다.

왕도 그렇게 여겨 뜯어보았더니 편지에는 "거문고 갑을 쏘아라"라고 쓰여 있었다. 왕이 궁으로 들어가 거문고 갑을 보고 쏘았더니 내전의 분수승과 궁주(宮主, 妃嬪)가 몰래 간통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죽임을 당했다. 이로부터 나라 풍속에 정월 첫 해일[上亥], 첫 자일[上子], 첫 오일[上午] 등에는 모든 일을 조심해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다. 16일에는 까마귀 제삿날[烏忌日]이라 해 찰밥을 제사지냈는데, 지금까지도 행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시쳇말로 '달도(怛忉)'라 하니 슬퍼하고 근심해 모든 일을 삼간다는 뜻이다. 그 못을 이름해 '편지가 나온 연못'[書出池]이라 했다. 여기에 나온 멧돼지[亥]와 까마귀[烏]와 쥐[鼠]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사람보다 더 영리한 혼령을 가리킨다. 무속의 세계에서 이들 동물은 샤먼을 하늘나라나 지하세계로 이끌며, 때로는 샤먼의 심부름을 맡은 보조령(補助靈)이 된다. 또 고대사회에서 일관은 조석의 날씨와 미래의 운기를 점치는 무당의 존재와 다르지 않았다.



신라의 불교수용을 위해 순교한 이차돈. 무주 죽림정사 이차돈 진영

이차돈의 순교 이전에는
무속 세력과 불교 세력 마찰

법흥왕의 불교 공인 이전부터 내전에 분수승이 있었다는 사실은 신라 전역에 불교가 이미 전래돼 있었음을 의미한다. 즉 〈삼국유사〉 '탑상'편 '전후소장사리'조에서 '내전분수'가 승직(僧職)으로 사용된 예를 확인할 수 있듯이 소지왕대의 내전은 궁중 내에 설치된 불당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왕이 머무르는 궁중에 내전(內佛堂)을 두고 그곳에 분수승을 머물게 했다는 것은 이미 불교에 대한 왕의 이해와 용인이 전제됐음을 시사해 준다. 그런데 일관은 왕권을 빌어 이 사건을 반전(反戰)으로 삼아 내전의 분수승을 불교에 귀의한 궁중 귀족 여성들과의 '스캔들'로 몰아붙여 불교의 도덕성을 타격하고 있다. 나아가 일관이 점을 친 것처럼 거문고 갑을 쏘지 않았다면 왕이 시해(弑害)됐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서 일관이 왕의 미래를 점쳐 화를 면하게 해 주었다는 것은 종래의 무속 세력과 신흥 불교 세력과의 마찰이 만만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이차돈이나 불교 공인 당시 법흥왕의 불교 인식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공인의 의미는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된다. 하여튼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되면서 우리는 소박한 자연신 신앙과 무교 신앙을 뛰어넘어 인간 삶의 가치와 의미에 눈을 뜨게 됐고 종교적 심성을 확장시켜 주체적인 인격 완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깊이 있는 연구, 새로운 시각, 다양한 주제!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1 불교철학의 역사
D. J. 칼루파하나/김종욱 역/신국판양장/544쪽/25,000원
불교 철학의 역사 전체를 붓다 본연의 가르침에 따라 정리한 역작!

2 한국의 불교의례 I
정각/신국판양장/460쪽/23,000원
한국불교에서 행해지는 의식 및 의례의 역사와 절차, 의미 등을 규명한 책!

3 밀교학 개론
종석/신국판양장/286쪽/12,000원
밀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종합불교·현실불교로서의 밀교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조명한 책!

4 법화경의 성립과 배경
塚本啓祥/이정수 역/신국판양장/576쪽/27,000원
법화경 성립의 배경을 문헌학, 고고학, 미술사, 고문서학, 비명학, 고대화폐학에 의거하여 실증한 책!

5 성철선사상
도대현/신국판양장/448쪽/23,000원
돈오돈수와 중도로 집약되는 퇴옹 성철의 선사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한 최초의 책!

6 인도불교사
정순일/신국판양장/726쪽/33,000원
인도 불교의 중요 불교교리와 인물, 핵심 개념과 경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7 주역선해 연구
청화/신국판양장/510쪽/25,000원
명말 고승인 우익지욱이 『주역』을 고도의 불교사상으로 재해석한 『주역선해』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서!

8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자현/신국판양장/280쪽/15,000원
붓다 당시 승단분열의 역사적 과정을 제바달다의 파법륜승, 파승가를 중심으로 객관적이면서 생생하게 추적한 책!

9 불성론 연구
최현민/신국판양장/368쪽/18,000원
본성론적 불성 이해에 기반한 수증관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새로운 불성론과 수행론을 제시한 도겐의 사상을 궁구한 책!

10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신국판양장/416쪽/23,000원
불교의 수행론인 마음챙김과 한의학의 치유론인 사상의학 간의 다양한 융섭과 그것이 가져오는 창발효과를 규명한 책!

11 청송의 선과 철학
소광희 외/신국판양장/312쪽/18,000원
『선의 세계』라는 저서를 통해 동양적 사유의 결정체인 선과 서양철학의 회통을 추구한 청송 고형곤의 사유세계를 정리한 책!

12 불교미술사상사론
자현/신국판양장/304쪽/18,000원
불교 유물에 대한 단순한 나열과 분석을 넘어 불교미술을 역사적, 문화적, 사상적으로 새롭게 조명한 책!

13 천수경 연구
정각/신국판양장/500쪽/25,000원
한국불교의 독특한 신앙의례 경전인 『천수경』의 성립과 유통, 내용과 구조에 대한 한국 최초의 교학적·체계적·포괄적인 연구서!

14 역경학 개론
최종남 외/신국판양장/454쪽/23,000원
대장경의 성립과 전개, 각국의 역경 과정을 종합 정리하여 역경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 책!



● 도서출판 운주사 ●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며, 주고받는 말마다 악을 막아 듣는 이에게 편안과 기쁨을 주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 잡보장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부산무형문화재연수원(바라,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범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반)
사찰행사 (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영축사(사주영가찾는법 속성지도)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바라작법무연수원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49재 천도재 전문
사찰행사, 각종불공, 산신재
점안,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구병시식,
산사음악회
010-8676-6132

초혼 재혼 인연찾기
불자 독신 남녀 , 결혼, 친구
연인 인연 지어드립니다.
성훈위주로 상담합니다.
신고 서대문 11-0006
원갑사 결혼정보
02)365-1345
010-9114-4345

달마상 황금용주도 만능부적
심안으로 그린 액운소멸 만사형통
달마상과 황금용주도 만능부적을
인연있는 분께 드립니다
시각장애 1급 소승을
시봉할 분 기다립니다
달마 010-9003-7783

불교(범음,범패)교육대학
범음,범패,작법무
단기간 속성(실무위주),행사 출장
퇴마(5일완성), 사주(5일완성),
작명(3일완성) 전수
풍수상담, 교육 출장교육
부산 미타사
010-4611-3738

동영상 기문성명학
평생운을 볼 수 있는 한글성명학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누구나쉽게단기간에배울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역학 비법전수
고수익 보장
직장 책임알선
010-4735-3232
법 진

웰강. 황토. 상황. 氣 토굴. 쑥 뜸방 훈증침대
누워서 허리 뜸 / 배에는 단전 뜸
앉아서 좌훈 뜸 / 편안히 무릎 뜸
잃어버린 건강 / 사고 후유증
편안히 꼭 건강 찾아 장수하세요
훈증침대 특허번호 제10-2011-011722호
가맹점 모집
011-573-4438

문하생 모집(청학동)

역학, 풍수에
관심있는 분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남녀 초보 환영)
02)422-5804

영통철학 1개월 완성
비급전수로 1개월 만에
▷ 바로 상담가능
▷ 방문지도 가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서울 마포 도심포교당)
02)338-215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북한산 용암사
02)387-3216

미국 LA에서 부전하실 스님 모십니다. 사무실 직원 모십니다
▷ 대전 신광사
010-5792-3000

상 담 안 내
여러분의 영적세계는
편안하십니까?
신통력으로 운명 예견
고민해결
전화상담 가능
대구은행 : 087-13-035968
010-2125-4684
(사주팔자)

템플스테이 새해 해맞이
자유명상, 정초기도, 참선
황토방 토굴에서
장기 요양 휴식
(동해안 양양 왕금산 현불사)
033)671-6280
010-8317-2520

2012년 임진년의
직업운, 사업운, 재물운, 진학및 성적운,
이성문제 등의 어려운 문제들을 적중률
90%가 넘는 효타비결서(신수비결)로
가족과 함께 집에서 해결하세요.

효타비결서(신수비결: 정가 1만원)
전국유명 서점 도서출판 청연

삼 혼 칠 백 기 도
• 삼혼칠백은 귀신이 아니며 모든 유정무정의 흥망성쇠는 삼혼칠백의 작용에서 비롯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숙식제공, 경남창원
055)253-1808
016-9668-3180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여법하게 염불 하실 분.
50~60대 초반, 안양
031)471-6675

한글 팔만대장경 시주하실 분이나 파실분.
덕산 스님 합장
011-9228-674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대후반~65세미만
(서귀포시 서귀동 정방사)
한라산 관음기도도량)
010-5219-7021

수 강 생 모 집
역학은 5~10년을 해도 쉽게 되지 않으니
이제 효타비결로 새롭게 다시 시작해 보세요.
효타비결은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보게 해 드리고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1. 개인 지도반(1개월 완성)
2. 초급반(6개월 완성)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010-7121-9406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http://kr.blog.yahoo.com/han10305

귀 신 학 교
귀신을 스님들과 같은 강원교육으로 왕생극락을 시킵니다.
어떠한 천도재 보다 훌륭한 천도의 방법입니다.
1년 교육과정이며 매월 초하루 보름 천도재를 지냅니다.
경남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444번지 자비선원 (구, 백운암)
전화 055)391-3014(원장실) 3004.3024(종무소) 3016(팩스)

등록가입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센터 설립운영하실 분
설립운영하고 계신 분
등록 가입 받습니다
한국불교문화원 연합회
010-6838-8040
법 광

불자님 무료상담 안내
매월 초하루, 보름 및 각 재일에
불자님 사주무료 상담합니다.
시간 : 오후 2시~ 7시
1호선 종로5가역 5번출구 20m 전방
공생약국 3층 김현산역리원
010-9113-8545 (예약문의)

빙의·귀신 퇴마법 전수
스님이 배우실분 특별우대 (100만원)

30년 빙의치료 대가
• 신병, 무병, 업병으로 인한 정신질환 우울증.
• 구병시식, 영가천도, 49재 영가장애 고통에 시달리는 분.
• 거듭실패로 되는 일이 없는 분, 불면증, 악몽, 이명, 가위눌림.
• 영가장애로 인한 고통 30년 빙의퇴치.
(www.jijangsw.com)
스님 되실분 (나이불문)
절에서 평생사실 분 / 장기요양
사찰등록 (토굴, 포교당, 작은암자도 환영, 분담금 없음)
(사)세계불교지정선원종 본찰 부처골 지장선원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1 전화 054)383-8553 / 011-9585-4908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미국 뉴욕, 중국 칭다오, 호주 시드니
3월 동시모집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3/6(화) 저녁반, 3/8(목), 3/9(금) 오전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납골당과 행자원을 갖춘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佛 불영TV
불영TV는 인터넷방송으로 영상 뉴스 다큐 법문 행사사찰순례,산사음악회등의 영상사업전반 에 걸쳐 토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영상포교의 선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 원통스님 관세음보문품 CD27장 190,000
■ 예불대참회문 DVD 52장 290,000
■ 원순스님 신심명 12장 120,000
■ 능엄주(도민스님)DVD동영상+오디오CD 15,000
www.bytv.kr 영상제작 및 구입문의
02)2236-7209,010-8519-9279 〈 법보시 상담환영 〉

승복·전통복식 31년
www.kyksb.co.kr
김윤경승복·우리 옷
• 31년을 한결같이 전통복식 연구·보급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공장직영,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주요 품목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통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고급 모직 장삼 195,000원 한정판매
-고급면(신제품) 적삼 150,000원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승복 관련 기술자 모집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02-495-7779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패션지원센터 903호
서 울 점 :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31 02-2265-2278
제 주 점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416-2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예금주 : 김윤경)

제 명 공 고

• 법 명 : 도일 세목

• 법 명 : 설정

위 두 분은
(현대불교신문 2011년 12월 21일자)에
게재한 광고로 인하여 종단에
누를 끼쳤기에
2012년 1월 9일자로 제명처리
되었음을 공고함.

2012년 1월 10일

(사)한국불교정토종 종정 월호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건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땅가격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급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불자정보 26 | 871호 | 전면광고

2012년 1월 18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35평
- 요사 : 74평
- 부지 : 실평200평
- 가액 : 6억 8천

- 위치 : 경기도
- 법당및 요사 130평
- 부지 : 1300평
- 가액 : 12억

- 위치 : 인천
- 법당 : 35평
- 요사 : 74평
- 부지 : 80평
- 가액 : 12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온천장 사찰

- 대지: 310평
- 법당 30평, 요사채40평, 주지실 25평
- 부산의 주산 금정산 솔밭 자락
- 가액: 7억

토굴(부산 지하철 10분)

- 대지: 150평(국유지 70평 포함)
- 법당 (용왕당 물 철철) 17평,요사채, 방3칸
- 뒷산 공원 접, 주택 밀집지역
- 정남향, 사찰역사 38년
- 총가액 : 2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익스폴트

http://www.kisbulsa.co.kr E-mail : kisblsa@naver.com

- **전국 사찰, 포교당 암자 양도 양수해드립니다.**
  사찰 양도,양수를 결정하셨다면 「사찰 익스폴트」에 의뢰하세요.
- 철저한 비밀 보장.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계약체결시까지 홍보.
- 매물 홍보의 최적화.(사진촬영)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 익스폴트」를 입력하세요.

010-8980-4789

도심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자인면
- 대지 126평, 원룸포교원
- 전체건물 4동(70여평), 리모델링 잘 되어있음
- 황토기와표집(약16평)
- 법당옆 친견실도 있음, 조경이 잘되있고
- 노비구, 비구니스님 노후대책이 보장됨
- 가액: 1억 6천만원(답사후 조절가능)

010-5317-7736
017-502-9407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사상구 마을 버스 종점에서 약 120m 도보
- 30년된 도심 산속의 작은기도도량 (국유지)
- 법당, 삼성각, 용왕당, 공양간
- 가액: 8천 5백만원(조절가능)

010-5015-8511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2.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 찰 안 내

- 한번 가보고싶은 사찰
- 지리산 천왕봉 아래 위치 최고(목조건물)
- 아주 완벽한 전통사찰
- 대웅전 27평(토굴) 황토, 요사채 55평
- 법륜전 70평 6개 각방 욕실완벽
- 등산로 끝까지 도로 포장되어 있음
- 현공풍수학으로 (최고좌향)
- 가액 8억

010-9335-8487

사찰(급)안내

- 위치 : 국립고원 유달산 내
- 평수 : 200여평
- 특징 : 전설과 영험있는 기도도량
- 가액: 1억 6천만원

011-623-4487
011-229-4132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명서동 한솔내과 안
- 1층건물 사용 총면전 약 50평
- 법당1, 방2, 거실1, 부엌넓음,
- 뒷마당 및 주차장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불사 1000만원
- 더 넓은 도량으로 이전

010-4134-4535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시설완비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 가액: 4억 3천만원 (대출 2억 됩니다)

017-787-66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중구 동인동
- 5층건물 3층
- 사용총평수 53평
- 법당 20평,
- 석가삼존불,지장,칠성,신중
- 방2, 주방, 거실
- 보증금55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는 답사후 상담결정

010-2520-8263

도심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도계동 (39사단 근처)
- 대지 300평 3층 상가 내, 2층 45평.
- 큰 법당, 방1칸, 공양간, 시설완벽.
- 가액 : 양도 1억 9천
-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 4668 - 6550

토굴(급)안내

- 위치 : 경북 예천군 풍양면
- 대지 400평
- 답 250평, 전 520평
- 건평 가옥2채(70평), 임법당1, 방8칸
- 가액: 1억 3천만원

017-534-136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2층)
- 30여평
- 삼존불 및 후불탱화(맞춤) 신중탱화
- 법당, 거실, 방2, 주방, 화장실 창고 등
- 시설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55)277-014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서면
- 대지 135평
- 건물 3동
- 법당 14평(삼존불)
- 도로변200m위치
- 주차시설 원만
- 가액 1억1500만원

010-4146-6556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예천군 상리면
- 산자락밑 밭1800평
- 물좋고,산세수려함
- 가액: 1억1천만원

(3년전 인수가격임)

010-3540-019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청주시내
- 평수 : 5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협의 후 결정
- 시설 최신식, 깨끗

010-5438-0138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북 충주
- 사찰 내 토굴스님, 보살님께 세 놓습니다
- 황토방 단독 20평
- 보증금 1천 500만원

010-9036-2131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 돌산 둔전리 여수시내에서 20분거리
- 땅 : 총 250평, 요사채 1동
-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동
- 양도가액 : 2억(절충가능)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11-9765-5302

만 물 사 안 내

-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신청동 삼미시장근처
- 임대료 : 보증금 일천만원, 임대료 칠십만원
- 주차장 2대
- 시설비 직접조정

017-263-7567

사 찰 안 내

- 위치: 물 좋고 공기 좋은 옥천
- 옥천 TG 10분거리
- 눈 앞에 대청호반 50m 관음성지
- 평수: 대지 192평, 건평 30평
- 실사용 60평
- 대웅전, 요사채, 임법당
- 시설비 포함 1억 7천만원
- 몸만 오시면 됨, 법회가능

016-234-7925

사 찰 안 내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48번지
- 4층건물중 2층
- 평수 :32평 시설완벽
- 법당 :장엄되어 있음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 (방2칸 시설비 : 2,000만원)
- 몸만들어오시면 됨

010-2565- 7200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 공업 로터리 부근
- 10층 빌딩의 3층
- 평수 : 60평
- 시설 A급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9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1-9335-5535

도심 속의 산중사찰

- 부산 동구 범일동
- 총대지 95평
- 건물 1층 70평 (법당 35평, 공양간등 8)
- 2층 35평(법당35평, 방2)
- 가액: 3억 5천만원(전세 절충)

010-2563-555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 전답 827평
- 법당, 요사채 약 50평
- 산신각 약 5평, 용왕당 약 2평
- 가액: 평당 40만원

010-8034-8309

사찰(급)안내

- 위치: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 대웅전 목재3포(31평)
- 종각, 산신각, 요사채등
- 부지 약 1,000평, 임야 약 3,000평
- 교통양호 (국도변)
- 가액: 11억

011-257-4985
052)238-900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감산동
- 평수 40평. 3층건물 2층
- 법당, 주방1, 방2개, 화장실
- 삼존불, 신중 영가단 , 원불 108불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8만원
- 시설비 답사후 절충 (시설완전 A급)

010-5685-2229

사찰가능 근린시설

- 위치 : 경남 고성군 연화산 옥천사 인근
- 대지 400평, 건평 45평
- 3층 증축 가능 기초철근 25톤 소요
- 2차선 국도접, 시냇가 접,
- 가액 협의

010-9113-8545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시 북구 화명동 소재
- 화명지하철역 1분거리
- 3층 50평
- 가액: 전세 2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9229-380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 지하철 4호선 서동역도보 2분
- 법당 35평, 요사채 70평
- 공양간 30평, 주택밀집지역
- 시장, 교통최적지, 생활보장
- 부동산사절직거래(취득세없음)
- 가액: 5억 (은해융자가능)

010-3867-4747

포 교 원 안 내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3동 494-40호
- 용호시장 우리은행 뒤
- 평수 28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시설: 삼존불, 소불 지장보살 108불, 관세음보살 108불

010-2914-353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명일동 방주 빌딩 2층
- 법당 :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 방3개, 주방, 해우소1개
- 평수 : 45평
- 보증금 1500만원,월12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현재 법회중

010-5362-337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안양시 종합운동장앞
- 평수 50평
- 4층건물에 4층
- 보증금 1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1200만원
- 스님 병환으로 급 양도

010-9108-548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양산인접
- 부지 3000평
- 시설 : 대사찰시설완비
- 특징 : 산사음악회, 큰행사하기 편리함
- 가액: 16억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2069-2270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서구
- 평수 45평, 법당 45평
- 삼존불, 후불탱화, 칠성탱화, 신중탱화 외 모셔져 있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7140-1204

토굴(임법당)안내

-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 대지 147평
- 건물 2동 외 부속동
- 삼존불 외 시설집기일체
- 가액 : 5천만원(절충불가)

010-9545-9444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8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6억5천

- 위치 : 충남천안
- 부지 : 5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4억5천

※오랜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사찰양도양수전문,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포교원 안내

- 대구 북구 읍내동 2층 50평
- 최고시설
- 법당1, 방3, 공양간 1, 창고방1, 화장실1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9199-7897

암 자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군 남이면
- 대전에서 45분, 시내에서 20분이내
- 평수 730평
- 건물 법당 15평, 요사채 30평 인법당
- 문필봉과 일월양봉이 보이는 청정지역으로 공기와 물이 좋으며, 겨울에도 따뜻한곳
- 심야보일러, 상수도, 조경시설 및 주차장
- 가액: 1억 5천만원

011-433-4193

요양시설, 전원주택 절, 전통식품공장터

- 위치 : 경남 합천군(대구에서40분거리)
- 총평수 3,579평(계획관리지역) 합천호인접 계곡경관이 아주수려한 지역
- 경내자연동굴(총폭2미터,길이 300미터)
- 동력전기있고 진입로 폭4미터 포장되어있음
- 요양시설,펜션,전통식품공장,절 건축허가가능
- 가액은 2억5천만원(답사후 절충조정가능)

011-848-245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 언양읍 남부리 소재
- 평수 : 독채 75평 중 , 1층요사채 2층 법당
- 건평 45평
- 구조: 삼존불외산신및각종신불일체
- 1층 방 3개주방 욕실 화장실 사내화장실 별도, 소각장 창고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40만원.전세 가능합니다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4576-2281/052)291-33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대평2리 23
- 대지약 150평 170평사용,건평 법당 약 40평 , 요사채 약 40평
- 불상: 아미타불2불, 관세음보살1불, 대세지보살1불, 지장보살1불,
- 후불탱화 3점, 감로탱화 3점, 사천왕도1점
- 사물일체(몸만 오면 됨)
- 가액 6500만원 절충가능

직통 010-5777-0011

특허 출현된 황토쑥뜸침대방

당뇨 성인병 항암치료를 받고있는 스님 불자님에게 시설를 무료 보시합니다.

- 단독주택(25평)방2,거실,
- 주방,화장실
- 보증금 200만원 월35만원
  (대구 달서구 두류동 굿모닝 병원 앞,대로변)

010-4191-045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남구 봉덕동
- 목조한옥독채, 마당포함60평
- 임법당(청동삼존불)
- 방3개.범종, 엠프시설완비 , 마당에는 산신각
- 보증금 500만원,월40만원
- 시설비4천4백만원(절충가능)

010-4056-5677

진리의 최고경지에 도달하여 세상에 대해 아무런 아쉬움도 없는 사람은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 불타오르는 집에서 무사히 빠져 나온 사람처럼. - 아함경 -

명상 8주 프로그램 〈2〉

몸의 모든 감각을 바라보고 수용

레슨2 – 몸의 느낌과 함께하기

두 번째 명상은 기분 좋은 느낌이든 불쾌한 느낌이든 당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느낌에 초점을 둡니다. 호흡과 하나되는 명상의 다음 단계는 주의를 더 확장해 몸 안의 모든 에너지와 감각을 자각해 보는 것입니다. 명상하는 동안 시시각각으로 편안함 긴장감 즐거움 가려움 통증 등 여러 가지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호흡 명상 때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감각에 집중하세요.

고요하게 앉아 있으면 자연히 몸에서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분주한 일상 때문에 놓쳤던 것들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고요하게 앉아 있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므로 처음에는 낯선 감각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어깨와 턱, 등, 가슴 등 몸의 여러 곳이 긴장하게 됩니다. 고요하게 앉아 있을수록 지금까지 살아오며 긴장했던 부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지켜보는 동안 불현듯 몸의 어떤 곳이 아프거나 따뜻해지거나 긴장되지요. 이때 호흡명상에서 처럼 다만 몸을 열고 바라보세요.

명상을 하는 동안 어떤 감각을 느끼면 그 감각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그러면 감각과 나 사이에 간격이 생깁니다. 자신의 몸이 어떻게 변하고 흐르는지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몸이 가렵다면 바로 긁지말고 "가렵구나, 가렵구나"라고 말해봅니다. 가려움이 마침내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됩니다. 모든 감각이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을 하며 앉아 있으면 세가지 통증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통증은 손에 불을 댄 것과 같은 것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대개 자세가 불편하니 자세를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통증은 자세가 익숙지 않아 다리가 따끔거리거나 욱신거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나 가부좌에 익숙하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세 번째 통증은 몸에서 자각할 때 느껴지는 그 밖의 모든 불편한 감각입니다. 통증없이 앉아 있는게 명상의 목표가 아닙니다.

명상유도문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편안히 앉아있어도 몸이 힘들어 질 수 있는데 힘든 것을 포함한 그 모든 것을 살펴봅니다. 척추를 위에서 살짝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허리를 펴서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눈과 얼굴의 긴장을 풀고 어깨와 손도 자연스러운 자세로 편안하게 둡니다. 시원한 느낌 어지러움 따끔거림 가려움 압박감 가슴과 배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호흡을 명상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곳에 집중합니다. 배가 불렀다 꺼지는 느낌에 집중 할 수 있고, 숨이 코로 지나가는 것에 집중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한 곳에 집중해서 명상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따가움이나 가려움, 코에 앉은 파리, 무릎의 통증, 어깨 결림 등 강렬한 감각이 느껴지면 그 곳에 뜨겁거나 차가운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기운이나 감각이 매우 강해지면 호흡은 잠시 잊어버리고 그 부위에 집중하세요. 그 느낌에 이름을 붙여봅니다. '뜨거움 뜨거움', '콕콕 쑤심' 등 어떤 이름이라도 좋습니다.

최대한 집중해서 느껴봅니다. 어떤 느낌이 드나요? 편안한 마음으로 느낌이 변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느낌이 사라지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강한 느낌이 들면 그 느낌에 집중하다 느낌이 사라지면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이 그 순간의 명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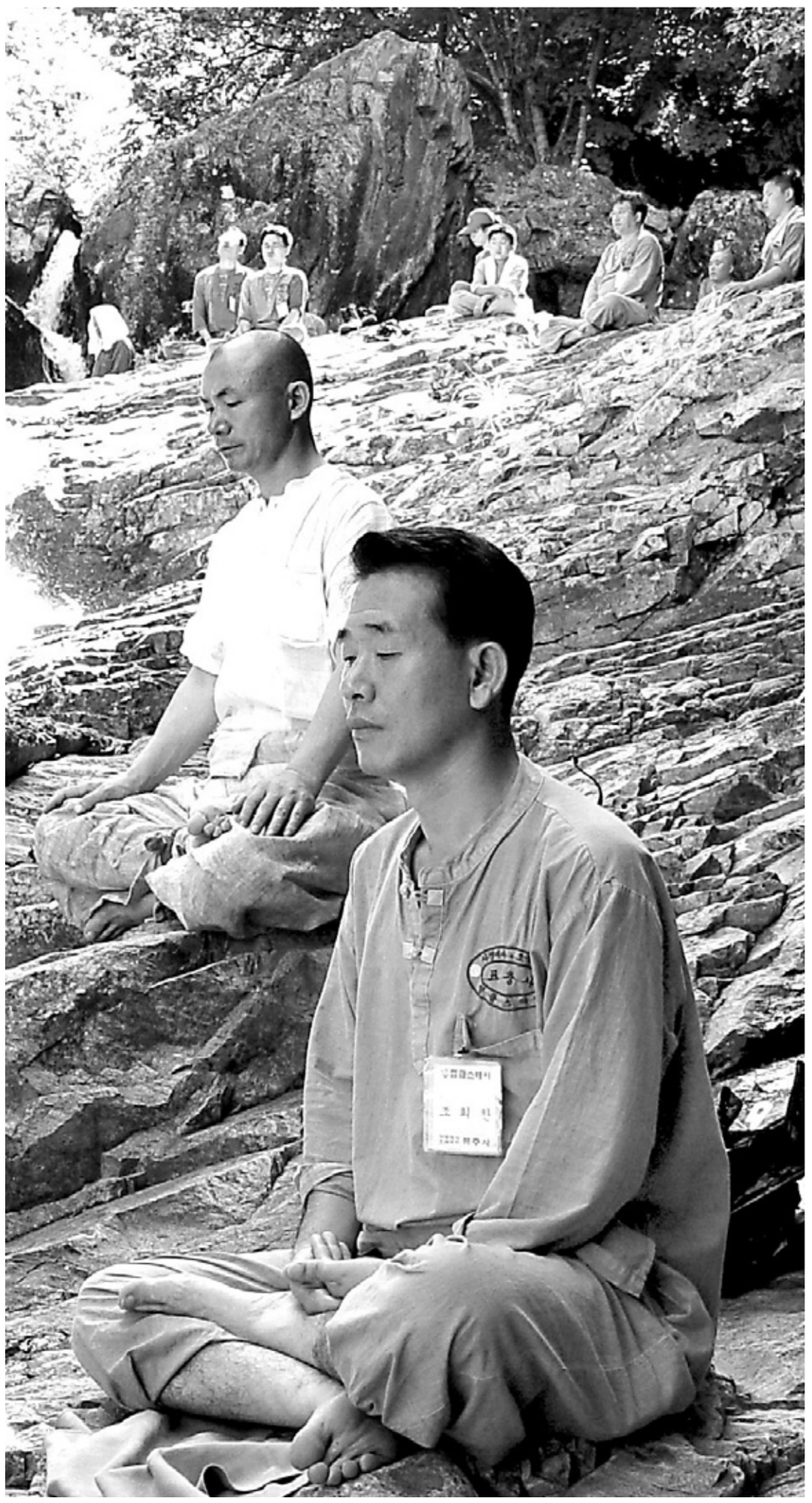
길면 긴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얕으면 얕은 대로 자연스럽게 숨을 쉬면서 관찰합니다. 호흡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느끼세요. 마음이 방황할 때마다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뜨겁거나 가렵거나 고통스러운 어떤 강렬한 느낌이 들면 그 느낌을 느껴봅니다. 거부하거나 싫어하지 말고, 호흡에 집중하듯 그렇게 모든 느낌을 지켜보면서 이름을 붙입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떠돌더라도 곧바로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순간의 호흡에 집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십시오.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에서 발췌

정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모든 중생이 행복 하기를!

필수자비경 (하)

5. 눈에 보이는 것이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건,
또 멀리 살건 가까이 살건,
태어났건, 태어나려 하고 있건,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6. 누구도 자기의 동반을, 그것이 어디에 있든 간에
속이거나 헐뜯는 일이 없게 하라.
누구도 남들이 잘못되기를 바라지도 말라.
원한에서든, 증오에서든.

7.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 바쳐 위해로부터 구해내듯
만중생을 향한 일체 포용의 생각을
자기 것으로 지켜내라.

8. 전 우주를, 그 높은 곳, 그 깊은 곳, 그 넓은 곳
끝까지 모두를 감싸는 사랑의 마음을 키워라.
미움도 적의도 넘어선
잔잔한 그 사랑을.

9. 서거나 걷거나 앉거나 누웠거나
깨워있는 한 이 (자비의) 염을
놓치지 않도록 전심전력하라.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한 경지'가 바로 그 것이다.

10. 그릇된 생각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계행과 구경의 지견을 갖추었으며
모든 감관적 욕망을 이겨냈기에
그는 다시 모태에 들지 않으리.

강대자행 옮김

'필수자비경'(Karaniya Metta Sutta)의 의미

빨리어 메따(mettaa)는 자애 우정 선의 동료애 우호 화합 비공격적임 비폭력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닌 용어다.

빨리 주석가들은 메따를 남들의 이익과 행복을 간절히 바라는 것(parahita-parasukha-kaamanaa)라고 정의한다.

메따는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이타적 태도로 이기주의에 바탕한 단순한 우호적임과 구별된다. 메따에는 이기심이 끼여들 여지가 없다. 마음속에 따뜻한 동료애와 동정심 그리고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그 같은 감정은 수행을 거듭함에 따라 끝없이 확대해 모든 사회적 · 종교적 · 인종적 · 정치적 · 경제적 장벽을 무너뜨리게 한다. 어머니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버리듯이 메따는 주기만 할 뿐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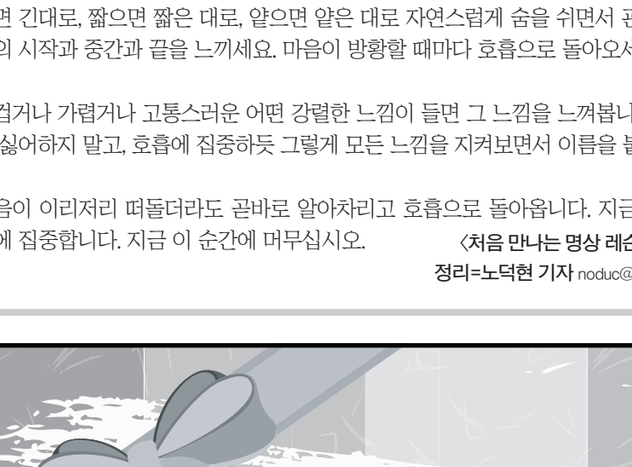
〈자비경〉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기 자비의 특징적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 부분(1~2)은 일상적 행위에 자비를 철저히 체계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두번째 부분(3~4)은 삼매에 이르는 탁월한 명상기법으로 자비관을 부각시키고 있다. 세번째 부분(5~10)은 보편적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전 사회에, 또 자신에게 자비심을 확대하는데 전심전력할 것을 강조한다.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현우경' 이야기 (3)

데바닷타의 욕심

황금빛 짐승이 가죽을 보시하자 꽃비가…

부처님이 라자그리하 그리드라쿠타산에 계실 때 몸에 병이 들었다. 의사 지바카는 병든 부처님을 위해 약을 지어 공양했다. 그 모습을 본 데바닷타는 질투심에 부처님과 똑같은 약을 지어 달라고 지바카에게 부탁했다.

지바카는 데바닷타와 부처님의 몸이 달라 같은 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데바닷타는 말을 듣지 않았다. 데바닷타는 부처님과 똑같은 약을 먹고 병에 걸려 고통스러워 했다. 이 모습을 본 부처님은 데바닷타를 가엾게 여겨 머리를 어루만져 주셨다. 그러자 데바닷타의 병이 씻은 듯 치유됐다.

병이 나은 데바닷타는 오히려 부처님에게 "사람들이 자신의 법을 알아주지 않으니, 이제는 의술을 배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구나"라고 말했다. 이 말을 옆에서 들은 아난다는 몹시 화가나 부처님께 말했다.

"데바닷타는 은혜도 모르는 자입니다. 항상 부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바닷타의 병을 왜 고쳐주셨습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온 데바닷타와의 인연에 대해 말했다.

오랜 옛날 잠부드비파 바라나라 성에는 브라흐마닷타라는 왕이 살고 있었다. 브라흐마닷타는 포악하고 욕심 많은 왕이었다. 어느 날 그는 꿈에서 온 몸에 금빛이 나는 짐승을 보았다. 왕은 꿈에서 깨고도 그 짐승을 잊을 수 없었다. 결국 왕은 사냥꾼들을 불러 모았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온 몸에서 금빛이 나는 짐승을 보았다. 내가 꿈에서 본 것과 같은 짐승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나라를 샅샅이 뒤져 그 짐승을 잡아오너라. 그 짐승을 잡아오는 자에게는 후한 상을 주겠지만 짐승을 잡지 못할 경우에는 너희는 물론 가족들의 목숨까지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삽화 · 강병호

왕의 명령을 받은 사냥꾼들은 걱정이 앞섰다. 태어나서 그런 짐승을 본 적도 없거니와, 숲에는 무서운 짐승들이 우글대고 있어 자신의 목숨조차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사냥꾼들은 자신들 대신 그 짐승을 찾아줄 또 다른 이를 찾아 일을 부탁하기로 했다. 사냥꾼들이 그 남자에게 말했다.

"숲에서 왕이 말한 짐승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대가는 반드시 치르겠소."

남자는 결국 채비를 마친 후 험한 숲속으로 들어갔다. 며칠 동안 끼니도 거른 채 숲을 헤매던 남자는 결국 기력이 소진해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 숲에서 한 짐승이 나타났다. 그 짐승은 사냥꾼을 데리고 물가로 가 물을 먹게 하고, 과일을 따서 먹였다. 기운을 차린 남자는 자신 앞에 있는 짐승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짐승의 모습은 왕이 말한 대로 온 몸에서 금빛이 났다.

사냥꾼은 고민에 빠졌다.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짐승을 헤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왕에게 짐승을 데려가지 않으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냥꾼들과 그들 가족의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이었다.

짐승이 사냥꾼에게 물었다.

"무슨 걱정이 있어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으십니까?"

사냥꾼은 결국 짐승에게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 말은 들은 짐승은 사냥꾼에게 흔쾌히 자신의 가죽을 가져가라고 말했다.

"저는 이 세상에 복을 짓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미 전생에 여러 번 목숨을 버렸지만,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려 제 목숨을 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누군가의 목숨을 꼭 구하고 싶습니다."

사냥꾼은 짐승의 마음에 크게 감동해 눈물을 흘렸다. 짐승이 사냥꾼에게 자신의 가죽을 보시하자 갑자기 하늘이 진동하면서 꽃비가 내렸다. 짐승은 사냥꾼에게 가죽을 보시하고 자신의 살은 8만 마리의 개미와 파리들에게 보시했다.

사냥꾼은 짐승의 가죽을 왕에게 가져갔다. 왕은 가죽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말했다.

"그때 욕심 많던 브라흐마닷타 왕은 지금의 데바닷타이고, 짐승은 나이다. 또한 그때의 8만 마리 벌레들은 지금 하늘사람들이 됐다. 데바닷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나를 죽이고 괴롭혀 왔다. 때문에 이생에서도 언제나 나를 헤치려고 드는 것이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건져 안락한 곳에 편히 살게 하고플 뿐이다."

이 말을 들은 아난다와 제자들은 크게 감동해 더욱 열심히 수행을 했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법성게 불자 건강카드 12

파동에너지발산용 칩 내장



만고의 진리인 법성게에 '파동에너지발산용 칩'을 장착하여 뇌파균형에너지가 작용되어 몸에 지니기만 하면 신체가 바르게 되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점차 건강해지며 남녀노소, 체질, 모든 사람에 부작용 없이 도움되는 획기적 기능카드입니다.

'법성게 불자 건강카드'는 몸에 지니고 12걸음을 걷는 순간, 바로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 법성게공덕 + 건강기능 + 전자파유해성중화기능 + 수맥파유해중화기능
◈ 사용법 : 카드비닐을 개봉해야 에너지가 발산되며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봉후 카드 하단에 개봉날짜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파동에너지발산용 칩'은 남녀공용으로 지갑,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만 해도 뇌기능의 핵심인 뇌파의 균형작용활성화로 인체의 좌우 균형을 잡아 소화기, 비뇨기, 순환기, 호흡기 등의 생체기능을 향상하여 불편했던 건강이 점차 개선됩니다.



(개발자 : 파동에너지발산용 칩 연구개발원 원장 김종석)

• 국내 실용신안등록 2건
• 미국 의료기기등록 (제370432010호)

방문하시는 신도분들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50장이상 구입 시 사찰명과 스님 법명 인쇄하여 드립니다.

총판 : 한국불교신도총연맹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전화 : 010-3334-5121. 010-8833-1619. 070-8116-5121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여주 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 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본제품은 10년간 사용하여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국제품질 시스템 ISO 9002 규격에 따라 제조되었습니다 (인증번호 AC-01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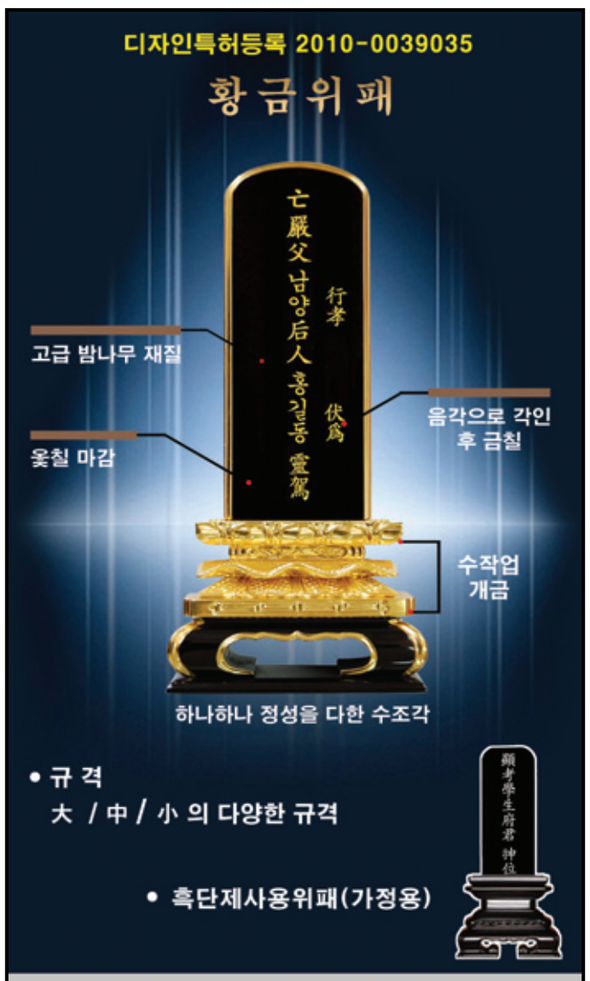
용 량 : 525g
사용기한 : 10년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농협 312-0029-1189-81 예금주 : 고태용

영일상사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고급 밤나무 재질
옻칠 마감
음각으로 각인 후 금칠
수작업 개금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 규 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 흑단제사용위패(가정용)

위패전문기업 (주) 대 양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 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4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행 스님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냥 팍팍 놔버리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2(남): 스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꿈을 꾸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본 적도 있고, 금빛 부처님을 뵌 경험도 있고, 지옥고에 시달리는 인간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꿈속에 어떤 사람이 내 몸을 뚫고 들어가 뒤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은 숫자를 세다가 100까지, 때로는 10까지 세고 다시 거꾸로 세어 하나에 이르자 '나'라는 말이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대학시절에 신(神)에 대한 강의를 듣고 깊이 공감했던 적도 있고, 초등학교 때는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경을 헤맨 적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내 마음속에 신이 탁 버티고 있는데요, '나'라는 의미는 무엇이며 신이 내 심중에 있다는 생각은 바른 것인지 큰스님의 가르침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스님: 여러분이 다 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움죽거리고 그러죠. 신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자성신(自性神)이라고 그러죠, 자성신! 이 자성신이 있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데서 외부의 모든 것을 한마음으로 돌리는 거죠. 사실 보이지 않는 데서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자성신의 마음, 이 자체는 체가 없기 때문에 만 명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려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용도에 따라 그 자체의 작용을 찰나찰나 하게 해서 찰나에 해 놓고 찰나에 나고, 찰나에 들고 찰나에 나는 겁니다. 줄창 들어만 있는 게 아니라 들고 나는 거죠. 이렇게 양쪽 손으로 작용을 해야만 이 정상이지 작용을 못하면 병신 아닙니까, 그와 같이 한 찰나에 들었다가 한 찰나에 난다 이 겁니다.

만약에 이 공부를 아주 철저히 한다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이 전부 화(化)해서 보살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식만 가지고도 만 개의 의식을 만들 수도 있으니 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천부당만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정말 헤아릴 수 없이 여러분이 그 묘법이라는 자체를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누가 대학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쉽게 비유하자면 무조건 남의 집에 침입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스님을 봤다든가, 알았다든가, 급하니까 스님을 방편으로 불렀다든가, 주인공에 스님의 마음과 일체제불의 마음이 한군데에 들어 있으니까 '한마음 속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다!', '해 주시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에 한해서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붙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만 알았지, 급할 때 쓰도록 미리미리 관하는 방법을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서 손톱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이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렁이 속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지렁이가 돼야 들어갈 때 저항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합세를 해 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음에 들어서 통신망을 딱! 해 주고 그 머리에 밝은, 모든 것을 낼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본인 자신이 그것을 도통 한 번도 생각을 해 본 점이 없을 때에는 통에다가 기름을 부으니까 그냥 통이 새거나, 통이 없어서 기름을 아무리 부어도 거기 담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형국이나 같은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진지하고 실천적이며, 현실적으로 진실하게 자유자재할 수 있겠느냐 할 때 아주 특이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저 남이 이렇게 한다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왜냐? 자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라는 거를 세우기 때문에. '자기가 배웠고 이 사회에서 활동도 했고, 남자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뭐 그거….' 하는 그 아집이라고 할까요? 아상, 아집, 그런 문제 때문에 딱 가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세계 50%의 관습에 젖은 머리로써 살아나가니까 물질만 보이지, 안 보이는 무심의 도리, 정신세계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해서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딱 닥칠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 방편으로 말할 때, 가는 길이 있으면 오는 길이 있어야 작용이 아주 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 가는 길만 알지 오는 길을 모르니까, 오는 놈은 가는 길을 모르고 가는 놈은 오는 길을 모르니 이것이 양면의 작용이 됩니까? 이 세상 이치가 시발점과 종점이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은 자기의 시발점에서 사람들이 내리기도 하고 타기도 하며, 자기 종점에서도 자기는 내리지만 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니 시발점과 종점이 어떻게 둘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만사가 융통할 수 있는 작용입니다.

왜 만(卍)자의 끄트머리를 요렇게 해 놨습니까? 그냥 둥그렇게 해 놓기만 하지, 왜 또 팔을 그려 놨습니까, 이렇게? 그것은 바로 이 원체가 있으면 움죽거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더하고 덜함도 없이 생각을 안 내고 생명만 살아 있다면 아무 걱정이 없죠, 목석이니까. 하하하…. 그런데 이거를 어떡하든지 이끌어 가고자 하고, 좀 남들처럼 살아 보고자 하고, 그 아픈 거와 슬픈 거와 행복한 거를 알고, 그 행복한 맛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밀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지금 작용을 하고 살죠. (잠깐 멈추시고) 말을 하다가 잃어버렸어요. 허허허…. 말을 하다가도 길이 하도 많아서…. 어, 참 그렇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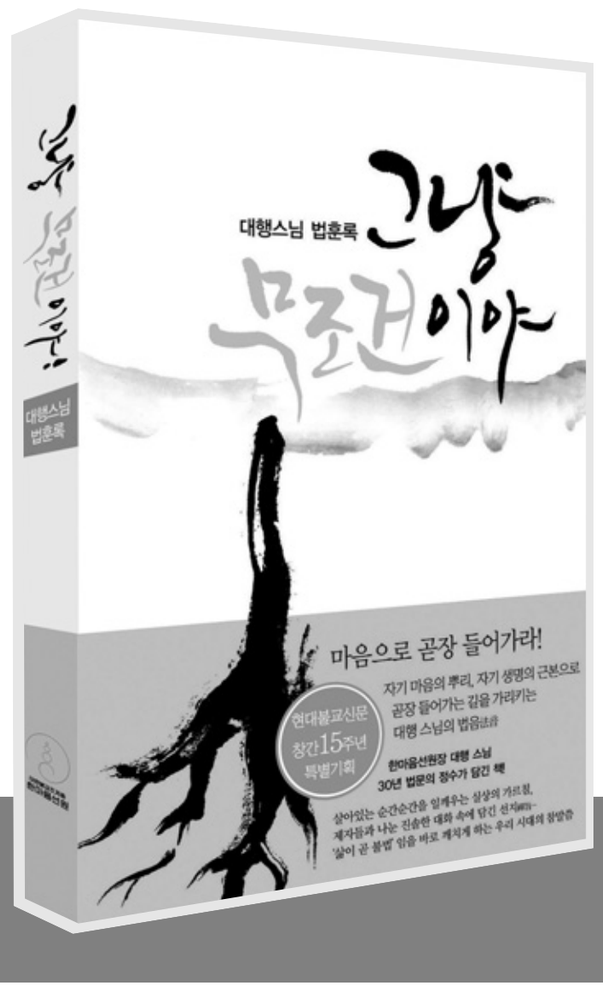
그래서 '만(卍)'자를 그렇게 해 놨는데 그것이 바로…, 법륜마크라고 하는 것도 바로 팔 수레바퀴, 이것도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 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끄트머리가 요렇게 돼 가지고 돌아가는 그 작용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생도 아니요, 부처도 아닌, 둘이 아닌 자체를 아시라 이겁니다. 중생은 부처 속에서 나왔고, 부처는 중생 속에서 나왔으니 이것을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작용 때문에 바로, 둘이 하나로 붙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불이 번쩍 일어나듯, 불이 켜지듯, 인간도 그러합니다. 이 세상 이치도 그러하고요. 잡아당기는 게 없다면 끄는 게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지구가 어떻게 이렇게 온전하게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자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땅에 붙어서 다닙니다. 모두 고마운 줄 모르죠? 이제 질문 다 하셨습니까?

질문자2(남):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주인공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며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자주자주 허리가 아파서 여러 모로 통증을 느끼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이 심하니 때로는 주인

☞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놔라 이대로가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마음은 항상 한군데다 일념으로 두셔야 합니다

☞ 29면에서 계속

공을 원망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고통을 겪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을 써서 치료를 해서 다 나았다고 생각되면 자꾸 재발을 하니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프게 한 것도 주인공의 인연으로 한 것이요, 아픈 육신도 주인공의 것이니 당신만이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겠지!' 하고 계속 관(觀)하고 믿고 맡겼더니 며칠 전에는 심한 고통은 사라졌습니다만 지금까지 개운치 않습니다.

큰스님: 개운치 않게 마음을 썼으니까 개운치 않죠. 하하하…. 어딘가가 모자라니까 그렇지, 모자라지 않은 바에야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죠. 병원의 의사입니다. 수술을 했는데 잘못 건드려 가지고 잘못됐는데, 의사들은 알죠. 이 의사 저 의사 불러다가 다 해 보니까 이건 뭐 급박해졌어요. 이제 문도 닫게 되고 큰 문제가 벌어질 것을 생각하니 그냥 눈앞이 캄캄해진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알았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그 알았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것이 가벼운 대답이었다면 아마도 그건 안됐을 겁니다. 무거운 대답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시각부터 달라지면서 부위가 그냥 다 정상적으로 됐다는 겁니다. 의사인데도 '이건 내가 의사 할 만한 가치가 없구나.' 하는 생각에서 그냥 탁! 아예 만사가 다 버려지더랍니다. '나는 의사 될 자격도 없고, 우리가 모두 거기만 매달려서 연극배우처럼 사는구나.' 하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그랬듯이….

그래, 그런 걸 좀 알려면…, 지금도 시들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전력을 다해서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파서 재고 재고, 또 들고 또 들고 해야 합니다. 육조 스님도 둘이 아닌 도리에서 나투는 도리를 배우려고 그냥 12년 동안이나 또 뭉쳐 놓고 그렇게 하셨죠. 몸은 팔방으로 돌아다녔으나 마음은 한군데다 항상 일념으로서 두셨다는 얘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천차만별로 살림살이를 사시겠지만 그 살림살이는 바로 여러분의 그 불성, 한마음 속에서 들이고 내는 겁니다. 일체가 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모두 살죠? 똑같이 숨 안 쉬면 죽을 겁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숨 안 쉬고는 못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일체 만물만생이 다 숨쉬고 살듯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포괄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개별적이고 하찮은 나, 주인공,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얼마나 귀중한 한마음입니까. 이것은 개별적인 자기 한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지수화풍이 동시에 같이 하는 것인 반면에 또 그 지수화풍 속에서 갈라지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지수화풍이 있기 이전에는 어땠구요, 또. 천차만별의 이름이 전부 모여서 그걸 이룬 거 아닙니까. 산소와 수소가 한데 합치니까 물이 됐듯이.

그러니까 그 허리가 그대로 낫게 되는 거죠. 허리 뿐만 아니라, 자기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서 '아무리 해도 이거는 낫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도 있고, 또 입이 돌아가거나 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당장 그냥 침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야단나죠. 그런 걸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죠.

애통할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말해 볼까요? 이것을 뛰어넘으려면 죽고 사는 것도 뛰어넘어야 되는데, 저렇게 저러는 거를 그렇다고 해서 '그건 법이 아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허허허…, '야! 그럭하면 뛰어넘을 수 없다.' 할 수도 없고, 그냥 가는 대로 뒷받침만 하고 가는 거지 어떡합니까. 내가 죽고 살고 이런 거를 떠나야만이 된답니다.

질문자2(남): 자주자주 큰스님을 뵙지를 못하고 저희들이 공부가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큰스님: 그까짓 거 캠핑 나와서 놀다 가는 거 그냥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팍팍 놔 버리지, 그놈의 걸 뭐 때문에 붙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기 산악회 놀러 가시죠? 놀러 가실 때는 바로 탄생하는 겁니다. 다 놀고 들어올 때는 멸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잠시 잠깐 가서 놀다가 올 거를, 뭘 그렇게 그냥 서로 찢고 뺏고 모두 살겠다고 애를 쓰고, 더 살겠다고 허허허….

질문자2(남): 높으신 법문 고맙습니다.

사회자: 지금 공기도 좀 싸늘해지는 것 같고, 우리 스승님을 우리가 위해 드리지 않으면 어느 분이 위해 드리겠습니까? 스님 모시고 밤새도록 여러분 질문….

큰스님: (잠시 시계를 보시고) 아니, 저기서 (손가락으로 대중 가운데 한 분을 가리키시면서) 질문할 양으로 손을 아까부터 들었는데 오시라고 그러세요.

사회자: 그 마음이…. 나오시겠어요, 구지비?

큰스님: 하하하….

사회자: 간단히 하세요.

질문자3(남): 큰스님,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서 중생을 교육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고를 겪으면서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관, 착, 놓으라는 얘기를 생활화하고 있는데, 관과 착과 놓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같은 것 같은데, 그게 같은지요? 아니면 엄연히 다른지요? 그래서 그 관과 착과 놓는 것이 같다면 그 후에 자유로워지는데, 그 자유로워지는 것도 결실을 잘 맺어서 자유로워지는 것하고 결실을 못 맺고 자유로워지는, 소위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요. 관과 착과 놓는 것이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스님?

큰스님: 놓는 거와 관하는 거와 착은 엄연히 다르죠. 놓는 거는 그냥 내던져 버리는 거고요. 놓아라, 쉬어라, 관한다 이런 거는 놓으면서 믿음으로써 들어가는 겁니다. 놓으면서, 즉 말하자면 한군데다가 일임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재료를 맷돌에 넣어서 갈려서 나와야 먹을 게 아닙니까? 그와 같이 관한다는 것은 자동적인 맷돌에 물건을 넣고 갈려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일체를 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관법입니다.

질문자3(남): 그런데 그 개체에 따라서는 의식들이 강한 것도 있고 고유의 특성이 있는데, 우리 개체의 중생의 신경에 관을 하면 형식적인 사리분별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관념 또는 착이 있어야만이 사물에 대한 제대로 관이 될 텐데….

큰스님: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올라오실 때에 걸어오셨죠? 한 발짝 한 발짝. 예? 걸어오실 때에 그 발자취를 걸머쥐고 오지도 않았는데 그게 착이 됩니까? 이 세상살이는 만사가 다 찰나찰나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정돼서 요건 요렇다 하고 집어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질문자3(남): 범부의 착이 없으면 관이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는 집착과 애착이….

큰스님: 원칙은요, 착도 없고 관도 없어요. 관도 놓고 착도 놓고 모든 것을 여여한 그대로…, 그것은 바로 물리가 터져야 됩니다. 이 세상살이가 그냥 본래 놓고 가는데 또 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체가 돌아가는 자체, 공(空)해서 돌아가는 이치에서 그것을 주시하고 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관하고 돌아가니까 그것이 참선이 되는 거죠. 행선이나 좌선이나, 입선이나 와선이 전부 한데 합쳐져서 참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참선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게.

질문자3(남): 스님, 심경, 마음의 거울에 우리 주인공이 관과 착과 놓는 것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까? 이름만 다르지 한 가지로 하는 건데….

큰스님: 왜 착이 거기 붙습니까? 아니, 답답한 것마저도 거기 붙지 않습니다. '공했다는 말 자체도 공했으니' 이렇게 말이 들어가는 건데…, 공했다는 자체, 공해서 없다는 자체도 없다는 겁니다. '그 없다는 자체도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착이 어째서 들어갑니까, 거기?

질문자3(남): 잘 알겠습니다.

큰스님: 하여튼 자기가 자기를 발견해서 자꾸 계발을 해야 됩니다.

질문자3(남):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왜 달마는 수염이 없는가?" 하는 답에 "왜 달마는 동쪽으로 왔는가?"가 답이 되겠습니까?

큰스님: 뭐가요?

질문자3(남): 소위 달마 대사는 고승 선사로서 대오 견성을 하신 것이 중요한 거고 그분의 실체가 중요한 건데, 달마의 수염이 있느냐 없느냐는 동쪽에서 왔든 서쪽에서 왔든 그게….

큰스님: 수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도리를 아셔야 합니다.

질문자3(남): 그렇죠? 그러니까 유(有)가 무(無)고 무가 유겠죠. 그렇다면 그게 동쪽에서 왔는가가 답이 되겠습니까?

큰스님: 동쪽에 온 까닭이 뭐냐고 했겠죠?

질문자3(남): 예, 그랬죠.

큰스님: 예, 그런데 어떻게 동쪽만 동쪽이라고 하겠습니까? 동쪽이나 서쪽이나, 동쪽에 왔으면 서쪽에선 서쪽에서 동쪽이니, "층층대를 올라간 까닭은 무엇이냐?" 이런 거나 똑같아요. 지금 여기 올라오실 때 여기 올라온 까닭은 무엇이냐? 그럼 내려가는 까닭은 또 무엇입니까?

질문자3(남): 그야 아무런…, 무가 유고 유가 무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게….

큰스님: 그렇게 말로만 아시려고 할 게 아닙니다, 이게. 하하하…. 말로만 안다면 요만한 거 하나도 해결 못합니다. 지금 실상으로서 실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만큼도!

질문자3(남): 스님, 감사합니다.

사회자: 우리 한마음 도리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꼭 둘이다, 이런 이치가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마음 도리를 자유자재하게 활용을 해서 자유인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뜻한 바 공부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큰스님께서 던져 주시는 것, 맛있는 음식, 무엇이든지 받아 자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 나가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큰스님,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합장하시며) 하나도 하나요, 둘도 하나요, 셋도 하나요, 만(萬)도 하나요, 허허허…, 십만도 하나요. 이 도리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가 십만이 될 수도 있는 숫자가 되고,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 작용 자체가 실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구요. 바로 실체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법회 식순을 모두 마친 후) 이것으로써 새해맞이 법형제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큰스님: 웃고 행복하게 사시길 빌어 마지않습니다.

대중 일동: 고맙습니다.

※위 법문은 1992년 1월 5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질세계 50%의 관습에 젖은 머리로써 살아나가기 때문에
물질만 보이지, 안 보이는 무심의 도리, 정신세계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해서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딱 닥칠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 방편으로 말하자면
가는 길이 있으면 오는 길이 있어야 작용이 아주 유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면 가는 길만 알지 오는 길을 모르니까,
오는 놈은 가는 길을 모르고 가는 놈은 오는 길을 모르니
이것이 양면의 작용이 되겠습니까.

십장생 福 포대화상 도자기

십장생 복 포대화상 도자기를 모셔둔 家에는
언제나 밝은 웃음이 그치지 않고 하는일 마다 만사형통하여 큰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천하를 다 포용하고도 남을 큰배와 언제나 밝게 웃는 모습으로 포대자루 속에든 복을 꺼내어 중생에게 나누어 주시는 포대화상 (앞면)

도자기 옆면과 뒷면은 십장생 그림으로 사슴이 불로초를 물어다가 거북에게 건네주는 신비한 장면이며 아래위 여백을 살려 시원하게 처리하였습니다.

「KBS 진품명품」에서 해박한 지식으로 서예 감정을 하여 그 이름을 떨치신 **매산 김건원 교수**님의 글씨와 한국 화단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소림사 한국본부문화원 미술원장을 맡고 계신 **청곡 이한동 화백**의 그림으로 합작하신 십장생 포대화상 도자기


매산 김건원


청곡 이한동

※ (높이 35Cm×둘레 90Cm 제조원 여주 다양도예 최고급 여주 백자
(손으로 일일이 만든 작품이라 약간씩 차이가 있음)

설날 파격 선물 SET (발송에서 배송까지 7일이 소요됩니다.)

도자기 외 사은품 6종 가격 ~~₩298,000~~ → 198,000원

① 십장생 장수 반상기 세트 6P (밥그릇, 뚜껑, 국그릇, 2벌)



세끼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제대로 하는 것이 천 가지 보약보다 낫다고 합니다. 중요한 시사를 하는 반상기(밥그릇, 뚜껑, 국그릇) 또한 소중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② 소품 연화 약 찻잔 5P



짙은 약이나 차를 따라 드실 때 편리한 소품으로 된 약찻잔 5피를 청곡화백의 작품으로 연꽃이 들어간 예쁜 잔입니다.

③ 진품 포대화상도 작품 (10호)



진품 포대화상도를 집안에 모셔두면 가정에 화목을 이룰 것이요, 밝은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밖에 있는 복을 집안으로 불러 드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청곡 화백 작품

④ 진품 달마도 작품 (10호)



진품 달마도는 그 속에서 나오는 강력한 기가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액을 막아 주어서 모든 병마를 물리치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며 언제나 아늑한 가정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청곡 화백 작품

⑤ 부부용 순금카드 2점



복 포대화상1점은 부인이 간직하면 집안에 복이 가득차고, 용달마 1점은 출근하는 남편 지갑에 넣어 주면 남편을 지켜 줄 것입니다.

⑥ 2012년도 미니카렌다 (차걸이겸용)



청곡 화백의 작품으로 포대화상 6점, 달마도6점이 수록되어 있으며 차안에 걸어 두시면 안전운행을 지켜 줄 것입니다.
[크기 : 가로 9㎝ × 세로 10㎝]

구입처 :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 세상보기

전당대회錢黨大會, 어떻게 할 것인가?



김종석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與 – 현직 국회의장 검찰소환 코앞
野 – 영남권 불법자금 살포 논란
전국 산재된 대의원 모아
정당한 대표 뽑을 지혜 모아야
"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고승덕 의원의 한 일간지 칼럼에서 시작된 파문은 당시엔 조용했으나, 고 의원이 채널A에 출연해 돈 봉투 받은 사실을 확인해주고, '300만원'이란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다. 그리고, 돈 봉투를 돌린 당사자로 현직 국회의장이 지목되면서 정치권 전체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 이전투구가 계속되면서 의혹의 제기자들 또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고승덕 의원은 'SD 양아들론'을 둘러싸고 정두언 의원과 트위터 설전을 벌이고, 홍준표 前 대표는 원희룡 의원이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대학생을 동원한 사실을 들며 의혹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비판한다.

여당만 그런가? 야당 또한 돈 봉투 및 불법적 대의원 동원에선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과거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자금이 살포됐다는 의혹이 각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 현재 진행 중인 민주통합당 경선에서도 영남권에 불법자금이 살포됐다는 언론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총체적 난국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을 계기로 안철수-박원순 복식조의 '정당무용론' 역병을 심하게 앓은 터다.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패배, 특히 20~40대의 한나라당 외면은 수도권 현역들을 낙선에 대한 공포로 몰아넣었다. 여권의 유일한 대권 후보 박근혜 대표도 나서고, 김종인·이상돈 등 비판적 보수주의자, 26세의 이준석도 내세워 쓰러져가는 한나라당 간판을 세우려 안간힘이었지만, 비대위 체제는 당내·외로 튀어나오는 잡음에 개그콘서트의 '비상대책위원회'와 비슷해 보였다. 그리고 금번 고승덕의 돈 봉투 폭로는 (정두언 의원의 표현대로) 당을 한번에 정리해 버리는 카운터펀치였고, 이제 한나라당은 당의 뿌리부터 들어내어야만 한다.

정책이라고 해봐야 '반(反) 이명박' 외에는 없는 것처럼 보였던 야당은 시험 전 벼락치기하듯 이합집산 끝에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새살림을 꾸렸다. 하지만, 지난 4년 무기력으로 일관했던 야권이 '과연 한나라를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요구받는 상황이다.

당 간판을 떼어내고, 사람을 갈아 치고, 법령을 강화하면 금번에 본 것과 같은 돈 '전(錢)'자 전당대회(錢黨大會)는 사라질 것인가? 문제는 그대로 남았다. 정당의 대표자는 뽑아야 할 것이고, 전국에 산재한 대의원들은 투표는 하고 싶으나, 굳이 서울의 체육관까지 가서 표를 던질 만큼 관심이 없다. 더구나 대의원 입장에선 내 시간 하루를 오롯이 꼬박 써야만, 그것도 내 돈 들여가며 올라가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인가? 대의원을 독려할 당협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뭐 주는 거 하나 없이 '체육관으로 가자' 할 입장도 아니다. 즉, 전국의 대의원이 한 곳에 모여 투표하는 소위 체육관 선거란 틀이 존재하는 한, 당선이 시급한 후보는 돈을 살포 할 유인이 충분하다.

그렇다면 민주통합당의 당대표 선거에 등장한 모바일 선거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스마트폰을 가진 이는 이를 활용하겠으나, 가지지 못한 이는 투표할 수 없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격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디지털화가 조작과 공격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는 선관위 D-DOS 공격으로 이미 보지 않았는가?

4월 총선까지 불과 3개월여. 여당과 야당은 어떠한 답을 제시할 것인가? 궁금함을 넘어 2012년의 한국 정치의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사부대중 칼럼

뇌가 만드는 마음, 마음이 만드는 뇌



박지숙
카루나 마인드힐링 연구소 소장

"
변덕 죽 끓듯 하는 것은 마음 탓
학자들, 마음은 뇌의 결과물 동시에
마음은 뇌 변화시킬 강력한 도구
마음 조절 훈련하면 행복해져
"

현대인들은 변덕이 죽 끓듯 하다. 결심이 서면 과감하게 행동을 하고, 화가 나 미치겠다가도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금방 배시시 웃음을 짓는다. 이렇듯 마음은 찰나를 다투면서 민망할 정도로 요동을 친다. 또한 변덕이 죽 끓는 듯한 가벼운 마음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결코 변화하지 않는 '나'가 존재하고 있음을 믿고 있다.

학자들은 이러한 마음이 뇌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은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말한다. 마음과 뇌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몸의 이상증세나 질병은 대개 머릿속 깊이 저장된 부정적 감정에서 찾아온다. 뇌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정적 감정은 반드시 몸에 남아서 여러 가지 증세로 나타난다. 과거 힘들었던 사건이나 경험들 그와 관련된 감정들이 모두 해소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다 보면 난치성 질환이나 만성적 질환, 신경증적 질환들로 발병된다. 반대로 부정적 정서나 감정들을 해결하면 질병이 근본적으로 치유된다. 즉, 마음이 약이 될 수 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의 뇌를 살펴보면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농도가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막는 프로작 같은 약이 처음 출시됐을 때 의학자들은 약물로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런 기쁨도 잠시, 약을 투여해도 오랜 시간이 지나야 효능이 나타나고, 재발률도 높았다. 지금도 많은 제약회사들이 뇌 질환을 치료하는 약물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약을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제는 마음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새롭게 연구하고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강박증 같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단지 자신의 감정을 흘러가는 대로 보고 객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된다고 한다. 특히 약물로 치료를 하다가 실패한 환자일수록 마음을 컨트롤해 증세가 호전되는 경우 효과가 크고, 재발률도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뇌 영상에서도 마음의 변화로 뇌의 활동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관찰됐다.

실제로 마음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깊은 감동을 받거나, 어떤 생각을 일으켜 크게 깨친 바가 있다든지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는 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가슴이 벅차오르거나 정신이 번쩍 드는 경험을 누구나 해보았을 것이다. 이는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우리 몸의 수십만, 수백만 개의 세포조직 하나하나가 미세한 떨림과 파장의 에너지를 일으키며 찰나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이다. 마찬가지로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해마나 편도의 크기를 바꾸고, 뇌에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뇌의 변화는 감정 상태, 라이프스타일, 업무능력, 집중력 등을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마음이 이를 다시 되돌리거나 능력을 증진시킬 수도 저하시킬 수도 있다.

뇌와 마음, 육체와 정신은 서로 관계성을 가지는 원인이자 결과로서 독자적인 법칙을 가지고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마음을 이용하면 약물 중독과 같은 질병도 부작용 없이 스스로 조절하는 훈련을 통해 자기 치유를 할 수 있다. 마음이 편안하고 온유하게 바뀌면 뇌도 몸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바뀐다. 반대로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면 뇌의 구조도 육체적인 메커니즘도 불행하게 바뀐다.

결국 행불행은 나의 뇌와 한 생각, 한 마음에 달렸다.

社說

동국대 ABC사업에 불자 힘 모으자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고려시대 초조·재조대장경 조성과 진배 없는 한국불교문화사에 기념비적인 대역사를 시작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2012년부터 2026년까지 15년간 100억원 이상의 국고를 투입해 진행하는 ABC(Archives of Buddhist Culture)사업은 21세기 우리시대의 대작불사이다.

고려시대 선조들은 당시 최첨단 기술이던 목판인쇄술을 부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활용했다. 1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당대의 최고 기술을 활용해 부처님 말씀을 디지털로 재구성을 시도하고 있다. 해인사 장경각 목판 안, 잉크로 종이에 찍힌 부처님 말씀이 유·무선 인터넷을 따라 빛처럼 빠른 속도로 전세계에 전해지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불교학술원장 인환 스님은 "ABC사업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자대장경의 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 열매를 수확하까지의 노력은 쓰디쓰다.

필요인력이야 불교학술원이 개설한 한국불교융합학과 석·박사과정과 불교한문아카데미를 통해 양성할 수 있다지만, 경비가 문제이다. 문광부 등 정부지원금에 대응하는 금액을 동국대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재단전입금이 부실한 상태에서 최근 240억원을 들여 운동장·수영장 부지까지 매입한 동국대에 그만한 여력이 있을 것이라 짐작하는 이는 많지 않다.

인환 스님은 1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불교계에 가장 시급한 것은 올해 부처님오신날 전까지 완공해야할 논산훈련소 대법당이다. 그 다음은 불교학술원의 ABC사업에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초조·재조대장경 불사를 잇는 동국대 불교학술원 사업에 불자들의 원력이 모아지길 기원한다.

조계종 해외 교구에 거는 기대

조계종이 1월 8일 미국 뉴욕 불광선원에서 美 동부 해외특별교구장 진산식를 개최했다.

이는 그동안 해외에서 외롭게 홀로 도량을 마련해 법음을 전파해온 포교승들의 체계적인 조직이 갖춰졌다거나, 해외불자들이 연대할 구심점이 생긴 것을 넘는 의미를 지닌다. 공식적으로 한국불교의 전통·교육을 전파할 인프라가 구축됐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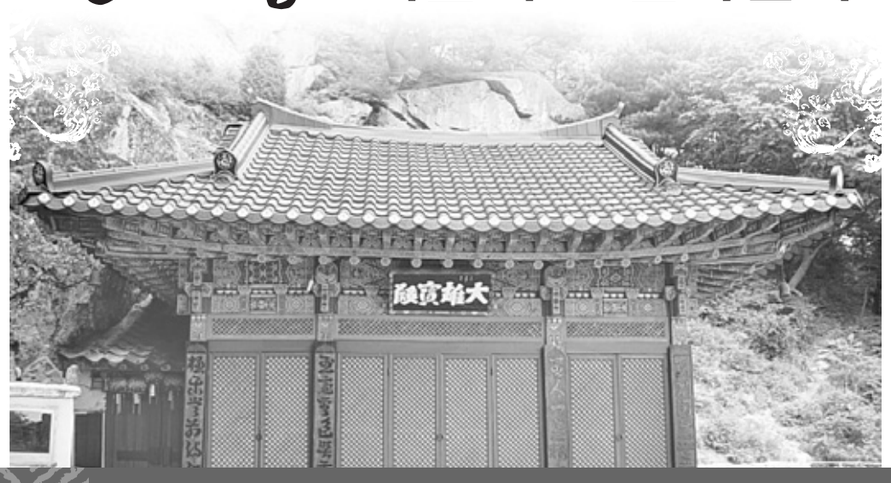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을 대신해 진산식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이 "그동안 영세한 사찰규모로 교포 중심의 해외포교 활동 등 그간의 관행과 시스템이 문제였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진산식 후 열린 간담회에서 재미 불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해외교구 신도증 발급 등 해외교구 구성원의 위상에 관한 내용도 있었지만, 경전·사경문·한글학교·불교방송 등 신행생활과 직결되는 내용도 많았다.

국내 여타 교구와 달리 해외특별교구는 모든 것을 척박한 환경에서 새로 일궈내야 하는 형편이다. 조계종이 해외 '특별' 교구라고 이름 붙인 만큼 종단 차원의 특별한 '관리·지원'이 따라야 한다. 조계종의 이번 美 동부 해외특별교구 설립이 미국 내 한국불교 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얕은 물은 소리내어 흐르지만, 깊은 물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소리를 내는 법 없이 아주 조용하다.
- 숫타니파타 -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용주사 LED 인등


윤장대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오색공단등


팔각봉축접등


왕생극락접등


칼라(보카시)연등

주름등








공 단 등


영 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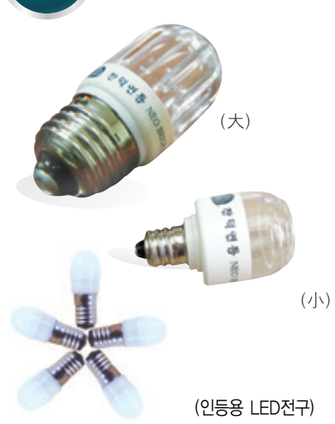

종등


종등

※ 주름등·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신상품 찬덕 LED 전구


(大)
(小)
(인등용 LED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디지인 특허 : 제 30-2011-0010353 / 제 30-2011-0010355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스님 및 여러불자님들이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신제품 를 개발하였습니다.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구성되어 있어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든 신개념 제품입니다. 특히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New 디자인특허 출원번호
제 30-2011-0010353
제 30-2011-0010355





• 칠성기도, 허공기도, 천신기도 세트
바람막이가 씌어 있는 상태
바람막이가 없는 상태

구성 : 스텐레스 받침 1개 / 크리스탈 받침 1개
P.C 컵밀납초 7개
P.C 바람막이 7개(여분증정)

New



디자인특허 출원번호
제 30-2011-0034559

• 원기둥초 (7.5Ø×29Cm)
PC바람막이
용도 : 허공기도,
천신기도시 바람막이

• 파라핀 오일
(국내산 원액, 제조 삼환양초)



• 도자기 인등
小 가로 13Cm 세로 17Cm
大 가로 15Cm 세로 19Cm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제품문의 :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